

#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 "인터내셔널과 코뮤니스트좌파 역사"

강사 | 이형로



주최 |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ICP)

# 인터내셔널과 코뮤니스트좌파 역사

1. 강좌를 시작하며 - 계급투쟁의 역사, 노동계급 조직의 변화
2. 코뮤니스트동맹, 제1 인터내셔널 - 노동계급 최초의 국제조직
3. 제2 인터내셔널 - 사민주의의 배신과 '좌파분파'의 출현
4. 제3 인터내셔널 -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한 좌파의 투쟁
5. 제3 인터내셔널의 타락과 반(反)혁명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6. 맑스주의 연속성과 오늘날 코뮤니스트좌파의 원칙

# 1. 강좌를 시작하며

## - 계급투쟁의 역사, 노동계급 조직의 변화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시민과 직인,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 억압자는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며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그 투쟁은 언제나 사회 전체의 혁명적 변혁을 가져오거나 투쟁을 벌인 계급이 함께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코뮤니스트 선언』, 맑스, 엥겔스, 1848)

맑스와 엥겔스는 「코뮤니스트 선언」에서 역사는 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적 변화는 계급투쟁을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즉, 피억압계급이 억압계급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기에 이러한 ‘**계급투쟁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 했다.

계급투쟁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 사이의 충돌로, 노예제 사회에서는 주인과 노예, 봉건 사회에서는 귀족과 농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계급투쟁 역사에서 노동계급은 특별히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냈다. 하나는 전체 노동자를 공동의 투쟁으로 모으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든 노동조합과 같은 ‘**단일(단위)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의식의 발전을 통해 노동계급이 자신의 혁명적 본성과 목표를 인식해 혁명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당과 같은 ‘**정치(혁명)조직**’이다. 이 두 유형의 조직은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적 조건 변화와 함께 자신도 변화하면서 계급투쟁 역사 속에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못 했어도) 항상 존재했다.

### 1) 노동계급의 단일(단위)조직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는 자본주의가 상승하는 시기로 노동계급의 출현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향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이 발달하게 된다. 이때 노동자들이 일으킨 첫 투쟁은 기계를 부수는 운동(러다이트)이었고, 단체 결성의 권리를 위한 최초의 투쟁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때다. 당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노동조합이었는데, 당시의 노동조합은 노동자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 임무를 수행해 온 조직이었고, 노동계급에

충성을 다하는 투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업하거나 아플 때 상호부조를 위한 친목회인 노동자협회, 스포츠클럽이나 문화협회와 같은 모임까지 발달했다. 이들은 노동자 대중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계급투쟁의 역사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계급 조직의 형태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1905년,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시기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이 첨예화되었다. 이제는 노동계급의 생활조건 방어만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인류 자체의 파멸을 초래할 제국주의 전쟁이나? 아니면 세계 노동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을 통한 코뮌리즘 건설이나?’라는 역사적 선택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때 자본주의 체제 내의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노동자 권력을 향한 혁명 투쟁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노동조합은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했고, 자본주의가 위협받는 매우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 해왔기 때문이다. 대신에 노동계급은 1905년과 1917년 러시아에서 새로운 단일조직을 창조했다.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한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의한 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질서의 전복을 위한 조직으로써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상승기에서 쇠퇴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단일조직도 변화했다.

## 2) 노동계급의 정치(혁명)조직

노동자들의 단일조직과 마찬가지로 정치조직의 역할과 형태도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했다. 19세기 초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최초의 계급투쟁에서 나타난 이론가들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가 조직한 운동에 개입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유토피아적 성격과 계급투쟁의 상황 때문에 좌초되고 말았다.

“봉건 사회가 전복되어 가던 전반적 소요의 시대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 계급적 이해관계를 직접 관철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트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의 물질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른바 사회주의와 코뮌리스트 체제, 즉 생시몽, 푸리에, 오웬 등의 체제는 앞에서 말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이 발전하지 못한 초기에 출현했다.” (『코뮌리스트 선언』, 맑스, 엥겔스, 1848)

프롤레타리아트와 그들의 가장 의식적인 인자들은 이후 차티스트 운동(참정권 확대 운동)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 유물론을 위한 토대를 세울 수 있었다. 역사 유물론은 탈신비화된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인 만큼 행동과 투쟁 방법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의식의 강화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는 비밀스럽고 음모적인 모임이었던 「의인동맹」을 1847년에 선전과 투쟁을 위한 혁명 조직인 「코뮤니스트동맹」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1년 후, 『코뮤니스트 선언』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주적인 조직과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이 결합하여 노력한 결과, 노동계급은 정치 운동 내에서 투쟁의 경계를 구분했고, 부르주아지의 민주적 조직과 그들의 사상과는 구별되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혁명가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1 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은 설립 시기(1864년)가 임박한 권력 장악을 가져올 '사회혁명'의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최종 목표를 내다보면서도 본질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1 인터내셔널은 시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협동조합과 함께 (정치적) 선전그룹, 교육단체 등 이질적인 요소로 조직되었다.

제2 인터내셔널(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더불어, 시대에 대한 이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 조직과 정치조직 사이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해졌다. 당시의 혁명가들에게 투쟁의 당면 목표는 부르주아지 질서의 결정적 전복이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정치적, 경제적 개량을 위한 투쟁을 통해 최종적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노동자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원의 기준이 그 사회적 출신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동의에 기초한 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이 정치조직은 또한 의회 조직이었다. 결국, 이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대중 정당을 만드는 문제였다.

당시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코뮤니스트혁명을 위한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임무를 강조하고 당이 의회의 임무에 전념할 필요를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제2 인터내셔널에서는 베른스타인과 카우츠키의 '수정주의'가 탄생하고, 노동조합이 이끄는 경제적 활동과 의회 대중정당에 위임된 정치적 활동 사이의 점점 더 날카로운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의 최종 목적의 포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연한 목표로 부르주아 국가의 '정복'을 내세웠지만, 노동계급의 대중 권력 기구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유일한 정치 기구는 당이었다.

이러한 과업을 위해, 특히 개량을 위한 투쟁을 이끌기 위해, 당은 대중적이고, 극도로 규율 잡히고 위계적인 조직이어야 했다. 이렇게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사이 구분과 ‘최소’ 강령과 ‘최대’ 강령 사이의 엄밀한 분리는, 제2 인터내셔널의 이론가들이 이론화시킨 후 계급의식의 발전에 진정한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발상은 코뮤니스트혁명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이 성숙하자마자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늪에 빠지는 길을 촉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특히 러시아와 독일에서 폭발한 혁명 운동은, 부르주아 지배의 결정적 파괴라는 역사적 의제에 마침내 도달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과업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 형태(코뮤니스트당, 노동자평의회)를 창조하면서 ‘최대 강령’을 즉각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초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인 러시아혁명 이후, 제3 인터내셔널(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서도 여전히 당-노동계급-국가 사이 관계의 본질과 당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혼란이 존재했다. 1918년부터 계속 노동계급의 정치권력은 볼셰비키당이 지도하는 국가기구가 제한하고 억압했다. 볼셰비키당은 처음부터 노동자를 대신해서 권력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기관(소비에트)과 같등하게 되고, ‘통치’ 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당의 권력이 소비에트 권력을 대체하는 것은 1920년대 초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일단 당과 국가가 노동계급 전체의 공언된 ‘대표자’가 되고 나자, 그들은 절대 틀릴 수가 없었고, 전체 노동계급에 맞서게 될지라도, 심지어 학살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상 옳았다. 그 순간부터, 사회주의 자체는 당과 국가의 과업이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러시아 국가는 소비에트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는 혁명의 힘을 파괴하고 반(反)혁명으로 빠져들었다.

1920년까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은 모든 경우에서, 즉 혁명과 권력의 실천에서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의 탁월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코뮤니스트도, 어떤 혁명적 조직도, 지역 평의회(이행기 국가의 토대)와 노동자평의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이의 혼란도 존재했다.

이러한 심각한 혼란과 함께, 코민테른은 통일전선의 개념, 대중 정당을 통해 최소 강령을 보호한다는 생각, 노동조합 과업의 필요성, 혁명적 의회주의 입장 등을 발전시켜 갔다. 코민테른은 혁명적 물결의 퇴조에 맞서 코뮤니스트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이러한 후퇴에 전념하고 이러한 실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전술과 원칙 사이의 차이는 제2 인터내셔널의 안에서 그랬던 만큼이나 커졌다. 코민테른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이해를 항상 염두에 두기보다, 더욱 러시아 국가의 대변자가 되었고, 일국 사회주의 이론을 선택했을 때 조종을 올렸다. 코민테른이 옹호한 이러한 테제들은 단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강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지점부터 볼셰비키당은 반(反)혁명의 가장 유순한 도구가 되었다.

## 자본주의 초기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형성-노동계급 초기 조직 (1800-1852)

- ▶노동자 단일(단위)조직 : 노동조합, 노동자협회, 각종 클럽
- ▶노동자 정치(혁명)조직 : 「의인동맹」(1836), 「코뮤니스트동맹」(1847)
- ▶프롤레타리아트 투쟁 :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봉기·폭동
- ▶사상가, 혁명가 : 오웬, 푸리에, 생시몽(공상적 사회주의)  
    맑스·엔겔스(역사 유물론, 과학적 사회주의 태동)

## 자본주의 상승기

제1 인터내셔널 (1864-72)

- ▶단일조직 : 노동조합, 협동조합
- ▶정치조직 : 「국제노동자협회」(노동조합, 협동조합, 선전그룹, 교육단체로 구성)
- ▶노동자 투쟁 : (1857년 대공황 이후) 1860~1862년 파업투쟁, 1871년 파리 코뮌
- ▶사상가, 혁명가 : 프루동(상호부조조합-협동조합 운동), 바쿠닌(국가 파괴-아나키 실현),  
    라살레(임금철폐설), 블랑키(무장봉기), 맑스·엔겔스(맑스주의 발전)

## 자본주의 변영 - 1차대전 전야

제2 인터내셔널 (1889-1914)

- ▶단일조직 : 노동조합(국제조직 형성)
- ▶정치조직 :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사회주의 정당 중심, 노동조합, 협동조합 참여)
- ▶노동자 투쟁 : 1890년 메이데이 투쟁, 1905년 러시아혁명, 반전 투쟁(1907~1912)
- ▶사상가, 혁명가 :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침머발트 좌파 결성)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 독점 자본주의(제국주의) - 반혁명, 공황, 2차대전

제3 인터내셔널 (1919-1928)

- ▶단일조직 :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노동자총연합
- ▶정치조직 : 코뮤니스트당,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볼셰비키화 - 반(反)혁명의 도구)
- ▶노동자 투쟁 : 1917년 러시아혁명, 1918년 독일혁명, 1918년 헝가리 혁명, 노동자평의회 운동
- ▶사상가, 혁명가 :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좌파 분파) 판네크, 호르터, 보르디가

### 3) 코뮤니스트좌파

코뮤니스트좌파는 19세기 말부터 기회주의에 대항해 투쟁해 온 제2 인터내셔널의 좌파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좌파를 형성했는데, 독일의 로자 룩셈부르크, 러시아의 레닌, 네덜란드의 안톤 판네쿱, 이탈리아의 아마데오 보르디가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회주의 세력이 인터내셔널 전역으로 확산하자 자신의 정당 내부에서만 아니라 러시아의 볼셰비키, 네덜란드의 트리분 그룹 등 국제적으로도 조직된 분파로서 활동했다.

1차 세계대전은 사회민주당의 의회주의 우파를 부르주아지 진영으로, 결정적으로 몰아넣었다. 혁명적 물결은 중도주의 평화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에 맞서 싸우도록 했지만, 그들의 다수, 특히 카우츠키 같은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제2 인터내셔널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때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분리된 좌파들이 만든 새로운 당은 '코뮤니스트당' 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혁명적 물결은 고무되었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당, 제3 인터내셔널 건설을 요구했다. 1919년은 전후 혁명 물결이 최고정점에 이르렀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 총회의 입장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가장 진보된 입장을 표현했다. 사회-애국주의적 반역자들과 완전한 단절,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기가 요구하는 대중행동의 방법, 자본주의 국가의 파괴 및 노동자 소비에트의 국제적인 독재. 이러한 강령의 명확성은 혁명 물결의 거대한 기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것은 낡은 제2 인터내셔널 정당 내부 좌파 혁명가들의 정치적, 이론적 노력과 투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다.

이렇게 제국주의 대학살 동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깃발을 홀로 나부끼게 한 것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방어를 위해 다시 모여들게 한 것도, 전쟁 발발 시 수많은 나라에서 발생했던 파업과 봉기를 주도한 것도 모두 좌파 흐름이었다. 또한, 1919년 창설된 새로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핵심을 제공한 것도 좌파 흐름이었다.

하지만 유럽 혁명 물결의 퇴조와 러시아혁명의 고립은 코민테른과 러시아의 소비에트 권력 내부를 변질시켰다. 볼셰비키 당은 프롤레타리아 자기 권력이었던 소비에트가 약해지는 것과 반비례로 성장한 관료적 국가기구와 점점 더 융합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는 대중행동이 감소해 가는 시기에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들이 기회주의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의회와 노동조합 내부 활동의 강조, 동양인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항해 봉기할 것을 호소, 그리고 애국적 민족부르주아와의 통일전선 정책 등이 그것이었다.



이때 코뮤니스트좌파는 제2 인터내셔널 내부의 기회주의자들과 투쟁했듯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내부의 기회주의 흐름에 대항해 저항했다. 코뮤니스트좌파는 의회주의와 낡은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 민족해방에 대한 국제주의 입장, 프롤레타리아 독립성을 훼손하는 통일전선의 거부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맑스주의의 최고 옹호자로서 활동했다. 러시아의 미아스니코프(Miasnikov), 독일-네덜란드의 판네쿵과 호르터, 이탈리아의 보르디가, 영국의 팽크허스트(Sylvia Pankhurst)등 코뮤니스트좌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제적 흐름이었고, 불가리아에서 영국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 2. 코뮤니스트동맹, 제1 인터내셔널

### - 노동계급 최초의 국제조직

#### 1)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 정치조직 「코뮤니스트동맹」

“근대 자본주의가 동틀 무렵인 19세기의 전반부에는 여전히 형성 단계에 있던 노동계급은 지역적이고 고립적인 투쟁을 벌였고, 교조적인 학파, 종파 그리고 동맹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코뮤니스트동맹」은 이 시기의 가장 선진적인 표현이었던 한편, 동시에 그들의 선언문은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예고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당의 본질과 역할’, 「Internationalisme」 38호, 프랑스 코뮤니스트좌파, 1948.10)

자본주의 초기, 노동계급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진 개별적인 계급으로 자각하지만,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전망을 하지 못한 채 처음으로 독립된 행동체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당시 노동계급이 만들어 낸 정치조직은 아주 작고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즉자적인 계급투쟁을 넘어 노동계급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경향의 가장 분명하고 역사적인 표현이 「코뮤니스트동맹」(Communist League)이었다.

#### 가. 코뮤니스트동맹

1847년 6월 2일에서 9일까지 런던에서 '의인 동맹 대회'가 열렸다. 엥겔스는 동맹의 파리 지역 대표로 참석했다. (맑스는 재정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엥겔스는 대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대회는 결국 「코뮤니스트동맹」의 '창립 대회'였다. 이 조직은 최초의 국제 프롤레타리아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맑스와 엥겔스의 반(反)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동맹의 모토는 “모든 인간은 형제다”에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는 단결하라!”로 바뀌었다.

“1847년 여름, 런던에서 첫 번째 동맹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W. 볼프는 브뤼셀을 대표했고 나는 파리 공동체를 대표했다. 이 대회에서 우선 동맹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 이제 동맹은 공동체, 서클, 지도 서클, 중앙위원회, 대회로 구성되었고, 그 후부터 「코뮤니스트동맹」이라고 불렸다.” (엥겔스)

이 규약은 맑스와 엥겔스가 참여하여 작성했고 코뮤니스트동맹 제1차 대회에서 검토했고, 1847년 12월 동맹 제2차 대회에서 승인했다.

「코뮤니스트동맹」 규약 제1조 : “동맹의 목적은 부르주아지 타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 계급 사이의 적대 관계에 기초한 낡은 부르주아 사회의 폐지!, 계급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있다.”

「코뮤니스트동맹」 강령의 초안은 질문과 답변 형식의 교리문답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초안은 엥겔스가 작성했다. 원본 원고는 엥겔스의 손에 있었다.

동맹의 공식 기관지는 1847년 9월 동맹 제1차 대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된 「코뮤니스트 잡지」(Kommunistische Zeitschrift)가 유일했다. 제1차 대회는 런던에 본부를 둔 동맹의 중앙 당국에서 준비했다. 칼 샤퍼(Karl Schapper)가 편집자였다.

「코뮤니스트동맹」 제2차 대회는 1847년 11월 말 런던의 레드 라이온 호텔에서 열렸다. 맑스는 브뤼셀 서클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동맹 회원이자 제2차 대회 대표이기도 한 빅토르 테데스코(Victor Tedesco)와 함께 런던으로 갔다. 엥겔스는 다시 파리 공동체를 대표했다. 샤퍼는 대회 의장으로, 엥겔스는 서기로 선출되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일하고 있었고, 드루리 레인 191번지에 있는 코뮤니스트 노동자 교육협회의 회원이었다. 1847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그곳에서 「코뮤니스트동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대회를 열었다.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브뤼셀에서 이곳에 와서 현대 코뮤니즘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정치 및 노동자 운동에 대한 코뮤니스트들의 태도에 대해 연설했다. 당연히 저녁에 열렸던 회의에는 대표자들만 참석했다... 곧 우리는 오랜 토론 끝에 대회가 만장일치로 맑스와 엥겔스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프리드리히 레스너(Friedrich Lessner))

이 규약은 1847년 12월 8일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마침내 모든 모순과 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본 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맑스와 나는 선언문 작성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엥겔스)

물론 이 선언은 「코뮤니스트 선언」이 되었다.

(「코뮤니스트동맹」, 맑스/엥겔스 아카이브)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7/communist-league/index.html>]

## 나. 1848~1849년 혁명의 실패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7월 왕정(1830년 7월 혁명의 성공으로 루이 필립을 왕으로 세운 부르주아 왕국)을 타도한 것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었다. 1845년부터 1847년까지 흉작이 계속되고 유럽 전체가 전염병에 휩싸였는데, 특히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피해가 극심했다. 1847년에는 공황의 영향으로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연이어 비리 사건과 추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발발한 2월 혁명은 2월 22일부터 2월 25일 사이의 노동자 봉기로 정점에 달했고, 무장한 노동자들은 공화정을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와 공동으로 2월 혁명을 수행한 것처럼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프랑스라는 국민적 틀 안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비극적인 환상이었고, 이 환상은 노동자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충돌로 깨져버린다. ‘노동권’, ‘사회적 공화국’을 주장하는 노동자들과 혁명의 전진을 막으려는 부르주아지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부르주아지는 혁명의 상징적인 성취물인 국영 작업장을 해산했고, 노동자들은 봉기로 대응했다. 6월 노동자 봉기는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벌어진 **최초의 격렬한 무장투쟁이었다**. 6월 봉기는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우세했으나 부르주아지의 선동에 넘어간 농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되어 실패한다. 봉기의 실패 이후 혁명은 퇴보하고, 반(反)혁명 세력이 득세했다. (국영 작업장의 폐지, 모든 형태의 클럽 폐쇄, 공화주의로 기울어진 국민방위대 해산, 노동일 제한 법령 폐지, 사회주의 탄압 등) 그리고 1848년 12월 10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는 1851년 12월 12일 보나파르트 쿠데타와 1852년 제국 선언으로 이어졌다.

1849년 독일에서도 혁명이 패배했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벌어진 혁명 운동도 사그라들었다. 경제는 호황으로 돌아섰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전진하는 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1848~1849년의 혁명 시기, 「코뮤니스트동맹」은 민주주의 운동의 좌익으로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 영향력은 여전히 미약했다. 그래서 맑스가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라인 지방과 그 밖의 독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던 「신라인신문」은 동맹의 기관지는 아니었지만 “민주주의의 기관지”로 제시되었다. 엥겔스가 지적했듯이, “(…) 동맹은 지금은 분쇄되어 버린 대중적인 대중운동에 대항해서는 너무 약한 지렛대임이 증명되었다” (「코뮤니스트동맹의 역사에 관하여」, 엥겔스, 1885년 11월). 이러한 미약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독일 프롤레타리아트 자체가 미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산업 발전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엥겔스는 동맹이 독일에서 중요성을 가진 유일한 혁명조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코뮤니스트동맹」은 작은 비밀조직으로 사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위치도 갖지 않았고, 영향력이 미약했다. 당시 동맹의 규정 성원은 몰락하는 직인이었고, 수적으로도 4백 명 이상의 회원을 규합하지 못했다. 결국, 독일 반(反)혁명의 승리를 확인한 쾰른 코뮤니스트 재판이 있고 난 뒤, 1852년 11월 맑스와 엥겔스는 「코뮤니스트동맹」의 해체 선언을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그 이전 1850년 중반에 이미 맑스와 엥겔스는 **경제회복의 결과 때문에 혁명 물결이 잠잠해지는 썰물의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반동의 시기에 혁명적 소수의 활동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영의 상황에서, 부르주아 사회의 생산력이 부르주아 생산 관계 내부에서 가능한 한 풍부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혁명이란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혁명은 오직 이러한 두 요소 - 근대 생산력과 부르주아 생산양식 - 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 시기에만 가능하다.” (「1848년부터 18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 투쟁」 제4부, 맑스, 1850)

당시 맑스와 엥겔스는 동맹 내에서 혁명 운동의 썰물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봉기를 계속 요구하는 윌리치-샤퍼(Willich-Schapper)와 같은 분리파의 모험주의 행동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로 동맹의 해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동맹의 조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코뮤니스트 선언」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동맹을 해산한다.

「코뮤니스트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미래에 출현하게 될 새로운 당을 향한 가교를 건설할 임무를 띤 어떤 형식적 조직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시기에 맑스와 엥겔스는 이론적 정련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동맹의 많은 전(前) 회원들, 특히 영국에서 망명 중이던 전 회원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심지어 1856년에는 맑스와 샤퍼 사이에 화해가 있기도 했다. 「코뮤니스트동맹」의 중앙위원회 전 회원이었고 영국 노동자 운동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던 에커리우스(Eccarius)는 1864년에 맑스에게 세인트 마틴 홀에서 9월 28일 열린 유명한 회합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국제노동자협회」의 창립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 총회는 에커리우스(Eccarius), 레스터(Lessner), 로허너(Lochner), 판더(Pfaender), 샤퍼(Schapper) 그리고 맑스와 엥겔스와 같이 동맹의 전 회원 상당수를 포함했다.

## 2) 「국제노동자협회」, 제1 인터내셔널의 창립

1848년의 유럽혁명이 실패한 후 반동기가 10년 넘게 지속된다. 그러나 1860년 초가 되자 노동운동이 다시 고양된다.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노동계급도 조직과 투쟁 모두에서 크게 발전한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1857년 공황을 거치면서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1860년에는 런던 노동조합평의회가 결성되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1848년 6월 봉기의 패배 이후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으나 프랑스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1863년 전독일 노동자협회라는 정치단체가 조직되었다. 미국에서도 1863년 이후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발전했다. 최초의 세계공황인 1857년의 대공황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어,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1860~1862년의 강력한 파업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운동의 고양을 배경으로 노동자 국제조직의 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864년 9월 28일, 영국의 노동자들은 프랑스의 대표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국제적 집회를 개최했다. 런던의 세인트 마틴 홀을 가득 채운 이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국제조직을 결성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조직의 규약을 논의할 임시위원회를 선출했다. ‘제1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노동계급 최초의 국제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men’ Association, IWA)가 창립되었다.

맑스는 9월 28일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국제노동자협회」의 임시규약과 창립선언 초안을 작성했다. 「국제노동자협회」에는 다양한 운동 조류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맑스는 이런 정치적 조건 속에서도 「국제노동자협회」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투쟁했다.

### 국제노동자협회 발기문

1864년 10월 21~27일, 칼 맑스 작성

1848~1864년의 기간 동안 노동 대중의 빈곤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이 기간은 공업 및 상업의 진보라는 면에서 보면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1850년에 정보에 매우 밝은 영국 중간 계급의 한 기관지는 예언했다: 만일 영국의 수출입이 50% 정도 증가한다면 영국의 빈궁이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1864년 4월 7일에 재무상 글래드스톤은 영국의 총 수출입이 1863년 443,955,000파운드에 달했다는 보고로 자신의 의회 청중들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1843년도의 영국 무역 총액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놀랄 만한 액수!” 그런데도 그는 ‘가난’에 대하여 용변을 토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생각해 보라, 빈곤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오르지 않은 임금”을, “열이면 아홉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메리카 내전으로 인해 랭카셔와 체셔의 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던져졌을 때, 바로 그 상원은 가장 싸고 가장 손쉬운 형태로 공급되면서도 평균하면,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들을 피하기”에 간신히 족한 탄소와 질소의 최소량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지닌 한 의사를 모든 공업 지대들로 파견했다. (...) 의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평균적으로 볼 때 견직공들, 재봉 여공들, 장갑 제조공들, 양말 제조공들과 그 밖의 노동자들은 해를 거둬낼수록, 실업 상태에 있는 면직 노동자들의 저 곤궁한 할당량도,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들을 간신히 피하기”에 족한 탄소와 질소의 저 양만큼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

1848년 이래 이 모든 나라에서는 전대미문의 공업 발전과 꿈도 못 꿀 수출입 증대가 있었다. 이 모든 나라에서 실로 “부와 힘의 놀랄 만한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계급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이 모든 나라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수 노동계급의 경우에는 실질 임금의 증가, 즉 화폐 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생활 수단의 증가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화폐 임금의 증가가 복지의 실질적 증대를 뜻한 것은 아니었다.

...

1848년의 혁명의 실패 이후 대륙에서는 노동계급의 모든 당 조직 및 당 기관지들이 권력의 철권에 의해 파괴되었고, 노동자들의 가장 선진적<sup>인</sup> 아들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대서양 건너의 공화국으로 피신했으며, 단명한 해방의 꿈은 열광적 산업주의와 도덕적 노쇠와 정치적 반동의 시기 앞에서 녹아 없어졌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페테르부르크 내각과 우호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 내각의 외교적 개입으로 적지 않게 촉진된 대륙 노동계급의 실패는 곧 해협 이쪽에도 그 전염병적인 영향을 퍼뜨렸다. 대륙에서의 노동자 운동의 몰락은, 영국 노동계급을 거세했으며 자신들의 과업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꺾어 버렸지만, 토지 귀족과 화폐 귀족의 이미 다소 동요되었던 확신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미 공식적으로 통고했던 양보들은 고의로 뻔뻔스럽게 철회되었다.

새로운 금 산지의 발견은 곧 뒤이어 엄청난 이민을 불러일으켰으며, 영국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오에는 메워질 수 없는 틈이 생겨났다. 그들의 대표자들 가운데 예전에는 적극적이기 그지없던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순간적인 임금 인상이라는 미

끼에 매수되어 “현실적 처지를 고려”했다. 차티스트 운동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수포가 되었으며 노동계급의 모든 기관지 조직은 대중의 냉담 속에서 하나하나 죽어 갔던바, 사실 영국 노동계급이 정치적 무력 상태와 이토록 타협한 것은 일찍이 본 일이 없다. 영국 노동계급과 대륙 노동계급 사이에 행동의 공유가 없었다면, 오늘날에는 어쨌든 패배의 공유가 있는 셈이다.

...

자본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노동 정치경제학의 훨씬 더 위대한 승리가 닥쳐왔다.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 특히 몇몇 대담한 ‘일손’에 의해 이루어진 협동조합 공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실험의 가치는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논의가 아닌 행위를 통해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또 현대과학의 진보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은 ‘일손’ 계급을 고용하는 주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열매를 맺으려면 노동수단이 노동하는 사람 자신을 지배하는 수단이나 노동하는 사람 자신을 혹사하는 수단으로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노예노동이나 농노노동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 또한 과도적이고 낮은 단계의 사회적 형태일 뿐이며, 자발적인 손과 건전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이 수행되는 연합된 노동 앞에서 사라져 버릴 운명이라는 것. 영국에서는 협동조합 제도의 씨앗이 로버트 오웬에 의해 뿌려졌다; 대륙에서 시도된 노동자들의 실험들은 사실, 1848년에 발명되지는 않았지만, 소리 높이 선포되었던 이론에 매우 근접한 실천적 출구이다.

동시에 1848년에서 1864년까지의 경험은 노동계급의 총명한 지도자들이 1851년과 1852년에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과 관련하여 주장했던 다음과 같은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다. 아무리 원칙상 탁월하고 실천상 유익하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식 노동이 개별 노동자들의 우연적인 노력이라는 협소한 영역에 제한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는 독점의 성장을 억제할 수 없으며, 대중을 해방시킬 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의 빈곤이라는 짐을 눈에 띄게 털어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듯하게 이야기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박애주의적 말꾼들과 싸늘한 몇몇 정치 경제학자들이, 예전에는 자신들이 그 맹아 상태에서 숨통을 끊으려 시도한 바 있고 몽상가의 유토피아라고 비웃은 바 있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이단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바로 그 협동조합 제도에 아침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 대중을 해방시키려면 협동조합 제도는 국민적 규모에서의 발전과 국민적 수단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 귀족들과 자본 귀족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점의 방어와 영구화를 위해 언제나 자신의 정치적 특권들을 이용할 것이다. 노동의 해방을



추진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 길에다 자신의 가능한 모든 걸림돌을 실어 나를 것이다.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따라서 이제 노동계급의 커다란 의무이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동시적인 부흥이 보이고 노동자 정당의 재조직을 위한 동시적인 시도들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의 한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數)이다. 그러나 수는, 결합이 그들을 단결시키고 지식이 그들을 지도할 때에만 무게를 지닌다.** 형제적 유대가 서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을 결합시켜야 하고, 또 해방을 위한 모든 투쟁에서 굳게 함께 있도록 그들을 고무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은, 그러한 유대의 경시가 어떻게 항상 그들의 분산된 시도의 공동 좌절로 징계받는가를 보여 주었다.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1864년 9월 28일에 런던의 세인트 마틴 홀에서 개최된 공개 집회에 모여 「국제협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한 것은 이러한 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 하나의 확신이 저 집회에 혼을 불어넣었다. 노동계급의 해방이 서로 다른 민족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범죄적 목적을 추구하며 민족적 편견에 의해 움직이며 약탈 전쟁에서 인민의 피와 재산을 탕진하는 따위의 대외 정책으로 어찌 저 위대한 과업이 이루어지겠는가? 노예제도의 영구화와 선전을 위한 대서양 저편의 십자군 원정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한 것은 지배계급의 슬기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적 어리석음에 대한 영국 노동계급의 영웅적 항거였다. 유럽의 상류계급이 러시아에 의한 영웅적 폴란드의 암살과 카프카즈 산악 요새들의 노획을 뻔뻔스러운 동조, 위선적인 동정, 또는 천치 같은 무관심으로 방관하였다는 것; 머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고 손은 유럽의 모든 내각에 있는 이 야만적인 강국이 저항도 받지 않고 엄청난 침해를 행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노동계급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르쳐 주었다. 국제 정치의 비밀에 정통할 것, 각각의 자국 정부의 외교 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지할 것; 만약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힘을 합하여 동시에 탄핵하고, 사인(私人)들의 관계를 규제해야 할 도덕과 정의의 단순한 법칙을 민족 사이 교류의 지고의 법칙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할 것.

이와 같은 대외 정책을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일반적 투쟁에 포함된다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국제노동자협회」 발기문, 맑스/엔겔스 아카이브)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4/10/27.html>]



## 국제노동자협회 임시규약

1864년 10월 21~27일, 칼 맑스 작성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 및 의무와 모든 계급 지배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 원천들의 독점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의 근저에 놓여있다—모든 사회적 빈곤, 정신적 피폐, 정치적 종속의 근저에 놓여있다.

노동계급의 경제적 해방은 따라서 모든 정치 운동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종속되어야 할 위대한 목적이다.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지금까지 각국의 다양한 노동 부문 사이의 연대 부족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들의 노동계급 사이의 형제적 유대의 부재로 실패해 왔다.

노동의 해방은 국지적이거나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것이며 그 해결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

유럽의 가장 산업화한 나라에서 노동계급의 현재 부흥은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편, 과거의 오류에 다시 빠져드는 것<sup>과</sup> 관련하여 엄숙히 경고하고 있으며,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한 운동의 즉각적인 결합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1864년 9월 28일에 런던의 세인트 마틴 홀에서 개최된 공개 집회의 결의로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의 아래 서명 위원들은 「국제노동자협회」를 창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우리는, 이 「국제협회」와 그것에 가맹한 모든 단체 및 회원이 진리와 정의와 도덕을 인종이나 신앙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에 대한,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도, 인간과 시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으며, 권리 없이는 의무도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국제협회」의 임시규약을 작성했다.

1. 본 협회는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노동자 결사 사이의 연락과 협력을 매개하는 중앙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노동계급의 보호와 진보와 완전한 해방.
2. 결사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국제노동자협회」.
3. 1865년에 벨기에에서 일반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국제협회」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 결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대회는 노동계급의 공통된 열망을 유럽에 공표해야 하며, 「국제협회」의 최종 규약을 결정해야 하며, 협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들을 심의해야 하며, 나아가 협회의 중앙 평의회를 임명해야 한다. 일반 대회는 해마다 한 번 소집된다. (이하 생략)

(「국제노동자협회」 임시규약, 맑스/엔겔스 아카이브)

[<https://www.marxists.org/history/international/iwma/documents/1864/rules.html>]

## 가. 제1 인터내셔널의 조직

제1 인터내셔널의 시대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대중적으로 형성되기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노동계급이 소부르주아계급의 영향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던 시기이자,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조직 형태를 실험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최고의 표현은 파업하는 동안 파업 파괴자들에 저항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노동자들이 설립한 「국제노동자협회」이다. 제1 인터내셔널은 최초의 노동자 국제조직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1870년대 중반 아나키스트와의 내부 투쟁, 유럽 지배계급의 탄압 등의 이유로 결국 해산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정신은 살아남았다. 제1 인터내셔널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은 소그룹의 헌신적인 혁명가들이 (인민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점이다. 블랑키와 바쿠닌과 같은 인물과 그룹이 갖고 있던 이러한 시각에 반대해 제1 인터내셔널은 1864년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제1 인터내셔널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유럽 주요 나라에서 사회적 정치적 투쟁의 무대 위에 효과적으로 등장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것은 노동계급의 모든 조직화한 역량, 계급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함께 결집했다. 제1 인터내셔널은 경제, 교육, 정치 그리고 이론적인 노동자 투쟁의 모든 흐름과 모든 우발적 측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모이게 했다. 그것은 모든 다양성 속에서 노동계급 단일조직의 최고점이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당의 본질과 역할, 「Internationalisme」 38호, 프랑스 코무니스트좌파, 1948년 10월)

비밀조직이었던 「코뮤니스트동맹」은 여전히 종파의 시기에 활동했지만, 「국제노동자협회」의 임무는 이러한 종파를 넘어서서 유럽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결집과 그들의 의식에 내재한 수많은 혼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제1 인터내셔널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을 바꾸고 통일시키며, 동시에 행동과 조직 형태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인터내셔널의 구조는 매우 유연했다. 가입 형식은 인터내셔널에 대중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가입을 바탕으로 한 체계와 단체 가입 방식이 채택되었다.

영국에서는 1867년 약 5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30개 이상의 노조가 인터내셔널에 가입했고, 1868년 추가로 10개의 노조가 가입했다.

**프랑스**에서는 인터내셔널이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1864년 12월 약 30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지부가 결성되었고, 1870년 파리에는 25개 지부가 활동했다.

**스위스**에서는 1868년 이후 주로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는데, 이 노조들은 바로 공개적으로 인터내셔널의 직업별 지부를 구성했고, 1869년 제네바에 23개, 바젤에 11개, 로잔에 8개, 취리히에 5개 지부가 존재했다.

**독일**에서는 1865년에서 1866년 사이에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하여 맑스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코뮤니스트동맹」 옛 회원들의 영향 아래 인터내셔널 지부들이 결성된다. 지부에는 독일 노동자협회연맹과 전(全)독일 노동자협회 회원들도 가입했다. 독일의 인터내셔널 지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창립 준비에 큰 역할을 한다.

**벨기에**에서는 1865년 7월 최초의 인터내셔널 지부가 브뤼셀에서 결성되었는데, 1867년 4월에는 지부들이 중심이 되어 벨기에연합을 창설한다. 1870년에 벨기에연합은 최대 연합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지부와 관련 단체는 수만 명을 포괄했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인터내셔널에 공식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전국노동연맹'은 애초부터 총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다. 1867년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노동연맹 제2차 대회는 「국제노동자협회」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860년대 말 총회와 유지해 온 접촉이 점점 약화하면서, 미국 노조운동은 국내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

이 밖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1860년대 후반 노조운동이 고양되었는데, 당시의 노조운동은 인터내셔널 활동의 영향을 받아 결성되고 발전했다. 특히 인터내셔널에는 노동조합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 존재했던 교육단체와 협동조합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제1 인터내셔널은 이질적인 구성(노동조합, 협동조합, 선전그룹, 교육단체 등)으로 인해 제2 인터내셔널의 당이 가졌던 근대적인 의미의 당은 아니었다.

## 나. 제1 인터내셔널의 활동

### • 제네바 대회 (1866년)

창립선언문 정식 채택 및 규약 승인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협동조합 문제에 관한 노동계급의 기본 방침 결정

당면한 정치적 투쟁 목표로서 8시간 노동제 요구

상비군 폐지와 민중의 일반적 무장으로의 대체 결의 채택

### • 로잔느 대회 (1867년)

파리 청동공 파업에 1,000파운드 이상의 파업기금 전달

정치적 자유에 대한 결의 : 1. 노동자의 사회적 해방은 노동자의 정치적 해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2. 정치적 자유의 확립은 그 준비 단계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 브뤼셀 대회 (1868년)

전쟁 반대 결의 :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전쟁을 반동적인 전쟁으로 규정, 어느 쪽도 노동자의 지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

철도뿐만 아니라 경작지, 산림, 운하, 도로, 전신 등을 포함하여 국유화 요구 결의 채택

## 다. 파리 코뮌

〈1871년 3월 18일〉 프롤레타리아트 봉기. 새벽 정부군의 한 사단이 몽마르트에 진입. 정부군이 대포를 끌고 가고 있을 때 빵을 사려고 일찍 일어나 줄을 서고 있던 부인들이 경보를 울림. 국민방위대원들 몰려나옴. 정부군 동요, 발포 거부, 장교들이 동요하여 군대를 서둘러 철수시킴. 군대의 일부 시위대열에 합류. 오후 4시경, 군과 민중이 친교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란 티에르는 모든 부대의 철수를 명령하고, 정부 기관들의 베르사이유로 철수 명령.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는 무장 민중에 의해 지지받았고, 시청에서 회의를 개최.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는 즉각, 계엄의 종식을 선언하고, 야전 군사 법정을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의 사면을 발표함. 3월 28일 선거 결정. 며칠 사이 주요 결의 통과 (경찰과 상비군의 해체, 적은 금액에 전당 잡힌 물건들의 무상 반환, 약속어음과 임차료의 지불 연기, 공무원들의 봉급 인하, 빈곤가족에 대한 수당).

〈3월 26일〉 코뮌 선거: 상당한 부분의 부유한 주민들이 계엄이 풀리자마자 지방을 향해 수도를 떠났고, 부르주아지가 선거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코뮌의 거의 모든 의원은 노동자 대중의 대표자였음. 부르주아지에 의해 선출된 의원 당선자들의 소규모 그룹이 등원을 거부한 이후, 코뮌의 구성은 25명의 노동자, 비슷한 숫자의 장인들과 하급 사무 고용인들, 그리고 비슷한 수의 자유업의 성원들로 이루어졌음.

〈3월 29일〉 코뮌 의회는 10개 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이 분담함.

〈4월 2일〉 베르사이유 측 뇌이이 다리에 있던 국민방위대 초소들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내전을 유발함. 이전에 티에르는 파리에서 철수시킨 정규군을 사상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지방에서 징집한 6만을 베르사이유로 집결시킴. 그리고 비스마르크와 교섭하여 독일의 포로로 있던 군 40만을 귀환시켜 파리 탈환 작전을 계획.

〈4월 3일〉 파리는 베르사이유에 반격전 감행. 그러나 참패.

〈5월 1일〉 공공안전위원회 설치.

〈5월 21일〉 베르사이유군 생 끌르문을 통과하여 옆의 성채를 점령.

〈5월 22일〉 베르사이유군, 오프이유문, 빠시문, 세브르문, 베르사이유문을 장악하고 에프왈르 광장에 포대를 배치. 파리지 서부 베르사이유군에 의해 점령됨.

〈5월 23일〉 오페라좌, 몽마르트 언덕 점령됨.

〈5월 24일〉 코뮌 의원들 시청 포기.

〈5월 25일〉 센강 좌안의 최후 거점을 지키던 한 분견대가 바스티유로 퇴각.

〈5월 26일〉 루이 외젠느 바를랭이 지휘한 저항은 바스티유와 라 빌레뜨를 중심으로 집중됨.

〈5월 27일〉 코뮌아르들 라세즈 묘지에서 저항.

〈5월 28일〉 마지막 바리케이드 붕괴

### 〈파리 코뮌에 관한 맑스의 평가〉

“코뮌 최초의 정부 명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코뮌은 파리 각구에서 보통선거로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책임을 진다. 언제나 해임할 수 있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동자이거나 노동계급의 공인 받는 대표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까지 국가 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그 모든 정치적 속성을 즉시 벗어던지고, 책임을 진다. 언제라도 해임할 수 있는 코뮌의 도구로 변화된다”

“다른 모든 행정 부문의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코뮌은 의회식의 기관이 아니며 동시에 집행하고 입법하는 행동적 기관이어야 한다.”

“코뮌 의원과 그 이하의 공무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맑스, 「프랑스 내전」)

### 3) 제1 인터내셔널의 분열

#### 가. 바쿠닌과 맑스

**바쿠닌**은 1814년 러시아 귀족의 자유주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러시아군에서 잠시 복무했지만, 탈영하여 1836년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주했다. 그는 피히테(Fichte)와 헤겔의 사상에 끌렸고, 알렉산드르 헤르젠(Alexander Herzen)과 니콜라이 오가레프(Nikolay Ogarev)와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둘 다 그의 생애 후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40년 그는 독일 철학의 본고장인 베를린으로 이주했다.

**맑스**는 1818년 자유주의적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835년 그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본으로 갔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1836년에 그를 베를린 대학교로 전학시켰다. 맑스 또한, 헤겔의 사상을 알게 되었고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와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흐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유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산업화는 낡은 사회 구조를 뿌리째 뒤집어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사상을 낳았다. 러시아의 1825년 12월 봉기, 프랑스와 벨기에의 1830년 혁명, 폴란드의 1831년 봉기, 프랑스의 실크 노동자 봉기, 영국의 인민헌장(차티스트) 운동 등의 사건이 배경이 되어 **두 젊은이는 철학의 영역에서 점차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1844년 파리에서 바쿠닌과 맑스는 마침내 만났다. 맑스는 새로운 동지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 관념주의와 종교와 정치적으로 분명히 결별하고 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반면 바쿠닌의 정치는 범슬라브주의(슬라브 민족이 광대한 민주 연방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관념주의와 종교적 개념에 발목이 잡혔다. 바쿠닌이 슬라브인들에게 호소했던 해에 맑스와 엥겔스는 「코뮤니스트 선언」을 발표했다.

**1848년 혁명의 발발은 두 혁명가가 유럽 전역의 투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다.** 바쿠닌은 파리, 프라하, 드레스덴에서 활동했고, 맑스는 브뤼셀, 파리, 쾰른에서 활동했다. 이때 맑스는 바쿠닌이 러시아 스파이라는 소문을 다른 두 명의 특파원으로부터 받아 그 소식을 노이에 라이니슈 차이퉁(Neue Rheinische Zeitung)에 실었다.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맑스는 이를 해명했고, 범슬라브주의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바쿠닌을 옹호했다. 그런데도 바쿠닌에 대한 그러한 근거 없는 비난은 훗날 그의 정적이 악용했다.



반(反)혁명이 일어났을 때 맑스와 바쿠닌은 추방되고 체포당하는 경험을 했다. 바쿠닌은 12년을 감옥과 나라를 옮겨 다니며 구타와 고문을 견뎠고, 여러 차례 사형 선고를 감형받았고, 결국 추방당했다. 1861년이 되어서야 그는 시베리아에서 탈출하여 다시 서유럽으로 돌아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맑스는 1849년 런던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정치경제학 비판에 전념했다.

한편, 런던에서는 폴란드 봉기와 미국 남북전쟁이 1864년 제1 인터내셔널 창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바쿠닌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맑스는 '16년 만에' 런던에서 잠시 만났다.

바쿠닌이 이탈리아로 이주한 후 몇 달 동안, 두 혁명가는 우호적인 내용으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제1 인터내셔널과 「자본」의 초안 문서를 교환했다. 제1 인터내셔널 내에서 맑스 영향력은 커졌고, 이탈리아에서 바쿠닌은 정치적 기권주의, 반(反)국가주의, 연방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교리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혁명적 사회주의, 집단주의, 아나키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그는 처음에 급진적인 추종자들 사이에서 지지자들을 찾았고, 결국 「국제혁명협회」라는 비밀조직을 설립했다. 1867년 그와 추종자 중 일부는 스위스로 떠났고, 그곳에서 제2 프랑스 제국과 프로시아 왕국 간의 적대 고조 행위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평화주의 조직인 새로 설립된 「평화와 자유 연맹」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제1 인터내셔널도 몇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그들을 파견한 것은 맑스의 말을 지적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노동계급 연합은 궁극적으로 국제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제1 인터내셔널」은 그 자체로 평화 대회였다. 만약 제네바 평화 대회의 주창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제1 인터내셔널」에 가입해야 했다.” (맑스, 「평화와 자유 연맹」 대회에 대한 「국제노동자협회」의 태도에 관하여, 1867년)

바쿠닌은 연맹의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었지만, 연맹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의 시도는 헛수고였다. 연맹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격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몇 명의 지지자를 얻었고, 1868년 베른 대회 이후 연맹을 떠났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 국제동맹」을 설립했고, 그들은 제1 인터내셔널의 지부라고 선언했다.

이제 두 혁명가가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제1 인터내셔널은 '내부와 외부에서 활동하는 제2의 국제기구의 존재'를 허용할 수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동맹의 강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계급의 사회적 평등'을 요구했을 뿐, 계급의 폐지는 요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동맹은 스스로 해산하고 회원들을 인터내셔

넬의 지역 지부에 가입시키라는 요청을 받았다. 1869년 7월 바쿠닌과 그의 지지자들은 마침내 제1 인터내셔널에 가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동맹은 인터내셔널 내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을 유지했다.

이렇게 바쿠닌이 처음으로 제1 인터내셔널에 가입하려 했던 방식은 맑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바쿠닌과 1869년 스위스에 나타난 러시아의 혁명적 테러 옹호자 세르게이 네차예프(Sergey Nechayev)와의 잘못된 관계는 그것을 단지 확인해 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 맑스와 바쿠닌은 농민 사이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프루동주의자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잠시 힘을 합쳤다.

## 나. 제1 인터내셔널의 분열

제1 인터내셔널은 항상 당시 노동계급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정치적 경향의 불안한 연합이었다. 그중에는 프루동, 블랑키, 라살레, 맑스 그리고 이후에 바쿠닌의 추종자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맑스와 엥겔스는 인터내셔널 내에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적 명확성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 제네바 대회(1866년 9월)에서 독일과 벨기에 대표단의 소수만이 코뮤니스트 사상을 옹호했다. 로잔느 대회(1867년 9월)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커졌고, 브뤼셀 대회(1868년 9월)에서 그들은 마침내 광산, 탄광, 운하, 철도 등이 공유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프루동주의자들은 여전히 토지의 사회화에 저항했다. 이 문제는 바젤 대회(1869년 9월)에서 집단주의 입장을 옹호한 바쿠닌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해결되었다.

이제 파업과 노동조합 설립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도 이루어졌다. 더 놀라운 것은 바쿠닌이 총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인터내셔널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조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도 지지했다는 점이다. 맑스주의자들과 바쿠닌주의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상속권 문제였다. 바쿠닌에게 상속권 폐지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전제 조건인 동맹에 대한 그의 강령의 핵심을 형성했다. 맑스에게 상속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생산수단에서 사유재산을 폐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였고, 이는 이미 인터내셔널이 승인한 사안이었다. 두 입장 모두 명확한 과반수를 얻지 못했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맑스와 바쿠닌 모두 바젤 회의의 전반적인 결과에 비교적 만족했지만, 불화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 시기는 제1 인터내셔널의 전성기였다. 유럽에서는 리본 직공, 비단 염색공, 스위스의 건설 노동조합과 조판공 파업, 벨기에의 웅덩이 노동자와 광부 파업, 프랑스의 면직물 노동자와

광부 파업, 웨일스의 광부 파업 등 계급투쟁이 진전되고 있었다. 새로운 지지자들이 이 대의에 동참했다. 1870년 리옹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봉기가 시도되었는데, 바쿠닌이 직접 개입한 바 있다.

1871년, 이러한 불만의 물결은 프랑스 제2 제국과 프로이센 왕국 사이의 오랜 전쟁의 여파로 발발한 혁명적 봉기인 「파리 코뮌」에서 마침내 절정에 달했다. 인터내셔널은 파리에서 미미한 영향력만 행사했지만, 단명했던 「코뮌」에 대한 맑스의 보도는 가장 잘 알려진 공적 변호가 되었다. 부르주아들의 눈에 「파리 코뮌」은 제1 인터내셔널과 동의어가 되었고, 그 구성원들은 탄압을 견뎌냈다. 마르크스와 바쿠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파리 코뮌을 자신들의 강령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 사이 두 혁명가 사이의 관계는 인터내셔널 자체의 분열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1869년 말, 바쿠닌이 러시아 스파이라는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 비난은 지기스문트 보르크하임(Sigismund Borkheim)이 다시 제기했고,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반복했다. 바쿠닌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바젤대회 명에 재판에서 깨끗이 지워졌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모세스 헤스(Moses Hess)는 1869년 10월 바쿠닌이 인터내셔널을 약화하고 총회를 런던에서 제네바로 옮기려 한다고 주장하는 공격 기사를 발표했다. 바쿠닌은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는 ‘독일 유대인’에 대한 반(反)유대주의적 폭언으로 대응했다. 바쿠닌은 존경심과 전술적 고려로 맑스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 모든 공격의 배후 인물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복수심이 아니라 맑스가 “국가 코뮌리즘”을 지지했다는 혐의 때문에 조만간 맑스와의 싸움에 나설 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마침내, 바쿠닌과 네차예프(Nechayev)의 관계가 1870년 7월에 밝혀졌다. 네차예프는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러시아 전역에 존재했던 비밀 혁명 그룹의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다른 혁명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그의 전(前) 동지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네차예프는 또한 바쿠닌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본』 러시아어 번역 작업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다(바쿠닌은 이미 출판사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상태였다). 음모를 좋아하는 바쿠닌은 속임수의 규모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마침내 네차예프와 거리를 두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1871년 9월 제1 인터내셔널 런던 대회가 열리기 전 화해 시도가 있었다. 총회에 비판적이었던 로빈(Robin)이 총회에 입회했고, 「제네바 동맹」은 바쿠닌과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해산을 선언했다. 이 대회에서 맑스는 연설을 통해 1869년 동맹이 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해산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동맹이 제1 인터내셔널 내에 비밀조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바쿠닌주의자들은 런던 회의를 모욕으로 간주했고, 인터내셔널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었다. 바쿠닌의 측근인 기욤(Guillaume)은 인터내셔널의 모든 연맹에 회람을 보내 가능한 한 빨리 대회를 열 것을 촉구했고, 총회의 권위주의를 비난했다. 벨기에서는 총회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스페인에서는 맑스 사위인 파울 라파르그(Paul Lafargue)를 중심으로 한 맑스주의자들이 「마드리드 연맹」에서 추방당했다. 총회는 맑스가 작성한 「인터내셔널의 허구적 분열」이라는 팸플릿으로 이러한 '내부 다툼'에 대응했다. 1872년 8월, 에리코 말라테스타(Erriico Malatesta)와 카를로 카피에로(Carlo Cafiero) 같은 바쿠닌 추종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지부는 총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대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제 헤이그 대회에서 맑스주의자와 바쿠닌주의자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헤이그 대회는 1872년 9월에 열렸다. 처음 3일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위임 사항을 논의했으며, 넷째 날은 「파리 코뮌」 이후 국제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총회의 보고서 낭독으로 문을 열었다. 65여 명의 대표단은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그중에는 처음으로 맑스와 엥겔스도 있었다. 바쿠닌은 불참했지만, 기욤이 바쿠닌주의자들을 대표했다. 이후 토론은 인터내셔널에서 총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총회의 권한에 관한 맑스의 동의안이 다섯째 날에 통과되었다. **총회에서 총회 장소를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기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엥겔스의 제안은 바쿠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조합주의자들과 프랑스 블랑키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정치적 행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대회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까지 계속되었다. 프랑스 블랑키주의자 중 한 명인 에두아르 바양(Édouard Vaillant)은 '정치권력 정복'을 위한 동의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통과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총회 장소를 뉴욕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에 분노한 프랑스 블랑키주의자들이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가 인터내셔널이 “붕괴했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시어도어 쿠노(Theodore Cuno)는 동맹에 대한 조사를 맡은 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낭독했다. 이 보고서는 바쿠닌과 그의 추종자들이 '인터내셔널의 규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규약'을 가진 비밀 그룹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스위스 ана키스트 아데마르 슈비츠게벨(Adhémar Schwitzguébel)의 제명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자기변호를 거부한 기욤은 바쿠닌과 함께 제명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대회는 추악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동맹을 조사하던 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나중에 보나파르트주의 스파이로 밝혀졌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바쿠닌에 대한 소송을 강화하기 위해 절도 및 협박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는 바쿠닌이 『자본』 번역 선금을 받았지만, 프로젝트를 완수하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바쿠닌도 모르게 출판사를 폭력으로 협박한 것은 사실 네차예프였다.

이렇게 헤이그 대회가 격렬한 싸움으로 끝난 후, 바쿠닌은 다수결로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노동자 운동의 적색과 흑색 경향은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

맑스와 바쿠닌을 갈라놓은 원인을 돌아해보면 원망, 오해, 편견, 그리고 추종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 조직적, 정치적 차이가 존재했다.

- 맑스는 노동계급의 모든 경제적 투쟁을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보았고, 유일한 문제는 어떤 사상이 지배할 것인가였다. 따라서 그는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러한 정당은 이용 가능한 정치적 자유, 선거, 집회 및 결사의 권리, 언론의 자유를 활용하고, 당은 사회주의 강령을 선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다가올 전투에 대한 훈련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바쿠닌은 노동계급이 무의식적으로나마 물질적 조건에 의해 이미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았고, 정치를 대중을 지배하는 기술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기권을 촉구했다. 대신 모든 노동자가 부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단일한 일반 연합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조직 내에서 소수를 형성하고 비밀리에라도 사회주의 강령을 선전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맑스가 '국가주의자'이고 바쿠닌이 '반(反)국가주의자'라는 주장은 맑스주의와 ана키즘 사이에 현대적 분열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맑스는 바쿠닌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모든 사회주의자는 ана키 상태를 다음과 같은 강령으로 본다. 일단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목표, 즉 계급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대다수 생산자를 극소수의 착취자에게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가 권력은 사라지고, 정부의 기능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된다." (맑스와 엥겔스, 「인터내셔널의 허구적 분열」, 1872)

실제로 바쿠닌의 많은 공격은 맑스가 아니라 독일 사회민주주의 내부의 요소를 겨냥한 것이었다. 돌아켜 보면, 맑스는 바쿠닌이 자신을 '국가 코뮤니스트들'로 몰아붙인 이들과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대부분 사후에야 출판된 개인 서한과 문서에 국한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바쿠닌이 접할 수 없었다.

바쿠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 이는 맑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두 가지 점은 바쿠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해가 비스마르크는 물론 라살레의 '인민 국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 맑스와 엥겔스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모든 계급을 폐지하는 것으로 전환을 의미했다**. 그들은 1848년 혁명의 경험을 통해 이미 낡은 국가 체제의 해체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실현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지는 않았다. 맑스와 엥겔스가 노동자 정부 수립, 정치권력 획득,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마침내 발견된 정치 형태”인 파리 코뮌뿐이었다.

- 동시에 맑스와 엥겔스는 블랑키스트의 입장인 “혁명을 이룩한 소수의 독재와 이전에 한 명 또는 몇몇 개인의 독재 아래 조직된 소수”의 독재와는 달리, 그들이 주장한 **전체 혁명 계급의 독재**를 구별했다.

(‘150년 후: 제1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2022년 6월)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9-02/150-years-on-the-split-in-the-first-international>]

## 다. 헤이그 대회 이후

1872년 헤이그 대회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국제노동자협회 총회를 바쿠닌주의, 노동조합주의, 블랑키스트 등의 영향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장소를 뉴욕으로 옮기는 결정을 지지했다. 당시 파리 코뮌의 분쇄로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한 패배를 경험했던 맑스는 제1 인터내셔널이 계급투쟁의 발전과 함께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반면에 바쿠닌은 제1 인터내셔널이 미래 사회의 싹으로 보았다. 따라서 총회를 유럽 밖으로 옮긴 의도는 「국제노동자협회」가 해산 이전 단계인 잠복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고, 제1 인터내셔널의 해체는 결국 1876년 7월의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 대회의 안건은 인터내셔널의 해산 결의였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국제대회는 「국제노동자협회」 총회를 폐지했다. 협회의 외적 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내셔널은 죽었다.'—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지는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리고 비웃음과 기쁨으로, 본 대회 의사록이야말로 세계 노동운동의 패배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제멋대로 외치는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럽의 현재 정치 정세로부터 생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내셔널 조직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인터내셔널의 원칙이 문명 세계 전체의 진보적 노동자에 의해 인정되고 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 노동자들에게 각자의 나라에서 운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잠시의 시간을 주려 한다. 여러분은 확실히 여러분과 세계 여러 나라 노동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인터내셔널의 원칙을 진심으로,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여왔다. 비록 조직은 없어도 여러분은 이 원칙의 신봉자들을 늘리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미국 동지는 여러분께 약속한다, 인터내셔널이 이 나라에서 완수한 업적을 충실히 지키고 보호·발전시킬 것임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생겨 모든 나라의 노동자가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높이 다음과 같은 외침을 울려 퍼지게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1 인터내셔널은 항상 정치적 경향의 불안한 연합이었다. 이론적으로, 맑스, 바쿠닌과 그 추종자들이 프루동주의자, 블랑키주의자, 라살레주의자 등의 혼합물 옆에서 공존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분열되었든, 아니든, 제1 인터내셔널의 시대는 지나갔고, 「파리 코뮌」의 패배로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조건이 미성숙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계급 운동이 코뮌 이후의 탄압으로부터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러나 회복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1870년대에 시작된, 이른바 제2차 산업혁명은 세계 노동계급의 성장을 가속화 했다. 이 시기는 대대적인 자본주의 확장의 시기로 특히, 독일이 산업 열강의 하나로 출현한다. 20세기 초 독일은 영국을 추월하게 되고, 노동운동의 중심도 프랑스에서 독일로 옮겨갔다. 자본주의 대도시에서는 '바리케이드' 시대가 끝나고 '대대적 파업'의 시대가 시작된다.

## ● 연 표 ●

- 1811년 :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 (조선) 평안도 농민봉기(홍경래의 난) : 1811년
- 1831년, 1934년 : 리옹 견직공 봉기 ..... (조선) 현종 등극 : 1834년
- 1836년 : 「의인동맹」 설립
- 1847년 : 「코뮤니스트동맹」 설립
- 1848년 : 「코뮤니스트 선언」 발표 (맑스·엔겔스) ..... (조선) 철종 등극 : 1849년
- 1864년 : 「국제노동자협회」, 설립 (제1 인터내셔널) ..... (조선) 고종 등극 : 1864년
- (조선) 진주 농민봉기 : 1862년
- 1867년 : 「자본」 1권 출간 (맑스)
- 1871년 3월~5월 : 「파리 코뮌」 ..... (조선) 신미양요 : 1871년
- 1872년 : 「국제노동자협회」 헤이그 대회 (분열)
- 1876년 : 「국제노동자협회」 필라델피아 대회 (해산) ..... (조선) 강화도 조약 체결 : 1876년
- 1883년 3월 : 칼 맑스 사망 ..... (조선) 임오군란 : 1883년
- (조선) 동학 농민봉기 : 1894년

☞ 「인터내셔널」의 가사는 1871년 외젠 포티에(Eugène Pottier)가 파리 코뮌 당시 작성했는데, 그는 제1 인터내셔널 회원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의 운율로 불렸고, 1888년 피에르 드 가이터(Pierre De Geyter)가 지금의 곡에 가사를 실었다.

☞ 1~3 인터내셔널은 모두 타락과 파산의 과정을 겪었다. 공식적인 해산은 다음과 같다.

제1 인터내셔널(1876년), 제2 인터내셔널(1916년), 제3 인터내셔널(1943년)





### 3. 제2 인터내셔널

#### - 사민주의의 배신과 ‘좌파분파’의 출현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자본주의는 크게 성장하면서 **확장의 시기**로 접어든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착취 형태가 생기고 경제 및 정치적인 억압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확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 프롤레타리아 정당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 19세기 말 25년 동안 노동계급의 대규모 행동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생겨나게 했다.

제1 인터내셔널은 1871년의 파리 코뮌의 패배와 이에 뒤이은 반동의 물결에 따라 사라졌다. 「코뮤니스트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미래의 새로운 당을 향한 가고 구실을 할 어떤 형식적 조직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노동자협회」가 사라졌을 때, **제2 인터내셔널 창립의 기원이 될 조직이 남아 있었는데, 독일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이 그중 하나였다.**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형성과 발전에서 가장 앞섰던 곳은 독일이었다. 1875년 고타 대회에서 아우구스트 베벨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주도한 「독일사회민주노동자당」과 라살레가 만든 「전(全)독일노동자연합」이 통합해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이 창립되었다. 이 당은 강령과 이론적인 면에서 심각한 결점을 안고 탄생했으나, 활발한 활동으로 1877년 1월 제국 의회(라이히슈타크) 선거에서 50만여 표를 얻으며, 13개 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1871년 독일 통일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라 여긴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비스마르크는 당이 창립된 지 3년 만인 1878년, 한 아나키스트의 독일 황제 저격 사건을 빌미로 제국 의회에서 반(反)사회주의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의 당 조직은 금지되었고, 간행물은 모두 폐간되었고, 회합과 집회를 여는 것이 금지되었다. 가장 전투적인 성원들은 대도시로부터 추방되었으며, 일부는 투옥되고 많은 수가 생계수단이 없어져 이민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은 발전하고 성장했다. 반(反)사회주의법의 서슬 퍼런 탄압에도, 당은 합법주의를 지향했던 라살레주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혁명 지향의 비합법 조직을 보존하면서도, 음모가적 단체로 퇴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은 당시 유럽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당이었고,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자들도 당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건설되었다. 1870년 네덜란드, 1871년 덴마크, 1872년 보헤미아, 1876년 미국, 1879년 프랑스, 스페인

1880년 영국(당이 아니라 그룹), 1883년 러시아(그룹), 1887년 노르웨이, 1890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1892년 폴란드, 이탈리아, 1894년 불가리아, 헝가리, 칠레. 1896년 아르헨티나 등 19세기 말 30년 동안 근대 자본주의 산업이 세워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건설되어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당들은 창립 초기에는 소수의 당원밖에 없었지만, 노동운동의 성장에 따라 당원 수도 급속히 늘어났다.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은 1875년 고타 대회 당시에 당원이 2만 5천 명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4배 이상 늘었다. 「프랑스노동자당」은 1890년에 당원이 6천 명이었지만, 8년 만에 1만 6천 명으로 늘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사회민주당」도 수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당들이 전체 노동자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당원 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당들의 명성은 노동조합과 다른 대중조직(여성, 청년, 스포츠, 교육 조직 등)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은 반(反)사회주의법이 발효되기 전, 6만에서 17만에 이르는 총부수를 가진 50종의 신문을 발행했는데, 1890년에는 탄압 속에서도 19종의 일간지를 포함해 70종의 신문을 발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을 이끌던 아우구스트 베벨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수백만 인민의 시선을 모으던 의회를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정부와 자본가 정당의 정책을 폭로하는 연단으로 만들었다. 당은 선거에도 성공했는데, 1890년에는 당 후보자들이 1,427,000표로 총투표의 19%를 획득했다. 결국, 1890년 9월 반(反)사회주의법은 12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명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개정하고, 라살레주의가 아닌 맑스주의를 공식적인 지도 사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독일의 성장 경험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확산한다.

제1 인터내셔널은 해산되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 연계는 계속 확장되었다.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가들은 계속해서 접촉했고, 다른 나라 파업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선거운동을 비롯한 캠페인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사회주의신문은 다른 나라의 노동계급 운동에 관한 정보의 전달 범위를 넓혀갔다. 이러한 국제 연대는 활동과 투쟁 경험을 나누고 국제주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노동자 교육을 촉진했다.

세계의 여러 노동운동 조직과 사회주의 단체들에서 군사적 충돌 위협에 대항하고, 식민지 확장에 대항하는 공동 호소 및 공동성명이 점점 더 자주 나왔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가 1880년대 후반 급격히 나빠졌을 때 활발히 활동했다. 그들은 지배계급의 국수주의적 정책을 단호하게 비난했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실행을 옹호했다. 이러한 형태의 연대활동은 노동계급의 국제 단결을 굳건히 하는 움직임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1876년에 해산된 제1 인터내셔널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 연대조직을 빨리 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독일사회민주당」과 「프랑스노동자당」이 앞장섰다.

## 1)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의 창립

### 가. 제2 인터내셔널의 창립

18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노동자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20개국 대표자 39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유럽 대부분 나라를 대표했고, 이외에도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참가했다. 이 조직은 창립 당시에는 정식 명칭이 없었지만, 곧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로 불리게 된다. 제2 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자협회」(제1 인터내셔널)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정당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협동조합도 직접 참여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노동계급 조직이었다. 하지만, 제2 인터내셔널의 창립을 주도한 세력은 맑스주의자들이었다. 이것은 제1 인터내셔널 내부에 존재했던 프루동주의, 블랑키주의, 라살레주의가 크게 약화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국제 노동 입법과 노동 보전에 관한 결의했다.

"노동과 인류의 해방은 국제 규모에서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계급이 자본 소유를 탈취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치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립대회는 이전의 제1차 인터내셔널처럼, 노동계급의 절박한 요구 실현을 위한 투쟁 방침을 세웠고, 동시에 목표까지 내세웠다. 대회는 8시간 노동제의 입법화 요구, 아동노동 금지·연소 노동자와 여성 노동 보호 요구, 야간노동과 유해 작업에 대한 특별 규제 요구, 주휴제의 의무 제정, 임금에 대체하는 현물 지급 금지, 남녀 노동자에 대한 민족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한 없고 완전히 자유로운 단결과 결사의 권리, 공장 감독의 국가 제도 수립 요구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상비군 폐지와 전 국민의 무장을 결의했다. 이런 요구들은 그 뒤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생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제 노동계급 운동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창립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1890년부터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정해 세계 노동계급이 함께 시위 행동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용감하고 비극적인 투쟁을 기념하고 8시간 노동일의 제도화와 노동자 상태의 개선을 위해 국제 차원에서 공동 행동을 실천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 결의는 환호 속에 통과되었고, 실제로 1890년 5월 1일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업 도시의 거리를 메웠다. 그리고 해가 감에 따라 메이데이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통이 되었다. 매년 그날에는 개별공장의 노동자, 가끔은 모든 지역의 노동자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에 연대해 파업을 선언했고, 이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 ◆ 엥겔스의 공헌 ◆

새로운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연합의 조속한 결성에 대한 요청에 따라 「독일사회민주당」은 국제적인 노동자대회를 제안했다. 국제대회 준비에는 「프랑스노동자당」도 참가했다. 그런데 「프랑스사회주의노동자연맹」의 가능주의파(possibilist)도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양대 회의 조직자들은 바스티유 함락 100주년에 파리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두 노동자대회가 같은 시에서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된 것이다.

한쪽은 맑스주의자들이, 다른 쪽은 개량주의자들이 각각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범한 대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연합을 건설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 연합이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을 본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없었다. 「프랑스노동자당」은 느리고 결단력 없이 행동했고, 「독일사회민주당」은 대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엥겔스는 맑스주의자가 주도하는 대회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대회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조직했다. 마침내 **엥겔스와 동료들의 노력은 성공했고, '국제 노동자대회'가 1889년 7월 14일 파리에서 열렸다.** 이는 '국제 사회주의자대회'였다.

## 나. 제2 인터내셔널의 활동

제2 인터내셔널은 초기에 열린 몇 차례 대회에서 노동계급의 일상 요구와 노동자 투쟁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와 관련한 결의를 했다.

· **1891년 브뤼셀 대회**는 세계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 정당의 지배에 반대하는 노력을 결합하고, 노동자가 정치 권리를 갖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 권리를 임금 노예제로부터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93년 취리히 대회**는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권력 장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동계급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결의했다.

· **1896년 런던 대회**는 경제투쟁과 관련하여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강조했다.

제 2인터내셔널은 노동계급의 당면 요구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는데, 브뤼셀 대회와 런던 대회는 노동계급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요한 투쟁 수단의 하나로서 **파업의 의의**를 지적했다. 거기서는 **노동조합과 활동 형태의 문제, 국제 결합의 강화**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취리히 대회는 특별결의로서 노동조합의 전국 연합체를 모든 나라에서 결성하고, 산업별 국제 노동조합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제2 인터내셔널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전술 문제에 대한 광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런던 대회는 노동계급은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투쟁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의회 전술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의했다. 취리히 대회와 런던 대회는 결의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원칙과 독립성**을 파괴할 수 있는 타협은 용인될 수 없으며, 부르주아 정당과는 별개의 노동계급 정책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2 인터내셔널 대회가 처음부터 주요 의제로 삼은 것 가운데 하나는 **반전(反戰) 투쟁**이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여러 나라의 노동계급이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문제였다. 군국주의와 전쟁 위협에 대한 투쟁의 성격을 강조한 것은 브뤼셀 대회였다. 이 무렵 유럽 열강은 이미 두 개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전쟁상태로 돌입하지는 않았다. 대회는 세계 노동자들에게 어떤 목적의 전쟁이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협정에 반대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결의는 반전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제2 인터내셔널은 20세기에 들면서 노동계급의 국제 결합과 공동 행동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국제조직과 결합 체제로 발전했다. 통상 3년마다 열리는 대회에는 노동자조직의 대표 파견이 확대되고 정비되었다.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가국의 수도 늘어났다. 1900년에 열린 파리대회에는 22개국의 대의원이 참가했고, 1904년에 열린 암스테르담 대회에는 미국 대의원 3명과 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대의원을 포함해 25개국 노동자대표가 참가했다.

제2 인터내셔널의 지도적 활동가들은 분명히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아나키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 단체와 사회주의 조직을 결합하려 했다. 그래서 제2 인터내셔널에는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처럼 극히 온건한 단체까지 참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04년에 열린 암스테르담 대회에는 25개국에서 온 대의원이 45개 조직을 대표했다.

당시 국제 노동운동에 참여한 조직 가운데 노동계급의 국제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건주의, 개량주의, 수정주의, 기회주의, 보수주의 경향을 지닌 조직들은 맑스주의자들이 주도한 인터내셔널의 권한 강화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회주의 정당의 통일적 정치 방침 작성에 반대했다.

제1 인터내셔널 시기(1864-72)와 달리 제2 인터내셔널이 창립될 당시 맑스주의는 이미 주도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제1 인터내셔널이 해산된 이후 노동계급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대부분 맑스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서 제2 인터내셔널 시기(1889~1914년)는 맑스주의의 황금기였다. 제2 인터내셔널의 성립과 함께 맑스주의는 대중적 노동운동과 결합했고, 이론 영역에서 현실 영역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아직 이념 형태로만 지니고 있던 맑스주의에 실천적 전술을 결합하면서 완성된 운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국제조직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1890년 국제탄광노동자연맹의 결성을 시작으로 '직업별 국제노동조합서기국'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1903년에는 각국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연락 기관으로 '국제노동조합서기국'이 설립되고, 이것이 1909년에 「국제노동조합연맹」으로 개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제2 인터내셔널의 시기는, 초기부터 소수파로 존재했던 개량주의, 기회주의가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하여 결국에는 제2 인터내셔널 자체가 붕괴하는 데까지 이른 시기이기도 했다. 즉, 인터내셔널 내부에 노동귀족을 중심으로 개량주의, 기회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강화되다가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배신행위로 인터내셔널이 붕괴한 시기이다.



〈사진〉 1904년 제2 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

## 2) 수정주의와 맑스주의 논쟁

### 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 ▶ 수정주의의 배경

1889년 제2 인터내셔널이 창립되었을 때 맑스주의는 이미 다른 조류에 대해서 앞서 있었다. 제2 인터내셔널 시기, 맑스주의는 우세한 지위에 있었지만, 제2 인터내셔널 초기부터 기회주의 경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와 동시에 파리에서 열린, 이른바 ‘가능주의파’(이들의 목표는 자본주의 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동계급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었다)의 집회였다. 이들은 2년 후에 제2 인터내셔널에 합류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당시에 이미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얼마만큼 확대되어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제2 인터내셔널 안에서 초기에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부분은 영국의 노동운동이었다. 영국은 당시 가장 앞선 제국주의 국가로서 자본가들은 식민지 인민을 착취 수탈한 초과이윤 중 일부로 노동귀족을 매수, 포섭하고 있었다. 제2 인터내셔널 전체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독일사회민주당」에서는 아직 기회주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사회민주당」 내에서도 기회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서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맑스주의를 비판한 사람이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이었다.

맑스 사후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본주의는 엄청난 확장을 경험한다. 19세기 말의 대불황과 독점자본의 대두 및 제국주의적 팽창은 이 시기 자본주의 변화와 확장의 주요한 양상이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revisionism)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변화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사회주의자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의 경제·정치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며, 노동자 운동은 조직적으로도, 선거에서도, 문화적으로도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베른슈타인은 또한 국가란 파괴되어야 할 억압 기구가 아니라, 민주화되어야 할, 즉 접수하여 시민적 기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문명의 업적으로 간주했다. 베른슈타인은 동시대 자본주의의 변모와 이것이 노동자 운동에 갖는 함의는 그때까지 「독일사회민주당」의 강령으로 되어있던 맑스주의의 다양한 요소들, 특히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혁명의 불가피성에 관한 맑스의 명제들을 수정·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신시대」지에 1896년부터 「사회주의의 문제들」이라는 연재 논문을 게재하고 1899년에는 「사회주의의 전제들」이라는 책을 통해 19세기 말의 자본주의 현실은 맑스의 자본론, 축적론의 전개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해 노동계급의 궁핍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붕괴론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는 노동자 국가의 수립 없이도 자본주의가 그대로 발달하여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 ‘사회주의’의 목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운동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베른슈타인은 이로써 사실상 맑스주의를 부정했다. 베른슈타인의 견해는 여러 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이 지지했다. 독일에서는 기회주의적 견해로 알려진 폴마르(Georg von Vollmar), 영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 데이비드(Eduard David) 등이 수정주의를 지지했고, 프랑스에서는 가능주의파들과 독립사회주의자들이 지지했다. 밀레랑(Alexandre Millerand)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부터 실천적 결론을 끌어낸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1899년 7월 의회 내 사회주의 당 그룹에 알리지 않고 프랑스 정부에 상공 장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부의 전쟁 장관은 파리 코뮌의 도살자 가스통 갈리페(Gaston Galiffet) 장군이 맡고 있었다. 이것은 ‘밀레랑 사건’으로 알려져 프랑스와 다른 나라 대부분 사회주의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 ▶ 맑스의 가치론 비판

베른슈타인은 먼저 맑스 사상의 기초인 노동가치론을 공격했다. 베른슈타인은 맑스의 가치나 추상노동 개념은 측정할 수 없는 정신적 구성물, 정신적 일반화에 불과하며, 경제적 현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가격이 유일한 경제적 현실이고, 상품은 가격을 갖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가치는 장기적 경향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의 무게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힐퍼딩은 경제학의 목적은 특정한 가격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맑스주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칙을 관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베른슈타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격과 가치의 괴리는 맑스의 가치론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수정할 뿐이며, 경제이론은 가격 변화가 일반적 경향에 합치하는지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 ▶ 궁핍화론과 양극화론 비판

베른슈타인은 맑스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절대적으로 악화한다는 절대적 궁핍화론을 주장했다고 해석하고, 당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맑스의 절대적 궁핍화론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베른슈타인은 또한, 맑스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계급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분화되는 양극 분해론을 주장했다고 해석하고, 이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맑스주의의 정통으로 알려진 카우츠키와 「독일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1891년)은 대규모 기업, 트러스트화 또는 독점화, 소수의 수중으로의 소유집중, 소규모 기업과 농민의 소멸을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당시 독일 사회는 맑스의 추상적인 양극화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에서 집중은 맑스가 생각했던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가의 절대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으며, 농민과 중간계급도 비중이 줄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맑스가 예상했던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즉 농업자본가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농업경영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농업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즉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농민층의 양극 분해가 지체되면서 「독일사회민주당」은 노동자만을 대변해서는 의회의 다수를 획득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사회민주당」은 의회의 다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지지를 얻어야 했고,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민층의 양극 분해를 전제한 당시 사회민주당의 사회주의적 강령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농민층 보호 정책을 당 강령으로 채택하면, 농민층의 곤궁과 양극 분해는 완화될 것이지만, 이는 사회주의혁명의 전망이 더 먼 훗날로 미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강령을 고수하려 했던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반발했다.

## ▶ 붕괴론 비판

베른슈타인은 맑스의 자본주의 경제분석의 핵심을 붕괴론으로 보고, 이 역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붕괴론을 수용한 에르푸르트 강령(1891년)과 카우츠키를 비판했다. 베른슈타인은 붕괴론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당시 진행되던 대기업의 등장, 자본의 집중, 카르텔과 독점의 진전은 자본가들의 생산통제 능력과 과잉생산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자본주의를 공황의 위협에 덜 노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신용과 금융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투기와 공황 경향을 완화할 것이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되어, 시장의 무정부적 성격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의 붕괴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회민주당의 과제는 자본주의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개량을 중심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개량주의

베른슈타인은 1890년대 중반 노동계급의 상태 개선과 공황의 완화 등의 사회적 조건이 혁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개량만을 의미 있는 전략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제도들이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독일사회민주당」은 개량적인 압력을 강화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민주당은 거대한 대격변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확장과 노동자의 경제·행정 기구 참가에 의존해야 하며, 권력의 쟁취와 소유의 사회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움과 조직화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사회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상적 의식과 사회주의의 추상적 전망 사이의 간격은 도덕교육이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 카우츠키의 중도주의

카우츠키는 제2 인터내셔널에서 맑스주의의 ‘황제’로 불렸다. 실제로 제2 인터내셔널 맑스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카우츠키의 사상에 집약되어 있다. 카우츠키는 처음에는 맑스주의 정통을 자임하며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격파했지만, 1905년 러시아혁명을 전후하여 로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좌파분파와 대립하면서 중도주의(centrism)로 돌아서고,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더 우경화하여 「독일사회민주당」의 주류 개량주의로 복귀했다.

## ▶ 농민층 양극 분해론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핵심은 농업 문제에 있다고 보고, 농업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맑스주의적 분석을 시도했다. 카우츠키는 「농업 문제」(1899)에서 베른슈타인의 ‘농민층 양극 분해 지체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자본주의에서 소(小)경영에 대한 대(大)경영의 우위와 농민층 양극 분해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농민이 곤궁하다 할지라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기업가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식량의 판매자로서 그 구매자인 프롤레타리아트와 이해가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이 주장한 곡물관세 인상과 같은 농민 보호정책은 농민의 부담을 공업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농민해방은 도시의 공업 프롤레타리아트 조직의 질적·양적 증대와 승리로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카우츠키는 사회민주당은 자본주의에서 농민층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농촌 프롤레타리아트나 출가노동자(出稼勞動者)의 보호, 대토지 소유의 폐지, 삼림과 수력의 국유화, 지방 자치체의 확충 등을 통해 농민층을 중립화하는 것을 농업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상대적 궁핍화론

카우츠키는 맑스가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절대적 궁핍화를 주장했다고 비판한 베른슈타인에 대해, 맑스는 노동계급의 절대적 궁핍화를 주장한 적이 없고, 자본주의 현실에서 노동계급의 절대적 궁핍화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맑스가 노동력의 가치 결정에서 역사적·도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의 절대적 향상을 인정했다고 보았다. 맑스는 노동계급의 상대적 궁핍화, 즉 자본가계급에 비교한 노동계급의 상대적 빈곤을 주장했을 뿐이며, 상대적 빈곤은 노동계급의 절대적 빈곤이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실질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착취율이 상승한다는 사실은 맑스의 상대적 궁핍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과소소비설

카우츠키는 맑스의 자본주의 경제분석을 붕괴론이라고 비판한 베른슈타인에 대해 ‘맑스는 물론 엥겔스나 자신도 붕괴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카우츠키는 설령 맑스가 붕괴론과 같은 것을 주장했다면, 그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코뮤니스트 선언」에 제시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점증하는 권력과 단결 및 계급의식의 각성 명제일 뿐이며, 이는 베른슈타인이 맑스에 귀속시켰던 숙명론적 붕괴론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맑스의 자본주의 경제분석은 붕괴론이 아니라 공황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과소소비설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점증하는 수요 부족을 두 축으로 해서 경제공황을 설명했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과잉생산이 주기적 공황을 불가피하게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 ▶ 초(超)제국주의론

카우츠키의 동시대 자본주의 분석은 초제국주의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카우츠키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원료와 식량 공급 배후지로서 점점 더 큰 농업지역을 정복하려는 자본주의 공업국의 압력으로부터 나온다. 카우츠키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행태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제국주의는 금융자본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힐퍼딩이나 레닌처럼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 혹은 최후 단계로 규정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초과이윤 획득의 한 수단 또는 정책으로 보았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의 하나이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카우츠키는 군비경쟁과 군국주의 역시 경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지만, 자본주의의 경제적 필연성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로부터 카우츠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제국주의를 지양하고 군축과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에는 제국주의적 투쟁 경향뿐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의존(즉, 비 제국주의적 경향)도 동시에 반(反)경향으로서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하는 비(非)제국주의적 경향이 현재화될 경우 초(超)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원료에 대한 지속적 접근권과 자본에 대한 출구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에 불가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한 군국주의와 전쟁이 반드시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는 자본가들은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가 외국무역에서 카르텔 정치를 극복하는 하나의 새로운 국면인 초제국주의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우츠키는 전 세계적 갈등의 막바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신성동맹’, ‘국제적으로 단결한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의 공동 착취’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레닌의 명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은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현실에서 완전한 오류로 판명되었다.

## ▶ 경제결정론

카우츠키의 결정적 오류는 그가 맑스의 사상을 경제결정론으로 곡해한 것에 있다. 게다가 카우츠키의 경제결정론은 다윈주의(Darwinism)와 결합해 있다. 카우츠키는 역사 이론은 다윈주의를 사회발전에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역사 과정의 자동적 작용이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에게는 인간은 자기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적 힘의 노리개일 뿐이며, 노동계급은 더는 역사의 주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카우츠키는 노동계급이 투쟁을 통해 자신을 의식적인 혁명 주체로 변혁해 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카우츠키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으며, 노동계급의 의식 변혁이 사회변혁의 필수적 부분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다. 즉 카우츠키는 그가 비판했던 베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역사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로서,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 산물인 동시에 역사를 결정하는 힘으로써 파악한 맑스의 위대한 발견을 이해하지 못했다.

카우츠키의 기계적 결정론은, 사회민주당은 혁명을 만드는 당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서도 보인다. 카우츠키는 계급투쟁은 자기 논리를 가지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발하는 객관적 현상이기 때문에, 명령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혁명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제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카우츠키의 단계 혁명론 역시 기계적 결정론의 정치적 결론이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 발전이 충분히 진전되어 인민의 다수가 사회주의 편으로 획득되기까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주의는 확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생산력 발전을 통해 경제적 전제조건을 제공했을 때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우츠키는 이러한 조건이 성숙하기 전에 사회주의를 확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의 배반과 블랑키적 폭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 의회주의 혁명론

1890년대 이후 카우츠키와 「독일사회민주당」의 일관된 전략은 의회주의였다. 카우츠키가 당내 수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카우츠키는 혁명의 수호자처럼 보였지만, 그가 옹호했던 혁명은 의회주의 혁명이었다. 카우츠키의 사회주의혁명 전략의 핵심은 사회민주당이 부르주아 정부와 연합하거나 그것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채 야당으로 남아 있다가, 마침내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날이 오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확립한다는 의회주의 혁명이었다. 카우츠키는 다수 의석의 획득을 통한 민주주의적 의회 투쟁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중심 형식으로 주장했다.

의회주의 혁명 전략에서 자본주의 국가기구는 분쇄가 아닌 점수의 대상으로 된다. 카우츠키는 혁명은 국가 안에서 지배계급의 전위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카우츠키에 따르면, 혁명은 공권력의 점수일 뿐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국가 안에서의 지배적 지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헤게모니 표현’으로 국한된다. 즉 권력의 정복은 기존의 국가와 제도의 점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카우츠키가 말하는 노동자 국가란 노동자당이 득표수에서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 사회의 주요 제도를 변혁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카우츠키는 기존 국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권력 획득을 주로 평화적인 선동과 의회적 방법으로 이해했다. 이와 같은 카우츠키의 의회주의 혁명론은 파리코뮌의 경험에 기초한 맑스와 레닌의 ‘국가 파괴론’의 관점과 완전히 상치된다. 이 점에서 카우츠키의 입장은 이미 수정주의 논쟁 시기에서조차도 혁명적이지 않았다. 카우츠키가 지도했던 「독일사회민주당」이 실제로 의도했던 것도 의회제 민주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와 완전히 같은 것이었다.

카우츠키 사상의 정치적 결론이 의회주의로 수렴된다는 사실은 수정주의 논쟁에서 베른슈타인이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독일사회민주당」에 특징이었던 맑스주의 강령과 개량주의 실천 사이의 괴리와 모순은 맑스주의 강령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결국, 1920년대 이후 「독일사회민주당」은 맑스주의 에르푸르트 강령을 포기하고 이를 자신들의 기존 개량주의 실천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베른슈타인이 애초 제기했던 수정주의가 단지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아니라 노동조합 관료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던 개량주의 조류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다.

## ▶ 노동조합 관료의 이데올로기

제2 인터내셔널에서 대두한 개량주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 자본주의의 변영과 발전을 배경으로 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휴전 국면에서 출현한 독립적 사회 계층인 노동조합 관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예컨대 1913년 「독일사회민주당」과 그와 연계된 노동조합들이 소유했던 재산은 9천만 마르크에 달했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당 서기국, 당 기관지 편집실 등에서 각종의 의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을 만들어냈다. 노동조합 관료는 평조합원이나 기층 대중과는 달리, 그들을 묶고 있는 족쇄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노동조합 관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에 자리 잡고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들은 노동계급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극우로 돌아서지도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료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사태, (대대적 파업에서 보듯이) 대중행동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당과 노동조합의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지배계급의 도발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노동조합 관료는 항상 노동자 대중투쟁을 기존 체제의 틀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 카우츠키에게 전형적인 제2 인터내셔널 맑스주의의 기회주의, 중도주의, 개량주의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 관료의 이익에 봉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 ◆ 막스 휠츠의 활약 ◆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의 투사, 막스 휠츠(Max Hoelz)는 1920년 초 독일의 계급전쟁 시기, 무장 투쟁단을 조직하여 비공인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투쟁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에 쌓아둔 노동조합 자금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 반(反)불세비즘

카우츠키는 제1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면서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고 좌파의 비판이 신랄해지자, 점차 로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좌파분파를 사회민주당의 통일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카우츠키의 주요 공격 대상은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의 스파르타쿠스동맹(Spartacus League)과 불세비키였다. 카우츠키는 의회주의 혁명론의 입장에서 항상 소비에트와 같은 평의회가 아니라 의회가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우츠키는 레닌이 1917년 10월혁명 후 제헌의회를 해산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카우츠키는 1917년 10월혁명을 쿠데타, 반(反)혁명이라고 비난했다. 1918년 이후 카우츠키의 주된 활동은

반(反)볼셰비키 투쟁이었다. 카우츠키는 1918~23년 독일혁명의 실패나 히틀러 등장  
 주된 책임은 스파르타쿠스동맹과 독일코뮤니스트당, 볼셰비키와 같은 좌파에 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1918~23년 독일혁명이 패배하고 1930년대 나치가 대두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혁명과 반(反)나치 투쟁의 선봉에 섰던 노동자평의회를 활성화하지 않고 오히  
 러 통제·억압했던 당시 「독일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개량주의 지도부에 있다.

카우츠키의 사상이 맑스주의적 수사로 치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맑스주의 전통의 한 갈  
 래로 보는 것은 겉모습과 본질을 혼동하는 것이다. 카우츠키의 사상은 노골적으로 맑스주  
 의를 반대했던 베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 혁명사상을 거부했다. 카우츠키와 베른  
 슈타인 사상의 개량주의적 본질은 1932년 카우츠키가 베른슈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이 베른슈타인과 19세기 말 벌였던 논쟁은 “한날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세  
 계대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고, 그 뒤로도 전쟁, 혁명, 독일과 세계의 변동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언제나 같은 관점을 취해 왔다’고 술회한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 ◆ 에르푸르트 강령 ◆

1891년 독일사회민주당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  
 기업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생산수단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자본가와 대지주에게 집중되는  
 동안, 그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산 프롤레타리아화한다.

이런 생산수단의 집중으로, 분열된 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밀려나게 되고, 생산도구는 기계화되며  
 인간 노동생산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변화의 이익은 자본가와 대지주에 집중  
 된다. 프롤레타리아와 몰락하는 중산층(소부르주아, 농민)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의 불확실  
 성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즉 비참, 억압, 굶주림, 타락, 착취를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잉여 노동자는 점점 더 대량화하고,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갈  
 등은 더 험악해지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계급투쟁은 점점 더 격해질 것이다. 이것  
 은 현대사회를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누게 하고 산업화한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심연은 공황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더 넓어진다. 이  
 공황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으로 되고, 전반적인 불안이 사회의 일상적 모습이 되도록 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합목적적 이용이나 충분한 발전과 공존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한때 생산자가 생산물의 소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으나, 오늘날 그것은 농민, 수공업자, 소상공인을 수탈하고 일하지 않는 자(자본가, 대지주)가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을 가로채는 수단이 되었다.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즉, 토지, 농지, 갭, 광산, 자연 자원, 공구, 기계, 교통수단)의 사적소유를 공동소유로 전환하고, 상품생산을 사회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노동생산성 증가를 지금까지의 피착취계급에 비참과 억압의 근원에서 최고의 복지와 조화로운 발전의 원천으로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변혁은 노동계급만의 과업이다. 왜냐하면, 그들 상호 간에 이익의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계급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고, 현 사회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투쟁이다. 노동계급은 정치적 권리 없이 경제투쟁을 이끌 수도 그들의 경제적 조직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정치권력 쟁취 없이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노동계급의 투쟁을 자각적이고 통일적으로 만들고 노동계급이 자연 필연적인 목표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민주당의 과제이다. 노동계급은 모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국가에서 동일하다. 세계교통과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의 확대에 따라 각국 노동자의 처지는 다른 나라 노동자의 처지에 더 종속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해방은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독일 사회민주당은 모든 나라의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와 하나로 느끼며 하나임을 선언한다.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특권계급과 특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지배와 계급 자체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며, 출신과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민주당은 현대 사회에서 임금노동자의 착취와 억압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계급, 정당, 성별, 인종을 향한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해 투쟁한다.

이런 원칙에서 출발하여 독일사회민주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1) 성차별 없이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비밀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 선거권과 투표권. 비례 선거제와 제도 도입까지 국민 수에 따른 선거구 재편. 입법부 2년 임기. 선거, 투표일의 법정 휴일화. 선출직에 대한 보수지급. 금치산을 제외한 정치권의 제약 지양.
- 2) 제안권과 거부권을 가지는 국민에 의한 직접 입법. 제국, 국가, 지역, 공동체에서 인민에 의한 자결과 자치. 인민에 의한 답변과 인책 의무가 있는 관료 선출. 매년 세금의 인준.
- 3) 일반적 개병제를 위한 교육. 상비군을 대신하는 인민군. 인민 대표에 의한 전쟁과 평화의 결정. 재판 식의 국제분쟁 중재.
- 4) 남성보다 공법, 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법의 철폐.

5) 종교는 사적인 일임을 선언. 종교적 교회적 목적의 공공제 사용 철폐. 교회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는 그들의 일을 완전히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적 결사체로 간주.

6) 학교의 세속화.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초등학교의 무상교육과 교제와 급식의 무상제공. 능력에 따라 선발된 남녀학생의 중고등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

7) 무료 소송과 무료 변론. 인민이 선출한 판사에 의한 재판. 형사사건의 항소권. 죄 없이 기소되고 체포되고 선고된 자에 대한 보상.

**8) 출산과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무상제공. 무상 장례.**

9) 공공지출을 위한 자진납부하는 누진 소득세와 누진 재산세. 재산과 상속자의 존수에 따라 누진하는 상속세. 간접세, 관세 그리고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경제 정책 수단의 철폐.

노동계급의 보호를 위해 독일 사회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래에 기초한 국내적 국제적 노동자 보호법의 제정.

**a) 평일 최장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

b) 생계를 위한 14세 미만의 아동노동 금지.

c) 야간노동의 금지. 단, 기술적 이유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산업 분야는 제외.

d) 매주 36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휴식 보장.

e) 현물 급여제 금지.

2) 제국노동청과 지역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의한 모든 영리사업체에 대한 감시, 도시와 농촌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조사와 규제. 엄격한 위생

3) 농업노동자와 가사 노동자를 영업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 노예제의 철폐.

4) 단결권 보장

5) 모든 노동자보험의 제국으로 이관과 이의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노동자 참여.

「에르푸르트 강령」은 1891년 에르푸르트(Erfurt)에서 개최된 「독일사회민주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이다. 이 강령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맑스주의 경향의 혁명이론으로 카우츠키가 초안을 작성했고, 뒷부분은 실용주의 경향의 정치적 실천으로 베른슈타인이 작성했다.

이 강령은 1921년에 「괴를리츠 강령」으로 대체된다. 이에 앞서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을 결성하면서 채택한 1875년의 「고타 강령」을 맑스는 통렬히 비판했다.

## 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방어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2 인터내셔널 시기 「독일사회민주당」에서 활동했다. 그는 제2 인터내셔널의 경제주의적 속류화와 개량주의적 타락으로부터 맑스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혁명가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독일사회민주당」 내부에 베른슈타인과 같은 기회주의 경향이 나타나자, 「혁명이나 개량이나」(1899)를 쓰면서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에 앞장섰다. 룩셈부르크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망 이후 맑스주의 운동의 침체를 비판하며 새로운 이론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맑스주의 자체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904년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뒤이어 러시아에서 최초로 대대적 파업의 큰 물결이 일어났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20세기 계급투쟁의 새로운 원동력을 최초로 발견한 이들 중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주도성이 특징적인 요소가 되고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이나 당 기구로 '계획'할 수가 없다. 비록 그가 노동자평의회역의 역할을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팸플릿, 「대대적 파업, 당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대중 활동을 강조했다. 계급투쟁의 이러한 새로운 원동력을 노동조합과 증가하는 사회민주당 내부 인자들은 격렬한 투쟁으로 꺾어버리려 했다. 노동조합 기구(관료)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부에서 대대적 파업에 대한 논쟁을 금지했다. 1906년 로자 룩셈부르크는 대대적 파업에 관한 팸플릿 출판 후 '계급 증오를 조장했다'는 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갇혀있어야만 했다. 이때부터 칼 카우츠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과격한 노선에 점점 더 반대하는 견해를 취했다. 이 시기 동안 로자 룩셈부르크를 '평화롭고', '조화를 사랑하는' 사회민주당 안에 곤란을 유발하는 '유대인', '외국인', 그리고 '노처녀'라고 비방하는 캠페인과 증상모략이 강화되었다.

### ▶ 대대적 파업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신이 겪은 1905년 러시아혁명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하여 「대대적 파업, 당 그리고 노동조합」을 1906년 가을, 「독일사회민주당」의 만하임 당 대회를 앞두고 발간했다. (한국에는 「대중 파업론」으로 알려져 있다)

1906년 룩셈부르크가 팸플릿을 쓸 당시, 1905년 러시아에서 홍수를 이룬 대대적 파업의 물결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물결은 계급투쟁 전대미문의 폭발이었고, 노동계급의 투쟁에 대해 그때까지 상상할 수 있던 모든 것을 깨고 나온 것이었다. 서로 다른 직업군들 사이의 구별이 무너졌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사이의 구별이 무너졌다. 즉각적인 요구와 혁명 투쟁 사이의 구분도 낡은 것이었다. 갑자기, 전(前)자본주의적 약탈을 제거하는 것은 더는 노동계급이 자본가계급과 나란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사회

주의혁명 자체의 과제로 보였다. 결국, 1905년의 투쟁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 원칙을 낳았다. 투쟁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더는 노동조합의 임무도, 노동자 정당의 임무도 아니었다. 오히려 노동자 대중이 이 임무를 스스로 넘겨받았다. 소비에트(독일어로는 레테, 노동자평의회)가 탄생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는 맑스의 표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차르 제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뒤흔든 역사적인 지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현재의 사안으로 세움으로써 그리고 수십 년간 통용되던 전제들의 기반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맑스주의 노동자 운동을 뒤흔들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대대적 파업은 이른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체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를 갖는 여러 해에 걸친 성장을 거친다. 대대적 파업의 시작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것들은 종종 나중에 가서야 그런 것으로 인식된다. 러시아에서 그것은 1896에서 1906까지 10년에 걸친 한 시기였다.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순전히 경제적인 부분적 임금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4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이 되었다. "지금은 이 사건이, 혁명의 엄청난 대대적 파업들에 비해서 사소해 보일지 모른다. 그 당시 러시아의 얼음같이 경직된 정치적 분위기에서 총파업이란 전례 없는 어떤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축소판의 온전한 혁명이었다" (룩셈부르크 저작집(독어판), 제2권, 104쪽, 폴무질 162, 163쪽 참조)

이렇게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대대적 파업이 큰 역할을 하자 그 여파로 독일에서도 대대적 파업이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대대적 파업은 의회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계획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투쟁이었다. 대대적 파업 과정에서 소비에트와 같은 새로운 노동자 권력기관이 출현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의회 밖 혁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료는 대대적 파업에 단호히 반대했고, 사회민주당 지도부도 노동조합 관료의 요구에 굴복해 대대적 파업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민주당의 지도부와 노동조합 관료는 대중의 열정에 대해 거의 본능적으로 불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중투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는 것을 가장 걱정했다.

카우츠키는 수정주의 논쟁에서는 룩셈부르크 등 좌파와 같은 진영에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공격했지만, 대대적 파업 논쟁을 분수령으로 하여 중도주의로 우선회하면서 좌파와 갈라섰다. 1910년 이후 카우츠키는 룩셈부르크와 좌파의 공인된 적(敵)이 되었다. 물론 카우츠키도 처음에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좌파 입장에서 비판했다. 하지만 카우츠키는 뒤에는 룩셈부르크처럼 대대적 파업을 진정으로 옹호했던 이들을 '혁명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결국 당과 노동조합 조직의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계급투쟁의 요구를 저버리는 길을 선택했다. 카우츠키는 독일의 경우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라는 게임 규칙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만 대대적 파업을 자기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대대적 파업은 보통 선거권이나 결사의 자유 쟁취와 같은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대대적 파업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1905년 러시아혁명의 교훈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러시아와 독일의 조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독일에서는 대대적 파업이 아니라 의회 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대적 파업에 대한 카우츠키의 부정적 평가는 대중의 자발적 의식과 투쟁에 대한 그의 근본적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카우츠키는 조직되지 않고 교육받지 못한 대중은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다. 카우츠키는 대중의 맹목적 본능의 분출을 두려워했다. 카우츠키는 대대적 파업이 이와 같은 노동자 대중의 원초적이고 전혀 조직되지 않은 힘에 불을 당길 것을 두려워했다. 카우츠키는 문명은 이성이며, 계급의 이성은 당이라고 생각했다. 카우츠키는 대중의 원초적 본능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제하고, 당이 사태가 제 갈 길을 가도록 유도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대대적 파업 이전에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대대적 파업이 사회민주주의 제도의 보수적 관행과 무기력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에너지의 분출이라고 보았다. 룩셈부르크는 1905년 러시아혁명이 노동계급 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보았다. 룩셈부르크는 1905년을 하나의 단절, 질적으로 새로운 요소의 출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혁명적 표현’,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의 자율적 표현’으로 보았다.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에게 맞서 1905년 러시아혁명의 교훈은 독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대적 파업은 정당방위 수단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대대적 파업은 아래로부터 노동자 대중투쟁에 기초한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대대적 파업에서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의 상호전화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탁월한 묘사는 그가 카우츠키와 같은 숙명론적 맑스주의를 얼마나 분명하게 거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와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의 ‘선(先)조직 후(後)투쟁론’을 비판하고, 조직과 투쟁의 변증법의 관점에서 조직은 오히려 투쟁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투쟁이 당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계급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시간과 형식은 사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노동자 운동은 당 지도부에 의해 외부로부터 조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적 행동의 중요성을 믿었다.

대대적 파업 논쟁을 전후하여 카우츠키의 중도주의적·의회주의적 경향은 급속도로 강화되고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와 사실상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레닌은 1910년 대대적 파업 논쟁 당시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카우츠키를 지지했다. 레닌이 대대적 파업을 이중권력의 창출 문제와 연결하면서 룩셈부르크의 대대적 파업론을 발전시킨 것은 1914년 이후의 일이다.

## ▶ 제국주의론과 붕괴론

로자 룩셈부르크가 1913년 출판한 「자본의 축적」은 힐퍼딩의 「금융자본」(1910)과 함께 맑스의 「자본론」 이후 최초의 진지한 본격적인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여였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의 「자본의 축적」은 경제학적 저작이기 전에 정치적 개입이었다. 즉, 「자본의 축적」은 국제적 평화와 조화에 관한 카우츠키의 환상을 분쇄하고, 임박한 세계대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행동의 긴급한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의 축적」에서 먼저 맑스의 재생산표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룩셈부르크는 맑스의 재생산표식이 붕쇄된 순수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안정적인 균형성장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붕쇄된 순수자본주의 체제에서 안정적 균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맑스의 재생산표식은 자본축적이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주의혁명의 과학적 기초, 즉 자본주의 붕괴의 경제적 필연성을 제거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의 맑스 재생산표식 비판이 실제로 겨냥했던 것은 공황 없는 경제발전과 전쟁의 회피를 희구했던 「독일사회민주당」의 수정주의 우파와 ‘맑스주의 중앙’인 카우츠키였다. 카우츠키를 비롯한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룩셈부르크의 「자본의 축적」이 출간되자마자 히스테리적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의 논거로 제시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변형, 즉 붕괴의 지연을 중심부 자본주의 축적과 주변부의 비(非)자본주의 환경을 연결하면서 설명했다. 룩셈부르크는 비(非)자본주의 환경이 중심부 자본주의에 대해 잉여생산물의 처분 장소와 원료 산지를 제공하여 축적의 곤란을 해결함으로써 붕괴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이와 같은 모순의 전가(轉嫁)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비(非)자본주의 환경은 중심부 자본축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부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순간 자본주의로 전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면 잉여가치 실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비(非)자본주의 구매자는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체제 내에서 생산되는 점증하는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매자를 체제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데, 비(非)자본주의 시장의 필사적 추구는 비(非)자본주의 환경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전화시키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출구 자체를 파괴해 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모순적이며, 비(非)자본주의적 환경을 차지하려는 투쟁 때문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된다. 룩셈부르크는 이처럼 ‘아직 남아 있는 비(非)자본주의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하는 자본축적의 정치적 표현’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정의했다.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가 비(非)자본주의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적 투쟁의 결과 비(非)자본주의 환경이 자본주의로 포섭되어 지구 전체가 자본주의로 전화하는 순간 자본주의의 붕괴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비(非)자본주의 환경의 소멸은 바로

확대재생산을 위한 잉여가치의 실현에 필수적인 출구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은 최종적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붕괴가 초래할 야만을 저지하는 길은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주의냐, 야만이나,’ 이것이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룩셈부르크의 붕괴론을 자동 붕괴론과 동일시하여 룩셈부르크가 제2 인터내셔널의 경제결정론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의 붕괴가 자동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사회주의의 시대를 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룩셈부르크에 대해 자본주의의 붕괴의 문제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나’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다. 룩셈부르크의 붕괴론은 이 점에서 사회적 위기는 ‘사회혁명 혹은 투쟁하는 계급들의 공멸’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맑스와 엥겔스의 「코뮤니스트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룩셈부르크의 붕괴론은 주체적 혁명 투쟁을 불필요하게 하는 자동 붕괴론과 동일시될 수 없다. 룩셈부르크가 「자본의 축적」에서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을 논증한 것은 오히려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혁명 투쟁의 절박한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은 식민주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점의 성장이나 은행의 점증하는 지배를 강조한 힐퍼딩의 「금융자본」과도 공통점이 없다. 룩셈부르크의 「자본의 축적」에서 독점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의 「자본의 축적」은 독점자본주의 단계론, 즉 독점적 초과이윤 이론이나 식민지 초과이윤 이론 등을 끌어오지 않고서도 국가 사이 수탈과 지배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룩셈부르크의 「자본의 축적」은 제국주의 현상을 맑스의 「자본론」의 추상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때문에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세계적 규모로 격화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 조건에서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데 더 유효하다. 세계화와 함께 지구에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순을 전가할 수 있는 공간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자본 지배의 보편화 과정으로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전가할 비(非)자본주의 환경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자본의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임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 ▶ 개량과 혁명의 변증법

룩셈부르크는 수정주의 논쟁에서는 카우츠키와 대체로 동일한 전선에서 베른슈타인을 비판했지만, 룩셈부르크의 사상은 이미 수정주의 논쟁 때부터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 논쟁의 지평을 넘어섰다.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점점 공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되고 있다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거부했지만, 그 거부 방식은 카우츠키의 방식과는 아주 달랐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가

공유했던 단순한 진화론적 접근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적 성격과 상호 연관된 전체로서 성격을 강조했다.

베른슈타인은 개량을 위한 부분적 투쟁이 체제의 성격에 객관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룩셈부르크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룩셈부르크는 만약 자본주의가 무정부적인 생산의 결과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혹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해서 개량할 수 있다면, 혁명을 위해 투쟁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공황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그와 같은 개량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룩셈부르크는 개량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은 오히려 사회주의를 위한 주체적 전제조건, 즉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고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노동자는 부분적 개량을 위한 투쟁을 통해 자신의 힘이 집단적 조직과 투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작은 투쟁의 성공을 통해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과 그것의 객관적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개량의 의의는 그것이 노동자 상태의 개선을 가져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량을 위한 투쟁 자체가 프롤레타리아트에 결정적인 투쟁을 위해서 필요한 실천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룩셈부르크는 권력 쟁취의 수단이 아닌 개량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개량은 그 자체 목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혁명의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개량을 위한 어떠한 투쟁도 사회주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종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운동이 전부’라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룩셈부르크는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운동은 최종적 목표와 연관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며, 궁극적인 목표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룩셈부르크는 단기적인 성공을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것은 계급적 관점과 상반되며 환상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 민족 문제와 「유니우스 팸플릿」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2 인터내셔널 좌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민족 문제에서 레닌보다 더욱 명확했다.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민족자결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쇠퇴, 민족주의, 제국주의 등에 대한 그의 교훈은 여전히 혁명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다. 그에게 자본주의 쇠퇴기의 민족 전쟁은 더는 가능하지 않다. 그는 민족의 이익은 단지 대중을 오도하고, 그들의 숙적인 제국주의에 도움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국제 사회주의는 동등한 권리와 더불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자체로도 그러한 민족을 창출할 수 있고 민족의 민족자결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은 다른 모든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건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혁신적, 적극적인 정책을 위한 이정표와 원동력과 같다.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 세계정치가 민족의



삶의 안팎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한, 전시든 평시든 '민족자결권'은 있을 수 없다. 현재국주의 환경에서 민족 방어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결정적 역사적 환경에 의존하고, 전 세계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 국가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회주의 정책은 사상누각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유니우스 팸플릿」)

민족 문제에 대한 룩셈부르크 교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어떤 억압받는 민족도 제국주의 또는 전쟁의 결과로써 주어진 국가에 의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지배계급이 권력 집단에서 그들의 지배적인 동료들과 한통속이 된 약소국은 강대국의 제국주의 게임에서 한낱 말에 불과하며, 그들을 위한 도구로서 전쟁에서 흑사당한, 그리고 전후에 버려지고 자본주의 이해관계로 인도된 프롤레타리아트와 마찬가지로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국제 사회민주주의의 과업에 관한 지침」)

자유로운 국가와 민족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존재할 수 없다. 그 자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흡수되어야 하며 세계시장에 참가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운동에서 발생한 신생국은 그 크기 또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제국주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사회민주당의 위기[유니우스 팸플릿]」은 세계의 역사적 변화의 개막을 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최초의 주요한 이론적-정치적 분석의 글이다. 이 전쟁에서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인류가 학살되었다. 보기를 들어 북프랑스와 플랑드르(벨기에)에서 독가스와 같은 신무기의 사용으로 단 몇 주 동안 수만 명의 병사가 살해되었다. 종전까지 사망자가 약 2천만 명에 달했고 종전 직후 지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사람들 2천만 명이 이후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진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1914년 8월 4일, 「독일사회민주당」 소속 제국 의회 의원들은 전쟁 차관 승인에 찬성했다. 처음으로, 제2 인터내셔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롤레타리아 당의 지도부 중의 하나가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국제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원칙을 배반했다. 그 배반자들에 대항해 독일에서 몇몇 남지 않은 국제주의자들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거처에 모여서 국제주의의 옹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국제주의자들 최초의 국제대회가 스위스의 침머발트에서 조직되었다. 전쟁의 발발과 「독일사회민주당」 지도부의 배반에 대응해 혁명가들은 그 전쟁의 뿌리와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팸플릿, 「유니우스 팸플릿」과 그가 초안한 「국제사회민주당의 임무에 대한 테제」는 인류에게 있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혁명가들의 활동에 전망을 세우려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였다. 그는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15년 4월 감옥 안에서 '유니우스'라는 가명으로 이 팸플릿을 썼다. 전쟁 상황 속에서 그 글은 즉시 출판될 수 없었고, 1916년 1월에야 독일 밖에서 출판되었다.

그 팸플릿의 여러 장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팽창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정복해야만 하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너무) 뒤늦게 도착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먼저 도착한’ 나라들로부터 무력으로, 즉 전쟁을 통해서 정복 물들을 빼앗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를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의 상승을 다룬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는 모든 국가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폭로했고 이러한 발전은 어느 한 나라만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했다.

“제국주의 정치는 어떤 한 국가 또는 몇몇 국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 발전에서 특정 성숙도의 산물이다. 그것은 국내에서부터도 국제적인 현상이자 그 모든 상호 관계 속에서만 인식될 수 있고 그로부터 어떤 국가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분할될 수 없는 전체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유니우스 팸플릿」)

1890년대에 행한 분석에서 그는 폴란드는 더는 독립국이 될 수 없고 그래서 혁명가들은 더는 민족자결 요구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점은 1차 세계대전의 사건들로 확인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 진영 안에서 민족 방어 전쟁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 거부한 선구자 중의 하나였다.

전쟁 발발 후 몇 달 만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참여국들의 경제적 폐허를 초래하는 이 전쟁의 새로운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과 질적으로 새로운 시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석한 후, 그는 전쟁의 발발에서 주관적 조건을 강조했다. 그의 결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노동자당인 「독일사회민주당」 지도부의 배반이 없었다면,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본가들과 함께 서명한, 공장들에서의 당쟁 중지(즉, 파업 금지) 선언이 없었다면, 간단히 말해서,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에서 사회민주당이 조국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는 동안, 룩셈부르크는 전쟁의 종식에 있어 노동계급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가 자체의 전쟁과 파괴 충동을 제거할 것이라는 평화주의적 희망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존속한다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당할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했다.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나’의 양자택일과 직면했다.

룩셈부르크의 이 팸플릿은 자본주의가 들어선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명가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틀을 제공했다. 그것의 주요한 견해들(제국주의의 역사적 발전, 쇠퇴기 자본주의 사회의 전망, 사회주의냐 야만이나, 노동자 운동에서 국제주의의 문제, 혁명가들의 임무)과 방법(모든 문제를 뿌리까지 파고들어 그 원칙들을 규명하는 것, 가차 없는 자기비판, 혁명가들의 임무에 대한 장기 관점)은 모든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 ▶ 당과 계급, 그리고 대리주의

룩셈부르크는 제2 인터내셔널 맑스주의에 고질적인 경제결정론과 개량주의를 거부했다. 룩셈부르크는 인간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한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 성취에 있어 노동계급의 의식적 행동의 결정적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들은 룩셈부르크가 역사의 법칙이 자동으로 노동계급의 반란을 낳는다고 믿은 자생주의자이며, 제2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경제결정론의 오류에 빠져 사회주의 조직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다.

룩셈부르크가 혁명적 위기가 심화하기 전에 건설해야 할 당의 유형으로 「독일사회민주당」 모델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이다. 룩셈부르크는 1919년 「독일코뮤니스트당」(KPD)을 창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여전히 주저했다. 그는 사회민주당을 떠날 것인지 망설였고, 처음으로 소수가 될 위험이 있는 분리 조직을 건설하는 데 주저했다. 룩셈부르크가 독일의 사회민주당에 집착했던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객관적인 부패를 인식할 수 있는 정치적 지각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1916년 출간된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제2 인터내셔널이 취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태도와 사회민주주의가 민족 부르주아지를 지원한 점을 맹렬히 비판했다. **룩셈부르크를 구속하고 망설이게 했던 것은 대중의 혁명적 행동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생각과 그것이 당의 역할에 대해 갖는 귀결이었다.**

**제2 인터내셔널 사회민주주의라는 학교**를 통과해 온 룩셈부르크는 혁명운동의 대중적 성격에 애착이 강했는데, 그에게 당은 대중적 성격을 가진 모든 것에 적응시켜야 했다. 룩셈부르크는 사회민주주의의 대중정당에 대한 관점에 애착이 컸기 때문에, 운동에 앞서가는 것을 꺼렸다. 그는 노동자 ‘대중’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조직을 떠나기를 망설였다. 1914년 사회민주당과 제2 인터내셔널의 명백하고 결정적인 파산 이후에도, 룩셈부르크는 기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대중운동이라는 것과 혁명가들은 이 운동을 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되풀이했다. 룩셈부르크에게 **“진정으로 혁명적인 노동자 운동이 저지른 오류는 가장 훌륭한 중앙위원회의 무오류성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훌륭하고 소중한 성과였다”**. 그래서 혁명가는 옛 사회민주주의 조직을 넘어서는 데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다.

노동자 운동의 집단적 성격을 강조할 때 룩셈부르크의 일반적 관심은 정확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과업이다”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못한 실천적 결론을 초래했다. 대중적 성격을 띠는 모든 것에 대한 물신주의는 혁명가들을 제2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사로로 이끈다. 이러저러한 조직이나 정치적 도구의 대중적 성격에 대한 애착은 (노동자 대중은 계속해서 투표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 정치를 지원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혁명 활동의 집단적인 성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 의식의 균질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은 노동계급의 광대한 다수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소수로 남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때 당의 책무는, 대중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스스로 적응해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에서 코뮤니스트 강령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 당은 계급의식의 균질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조적으로 레닌은 당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했는데, 이는 당과 노동계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었고, 제2 인터내셔널 사회민주주의의 유산이었다. 이 혼란은 특히 1902년 레닌의 저작, 「무엇을 할 것인가」의 테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레닌은 계급투쟁의 퇴조기에 만들어진 이 저작을 러시아에서 그 시기에 유행했던 사상 학파인 경제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용했다.

이 조류는 베른슈타인 이론의 작은 소산으로서, 계급투쟁이 엄격하게 경제적 영역에 남아 있을 필요를 극찬했다. 이러한 발상은 맑스주의를 역사적 숙명론의 이데올로기로 변형시키고, 노동자들의 수동적인 자생성을 숭배하며 당의 비활동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버렸다. 레닌은 이와 대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경제적 투쟁을 넘어서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매우 강력히 역설했고, 혁명적 이론과 활동의 힘을 옹호했다. 경제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진한다는 옳은 관심에서 시작하여, 레닌은 그 반대쪽으로 ‘막대를 너무 구부려버렸다.’ 비록 레닌이 투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사이에 경제주의자들이 도입한 잘못된 분리에 대항하여 이러한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그는 경제적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방어적인 투쟁은 더는 계급의식 발전의 비옥한 토양으로 보이지 않았고, 운동의 정치적 차원은 ‘생산관계 영역의 외부에서’ 발전했다. 경제와 정치는 물론 만나긴 하지만, 무한에서야 비로소 만나는 두 개의 평행선과 같다. 더욱이 당은 이 융합을 조직하고 노동자에게 의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된다.

레닌의 논의가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책 속에 카우츠키의 저작들로부터 문구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요점은 1901년 「새로운 시대」에 실린 카우츠키의 글에서 인용한 유명한 문구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사회주의는, 일종의 교의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이 그러하듯이, 근대 경제 관계에 그 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계급투쟁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가난과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부터 출현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은 나란히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

며, 각각 다른 조건 아래 나타난다. 근대 사회주의 의식은 오직 심오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사실 근대 경제학은, 말하자면 근대 기술만큼이나 사회주의 생산에 있어서 한 조건이며, 프롤레타리아는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창조할 수 없다. 둘 다 근대 사회 과정에서 일어난다. 학문의 견인차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부르주아 인텔리겐차이다. 근대 사회주의가 발생한 것은 이 계층의 개별 성원의 정신 속에서였고, 또한 이것을 지적으로 가장 발전한 프롤레타리아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조건이 허락하는 곳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속으로 도입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이 계층의 개인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의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것이지, 그 속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계급의식이 경제투쟁에서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레닌의 오류는 계급의식이 경제투쟁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없고 당에 의해 외부로부터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은 것에 있었다. 당과 노동자들의 투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이 레닌에게서 나오게 하는 신비주의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역할이, 자생적인 운동 너머로 비상할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강령으로 만드는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기술적, 학문적 지식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 쟁취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의 관점과 매우 멋지게 융합된 지적 전문가 특유의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 이보다 더 나은 변명이 있는가? 당이 부르주아 국가를 장악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권력 장악에는 권력의 고삐를 쥔 관리자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지적인 기술자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량이나 혁명이나」에서 이미 계급의식과 투쟁 사이의 분리,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사이의 분리가 초래한 다른 궤도 이탈을 다루었다. 카우츠키와 레닌은 사회주의 의식을 생산관계의 외부에 위치시키면서 사회주의혁명과 그 발전을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이상으로 축소했다. 그러한 견지에서, 사회주의 강령과 혁명의 필요는 더는 경제 현실의 결과물이 아니며, 계급투쟁의 객관적인 조건의 산물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명백한 내적 모순이나 그 붕괴의 긴박함을 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자체의 속성인 완벽성에만 설득력의 근거를 두는 그러한 일종의 ‘이상’으로 축소해 버린다. 룩셈부르크는 비판을 계속한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말해서, ‘순수 이성’으로써 사회주의의 강령을 설명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자면, 사회주의에 대한 관념주의적 설명을 본다. 사회주의의 객관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의 물질적 발전의 결과로써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간다.” (룩셈부르크, 「개량이나 혁명이냐」, 1898년)

1904년 룩셈부르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답변으로 혁명가의 개입이 처한 세계적 틀을 개관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한 과정이다: 문명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은 그들의 의지를 모든 지배계급에 반대하여 그리고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지는 오직 현존하는 체제의 틀을 넘어서야만 만족할 수 있다. 대중은 이 의지를 현존하는 사회적 질서에 저항하는 일상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즉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 내에서 획득하고 강화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우리에게서 대중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 역사적 목표는 기존 사회 바깥에 위치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투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혁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운동이 자신의 길을 만들며 나갈 때 통과해 나가게 되는 변증법적 모순의 측면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자신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지그재그로 항해함으로써 가장 잘 나아갈 수 있다. 그 위험의 하나는 그 대중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는 종파의 상태로 되돌아 침몰할 위험이며, 다른 하나는 부르주아적인 사회개량 운동이 되어버릴 위험이다.” (룩셈부르크, ‘사회민주주의의 조직적 문제’, 1904년)

그러나 레닌의 대리주의적인 「무엇을 할 것인가」의 관점과 로자 룩셈부르크의 명확한 관점을 단순히 대조할 수는 없다. 나중에 레닌은 오류를 일부 정정했고, 룩셈부르크는 여전히 망설였기 때문이다. 레닌은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요지를 어느 정도는 ‘정정’했다. 1905년 계급의 구체적인 경험과 소비에트(평의회)의 등장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레닌 자신의 전투적인 활동으로 풍부해진 후기 저작에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테제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볼셰비키당은 계급의 방어적인 투쟁에 개입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외부 요인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능동적이고 필수적인 분파임을 주장했다.

### 3) 제2 인터내셔널의 배신과 ‘분파’의 출현

#### 가. 제2 인터내셔널의 배신과 붕괴

앞서 살펴본 대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등장하자 맑스주의 관점에서 강력한 비판이 가해졌다. 먼저 「독일사회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적 주장은 「독일사회민주당」의 1898년 슈투트가르트 대회 주요 의제로 상정되어 3일간의 치열한 토의 끝에 거부되었다. 비판에는 로자 룩셈부르크, 클라라 체트킨,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등이 앞장섰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인 사회변혁을 방기하고, 반대로 계급투쟁의 수단인 사회개량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주장은 1899년 하노버 대회에서도 패배했고, 1903년 드레스덴 대회에서도 패배했다. 당시만 해도 아직 맑스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독일사회민주당」에 제한되지 않았다. 국제적인 비판이 수년간 진행되었는데, 1904년 제2 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프랑스의 게드(Guesde)파가 드레스덴 결의 지지 안을 제출하여 이 안이 통과되었다.

일련의 「독일사회민주당」 결의와 제2 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의 결의로 수정주의와 이전부터 발생한 밀레랑주의(Millerandism; 부르주아 정권 입각주의)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배격되었다. 이로써 맑스주의가 수정주의를 격퇴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것으로 수정주의와 기회주의 경향이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수정주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출된 절충안, 아들러-반데르벨데((Victor Adler-Émile Vandervelde) 결의안이 21대 21대로 가결 직전까지 간 것에서 보이듯, 기회주의적 경향은 이미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강화되어 있었다. 당시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 인터내셔널의 수정주의 비판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이었는가는 수정주의자들이 조직에서 축출되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수정주의 비판은 혁명적 맑스주의의 재정립이 아니라 다분히 형식적인, 맑스주의의 정통교리로서의 위치 재확인으로 끝났다. 오히려 기회주의적 경향은 이후 10년간 더욱더 강화되어 갔다.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 인터내셔널의 우익기회주의자들, 특히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노동자의 상태는 자본주의하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였으며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궁극 목표’는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경향은, 점점 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더욱더 심각해졌다. 기회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말로는 제국주의적 전쟁에 반대하여 혁명적 태도를 보일 것을 중요 대회 때마다 반복하여 선언했지만, 실제 행동은 점점 더 제국주의 전쟁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1914년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기회주의자들은 전쟁에 찬성하는 사회국수주의자가 되어버렸고, 중도주의자들은 평화를 운운하며 사회국수주의자들의 행동을 용인했다. 소수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만이 전쟁에 대해 국제주의적 입장을 가졌을 뿐이다. 이것은 결국 제2 인터내셔널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다.

제1, 제2 인터내셔널 시기에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신들을 사회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불렀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민주의와는 다른 의미였다. 당시의 사회민주주의는, 제2 인터내셔널이 완전히 기회주의화하기 전까지의 맑스주의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생산수단의 사적 소유폐지, 생산수단의 국유화-사회화, 노동자 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의미했다. 오늘날 사용하는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자본의 좌파로서 개량주의를 의미한다.

## 나. 제2 인터내셔널 좌파‘분파’의 출현

19세기 동안 맑스와 엥겔스가 이룩한 거대한 이론적 성취의 상속자들은 제2 인터내셔널의 좌파였다. 20세기 초, 사회민주주의 좌파는 건강하게 제2 인터내셔널의 테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고 그 시기에 비추어 혁명가들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베른슈타인, 카우츠키와 그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투쟁과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사이의 분리에 집중되었다.

레닌은, 사회민주주의당의 일부로서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객관적인 조건을 보지 못했던 '멘셰비키에 반대하여' 맹렬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그는 대중정당이라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을 버렸다. 레닌에게 투쟁의 새로운 조건은 경제적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변환시킬 소수 전위 정당이 필요함을 의미했다.

로자 룩셈부르크 또한, 제2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적이고 반(反)혁명적 일탈에 대해 반대했다. 룩셈부르크는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의 통일을 주장했고, 방어적인 투쟁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최종적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 ▶ 러시아 볼셰비키 분파

제2 인터내셔널의 반동적 퇴행 속에서 최초로 진정한 좌파‘분파’가 출현했다. 최초의 분파는 ‘볼셰비키’ 분파인데,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대회 이후 처음에는 조직에 관한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는 러시아와 같은 반봉건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와 관련한 전술 문제를 놓고 기회주의에 대항한 투쟁을 벌였다. 1917년까지는 볼셰비키 분파와 멘셰비키 분파가 서로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긴 했어도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당, 즉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속해 있었다.

## ▶ 네덜란드 트리분 분파

네덜란드에서는 ‘트리분’을 중심으로 발전한 맑스주의 경향이 1907년부터 「네덜란드사회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비슷한 작업에 관여했다. 이 경향은 당내의 기회주의적 기류에 대항해 싸웠고, 1909년 3월 새로운 당, 「네덜란드사회민주당」을 결성하게 된다. 1918년 11월 사회민주당은 「네덜란드코뮤니스트당」이라는 당명을 (「독일코뮤니스트당」의 창립 이전에) 채택한다.

## ▶ 독일 스파르타쿠스동맹

제2 인터내셔널의 내부 분파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세 번째 경향은 「독일코뮤니스트당」을 창립하게 된다. 제국의회에서 사회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전쟁차관을 통과시킨 1914년 8월 4일 저녁, 국제주의자 투쟁가들은 당내에서 이러한 지도부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로자 룩셈부르크의 집에 모인다. 1914~1915년 겨울부터 불법전단지가 유포되었다. 불법이라는 조건 아래 탄압에 노출된 채, ‘스파르타쿠스그룹(Spartakusgruppe)’을 그다음엔 ‘스파르타쿠스동맹(Spartakusbund)’을 이름으로 채택한 극히 작은 그룹은 전쟁과 정부에 반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의 우파 기회주의자와 중도주의자에게 대항한 투쟁을 벌였다. 스파르타쿠스 멤버들은 혼자서는 아니었다. 다른 그룹, 특히 함부르크와 브레멘 좌파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의 멤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국제주의적 정책을 옹호했다. 이러한 다른 경향은 1918년 12월 31일, 「독일코뮤니스트당」의 창립 순간에 함께 결집하지만, 새로운 당의 근간을 이룬 것은 명백하게 스파르타쿠스동맹 멤버들이었다.

## ▶ 이탈리아 기권주의 분파

이탈리아에서는 좌파분파가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보다 약간 뒤늦게 형성되었다. 이 분파는 나폴리에서 보르디가와 그의 동지들이 1918년 12월부터 간행한 신문, 「소비에트」(Il Soviet)를 중심으로 한 ‘기권주의 분파(Abstentionist Fraction)’이었는데, 공식적으

로는 1919년 10월 「이탈리아사회당」의 당 대회에서 하나의 분파를 이루었다. 보르디가는 1912년에 이미 「청년사회주의자연합」과 「이탈리아사회당」의 「나폴리연합」 안에서 비타협적인 혁명적 경향에 생명을 불어넣었었다. 이탈리아 좌파의 형성이 지체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보르디가가 군대에 징집되어 1917년 이전에는 정치 생활에 개입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전쟁 동안에는 당의 지도부가 좌파의 손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1912년 「이탈리아사회당」 당 대회는 개량주의적 우파를 축출했고 1914년 대회는 프리메이슨들(인도주의적 박애주의자)을 축출했다.

「이탈리아사회당」의 신문 「아반티」(Avanti)는 무솔리니가 운영했는데, 그는 이 대회에서 축출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지위를 이용해서 1914년 10월 18일에 ‘절대적인 중립성에서 행동과 업무의 중립성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사설은 이탈리아가 협상의 편에서 전쟁에 가담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위에서 해직되었지만,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장래에 「프랑스코뮤니스트당」 지도자가 될 마르셀 카생(Marcel Cachin)의 기금으로 프랑스 정부와 협상에 친화적인 신문을 창간했다. 무솔리니는 그해 11월 29일 사회당에서 제명되었다. 그 뒤 세계대전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인해 좌파, 우파, 중도파로의 선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자 당은 우파와 좌파 사이, 즉 ‘맑스주의’ 입장과 ‘개량주의’ 입장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1917년 「이탈리아사회당」 로마 대회에서 우파와 좌파 사이의 대립이 굳어졌다. 우파는 17,000표를 좌파는 14,000표를 얻었다. 러시아혁명이 진행 중인 시점에 투라티(Turati), 트레베스(Treves), 모딜리아니(Modigliani)의 승리는 피렌체,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에서 비타협적이고 혁명적인 분파의 형성을 재촉했다.

**제2 인터내셔널의 당 내부에서 형성된 주요한 좌파분파의 활동은 퇴행하는 당 내부에서 혁명 원칙을 방어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원칙을 위해 당내 투사들을 결집하고 당으로부터 우파와 중도주의자의 입장들을 배제했고, 최종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당 자체를 새로운 혁명당으로 전환하려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좌파의 모든 경향이 실천적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당내에 남으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네덜란드 트리분 분파(호르터와 판네쿰은 조급함에 동의하지 않았지만)와 1917년 「독일사회민주당」으로부터 반대파가 축출된 뒤 (스파르타쿠스동맹과는 달리) 「독립사회민주당」에 가입하기를 거부했던 라텍, 판네쿰, 프뤼리히 주도 하의 ‘급진 좌파’였다. 배반한 옛 당으로부터 좌파의 분리는 제명을 통해서 또는 혁명 물결의 선봉이 될 새로운 당 건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좌파분파들이 당장 새로운 당을 건설할 수 있었던 역량은 오직, 낡은 당의 배반과 혁명 물결의 갑작스러운 출현 사이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그 뒤 상황은 상당히 달라진다.

## 4. 제3 인터내셔널

### -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한 좌파의 투쟁

#### 1)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와 좌파

제2 인터내셔널 내에서 레닌과 룩셈부르크는 20세기 초에 발생한 자본주의 시기 변화를 먼저 인식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정점에 다다랐으며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레닌이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제국주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다가올 유럽전쟁은 식민지 분할과 그 영향력을 둘러싼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세계전쟁이었다. 날이 갈수록 프롤레타리아 투쟁 원칙을 저버렸던 기회주의 진영에 맞서, 인터내셔널과 프롤레타리아트를 전투로 이끈 것은 제2 인터내셔널의 좌파였다. 이 투쟁의 중대한 순간에 1905년 러시아의 대대적 파업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낸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 전쟁을 대대적 파업, 프롤레타리아혁명과 연결했다.

1907년 제2 인터내셔널 슈투트가르트 대회가 열렸다. 좌파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제출한 대회의 중대한 수정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촉발한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민에게 일깨우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지배의 몰락을 서두를 의무가 있다.” (코민테른 1차 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경향과 그들의 베른대회에 대한 결의문」에서 인용)

1912년 제2 인터내셔널 바젤 대회는 유럽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전쟁 위협에 맞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코뮌의 혁명적 반란을 탄생시켰고, 러일전쟁이 러시아에서 혁명 세력을 움직였다는 것을 부르주아 정부들이 잊지 않게 하자. 노동계급의 눈으로 볼 때, 자본가의 이익, 왕조의 경쟁, 그리고 외교 협정의 남발을 위해 노동계급이 자신을 학살하는 것은 범죄다.” (같은 글)

1914년 8월 4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제2 인터내셔널의 주요 당들은 (특히 누구보다 기회주의의 수중에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은) ‘조국 방어’와 ‘외세 침략’에 맞서기 위한 부르주아지와 ‘신성한 동맹’을 요구하며 전쟁 채권

에 찬성표를 던졌다. 프랑스에서는 계급투쟁을 포기하면서 장관직을 보상으로 받기까지 했다. 그들은 카우츠키가 “계급투쟁은 평화 시기에만 가능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전쟁과 계급투쟁을 구분했을 때, '중도주의'로부터 이론적 지원을 받았다. 결국, 제2 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 때문에 균열이 시작되고 애국주의 홍수와 전쟁 광풍에 휩쓸려 깨어져 부끄럽게 수명을 다했다.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들은 인터내셔널 붕괴에 대해 슈투트가르트와 바젤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대회의 발언과 결의문 속에 담긴 가장 거룩한 선언,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공식 사회민주당의 다수가 명백하게 배신한 것으로 이해한다.” (「제2 인터내셔널의 몰락」, 레닌)

이러한 폭풍 속에서 소수만이 우뚝 섰다. 특히 폴란드,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의 당이 그랬다. 다른 곳에서는 고립된 혁명가들과 혁명 그룹이 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호르터, 판네쿱 주위의 네덜란드 '트리분 그룹'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계급투쟁에 충실했고 재조직화를 시도했다.

제2 인터내셔널의 죽음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심대한 패배였다. 이는 그들이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 수많은 혁명적 노동자들이 살육당했다.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는 그들의 국제 조직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당연히 재건해야 했다.

“제2 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에 패배해 죽었다. 기회주의자를 타도하자. 변절자뿐 아니라 기회주의로부터 해방된 제3 인터내셔널 만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정세와 임무」, 레닌, 1914. 1. 10)

## 2) 침머발트 좌파와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위한 투쟁

1915년 9월 5일에서 8일까지 중립국 스위스 침머발트에서 40여 명의 반전(反戰)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국제대회가 열렸다. 침머발트에서 대립하던 정치노선 사이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후 몇 년간 유럽 전역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제2 인터내셔널의 주요 정당이 각자의 '조국'에 대한 호전적인 제국주의 전쟁 목표를 지지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제2 인터내셔널이 사상누각처럼 붕괴한 것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흐른 뒤였다. 전쟁 전에 대다수가 수정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

에게 자본주의-세계 제국주의 전쟁은 사회주의의 객관적 조건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식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끌 맑스의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필요성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전쟁 직후에 새로운 인터내셔널에 관해 글을 썼던 트로츠키로부터 판네크, 롤랜드 홀스트, 호르터의 네덜란드 트리분 그룹은 제국주의, 세계대전, 사회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이 전쟁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태어날 용광로"라고 강조했다. 보르차르트 리히트스트랄렌(Borchardt's Lichtstrahlen) 그룹으로부터 분리한 독일 좌파, 요한 니프(Johan Knief) 주변의 브레멘 좌파와 폴 프롤리히, 그리고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사회민주당(또한, 로자 룩셈부르크와 요기세스의 당)은 전쟁이 발발하자 "프롤레타리아는 정부, 압제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혁명적 패전주의를 기초로 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조직하려 했다.

이 흐름 중 일부는 사회민주당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새로운 인터내셔널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 다른 사회주의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기를 들어 헤르만 호르터는 중요한 2년간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다른 이들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전쟁 이후, 또는 오히려 노동계급 투쟁이 끝난 후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 설립을 원하는 이들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발언할 권리에 도전할 뿐 아니라 국제 노동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 통일될 수 있는지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심지어 국제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제국주의)전쟁과의 전쟁'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레닌이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전쟁의 끔찍한 희생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먼저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부를 전복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는 파리 코뮌과 1905년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세계대전 자체가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주장했다. 노동계급이 자기 이익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해서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계속해서 사회주의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프롤레타리아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해야 한다. ... ” (『Golos 37/38』, 1914년 10월)

"현재의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일하게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이다. 코핀의 경험으로 알 수 있고 바젤 결의안(1912)에 의해서 윤곽을 드러냈고, 고도로 발달한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나온다. 내전으로의 전환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전쟁이 현실화하면 그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끈기 있고, 단호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길만이 프롤레타리아가 배외주의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곧 어떤 형태로든, 진정한 자유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 배외주의와 애국심에 맞서 단결한 노동자의 국제적인 우애여 영원하라!

기회주의로부터 벗어난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이여 영원하라." (「전쟁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1914년 10월 작성, 1914년 11월 출판)

스위스 망명 중에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투쟁을 했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에 망명 중인 볼셰비키 중 일부는 (한때 러시아 맑스주의의 주류로 여겼던 플레하노프가 지지하는 입장) 프랑스군에 자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1915년 초 해외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그룹 베른 회의에서 프랑스 볼셰비키 그룹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찬성하여 혁명적 패전주의에 대한 그의 요구를 반대했다.

인터내셔널 전선에서 임무는 본질에서 같았다. 전쟁 기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는 것(특히 인터내셔널은 평화 시기에 무기이지만, 전쟁 후에는 예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카우츠키의 말), 사회 평화를 파괴하고 노동자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할 세력을 결집하는 것, 즉 그는 노동자가 기존의 정부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초 노선으로 새로운 국제 행동의 기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1915년이 되자 전쟁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징후가 입증되었다. 독일에서는 계엄령을 무시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4월부터 러시아의 파업은 증가했고 더 정치적으로 되었다. 7월에 페트로그라드 볼셰비키는 전쟁 산업 위원회의 보이콧을 주도했는데, 이 위원회는 노동자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가 설립했다.

심지어 구(舊)인터내셔널의 수명이 다한 「국제사회주의서기국」도 '평화' 회의를 승인하는 쪽으로 끌려들어 갔다. 1월에 중립국의 사회민주당원들은 코펜하겐에서 만나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호소했다. 2월에 「영국독립노동당」은

하디(Keir Hardie)가 주재한 연합국의 '사회주의자' 대회를 개최하여 볼셰비키인 리트비노프(Litvinov)의 국제주의 선언 낭독을 막았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전쟁이 자본주의 사회,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쟁이 만들어 낸 대립의 결과물로서 모든 나라의 공동 책임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독일이 승리한다면 자유, 국가 독립, 그리고 조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명시했다.

연합국의 노동자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인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에 맞서 방어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을 정복 전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 결의안은 특히 벨기에의 복원, 폴란드의 자치나 독립, 그리고 민족자결을 바탕으로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에서 발칸에 이르는 유럽의 모든 국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4월에는 동맹국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민주당원 모임과 비슷한 만남을 비엔나에서 가졌고, 전쟁 후 관계를 주로 다루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회민주당이 전쟁에서 ‘그들 나라’의 역할과 관계없이 노동자 단체의 반전 회의를 제안하자, 「국제사회주의서기국」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어쨌든 밀고 나가기로 하고 계급투쟁의 기본을 고수하며 동시 행동을 통해 즉각적인 평화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자 단체의 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의미에서 침머발트는 쾰른 제2 인터내셔널의 임무를 벗어났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지노비에프가 다가오는 대회의 목적에 대해 “명확한 혁명 노선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구(舊)인터내셔널과의 분명한 단절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레닌은 혁명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했다. 대회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쟁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주제에 대한 좌파 사이의 집중적인 서신 교환과 토론이 있었다. 라텍과 레닌, 둘 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좌파 사회주의자의 참여를 조직했다. 네덜란드의 트리분 주변의 맑스주의 그룹이 연락을 취해왔다.

볼셰비키는 대표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독일어 팸플릿을 발행했다 ... 팸플릿에는 레닌과 지노비에프의 「사회주의와 전쟁」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와 베른대회 결의안 등이 들어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많은 좌파 동맹국들과 이견을 갖고 있던 민

족 문제에 관한 볼셰비키의 1913년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위한 레닌의 투쟁』, John Riddell, Monad Press)

이 마지막 주제(민족 문제)는 제3 인터내셔널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되지 않던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침머발트 대회를 앞두고 레닌은 다수에 양보해야 했다. 좌파가 제시할 성명서의 문구를 둘러싼 사전회의 토론에서 8명의 대표단 중 대다수는 레닌보다는 라텍의 초안을 선호했다. 최종본은 피억압, 억압 민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는 혁명적 패전주의의 무늬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다수에게 걸림돌이 아니었다. 좌파의 결의안은 거부되었다.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침머발트 선언은 주로 트로츠키가 초안을 작성한 타협의 결과였다. 그런데도 좌파는 문제시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으므로 서명했다. 1915년 9월, 레닌은 침머발트를 '첫 번째 단계'라고 묘사했다.

“모든 모순과 소심함에 대해 ... 그것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기회주의에 맞선 진정한 투쟁.” (레닌 저작집, 제 21권)

“두 번째 침머발트 대회(키엔탈)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 걸음 진전이다. ...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결의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제3 인터내셔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침머발트와 키엔탈 대회는 우리의 길이 올바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노비에프, 1916. 10. 6)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진전은 대부분의 국제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적인 좌파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침머발트를 떠나기 전에 그들은 레닌, 지노비에프와 라텍으로 구성된 「침머발트 좌파 서기국」을 설립했다. 1916년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레닌이 예측한 위기는 유럽 전역에서 첨예화되었다. 사회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침머발트 다수와 좌파 사이의 큰 차이는 균열이 되었다. 러시아에서 2월혁명이 일어난 후 레닌은 ‘침머발트의 높은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좌파로만 구성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을 즉시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17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유럽 전역에 혁명적 물결을 열어젖혔다.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위협은 제국주의 대학살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을 국제 부르주아지에 확인시켰다. 레닌의 슬로건은 현실이 되었다. 러시아 그리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트는 유명한 슈투트가르트 결의를 적용함으로써 제2인터내셔널 좌파의 명예를 드높였다.

1차 세계대전은 사회민주당의 의회주의적 우파를 부르주아지 진영으로 결정적으로 몰아



넣었다. 혁명적 물결은 중도주의 평화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에 맞서 싸우도록 했지만, 그들의 다수, 특히 카우츠키 같은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더는 인터내셔널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분리된 좌파들이 만든 새로운 당은 「코뮤니스트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혁명적 물결은 고무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당, 제3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요구했다. 1919년은 전후 혁명 물결의 최고정점이었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 총회의 입장은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가장 진보된 입장을 표현했다. 사회-애국주의적 반역자들과의 완전한 단절,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기가 요구되는 대중행동의 방법, 자본주의 국가의 파괴 및 노동자 소비에트의 국제적인 독재. 이러한 강령적 명확성은 혁명 물결의 거대한 기세를 반영했지만, 그것은 낡은 제2 인터내셔널 정당 내부 좌파혁명가들의 정치적 이론적 노력과 투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다.

침머발트 좌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터내셔널 창설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의 의의는 그것이 「국제코뮤니스트당」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침머발트 좌파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로 가기까지 너무 늦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1917년 10월 혁명 1년여 뒤, 그리고 베를린 프롤레타리아트가 겪은 첫 번째 패배로부터 두 달 뒤에 창설되었다. 그 뒤를 이은 여러 해 동안 국제 혁명의 물결은 패배하고 쇠퇴했으며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점 고립되었다. 이러한 고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퇴행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사태 때문에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고 퇴행을 거듭하던 끝에 사망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혁명가들에게 침머발트 좌파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국제 노동계급에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같은 국제혁명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19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노동계급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짓눌리고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이에 맞선 투쟁은 산발적이고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계급 역관계의 커다란 불균형 상태에서 계급투쟁의 정치적, 조직적 역할을 할 국제혁명당이 106년 전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 ● 연 보 ●

### 블라디미르 레닌

- 1870년 4월 10일;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레닌) 심비르스크에서 태어남.  
1886년 1월 12일; 아버지 사망.  
1887년 5월 8일; 형 알렉산더가 차르 암살 음모로 처형됨.  
1887년 8월 13일; 카잔 대학에 입학. 12월에 학생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퇴학당함.  
1888-89년 : 초기 러시아 혁명가들의 문헌 연구, 법학 공부 시작. 카잔과 사마라에 거주.  
1892년 7월 23일; 변호사 자격 취득.  
1893년(23세); 맑스주의 연구 그룹에서 활동 시작. 8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  
1895년; 유럽과 망명한 러시아 혁명가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여행.  
1895년; 불법신문 <라보체 델로>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12월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포됨.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설립됨. 블라디미르 일리치 회원.  
1896년; 일 년 내내 당국에 의해 구금됨.  
1897년 1월 29일; 시베리아의 슈센스코예로 추방됨.  
1898년 3월(28세); 민스크에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RSDLP) 창립대회 개최.  
1898년 7월 10일; 블라디미르 일리치와 N.K. 크롭스카야 결혼.  
1899년 3월 24~31일;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출판.  
1900년 1월 29일; 시베리아 망명 생활 종료. 프스코프에 정착.  
1900년 7월 16일; 출판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떠남. 9월 뮌헨에 정착.  
1900년 12월 11일; <이스크라> 창간호 발행.  
1901년 5월; 크롭스카야, 우파(ufa)에서의 망명을 마치고 해외에서 블라디미르 일리치와 재회.  
1901년 12월(31세); 처음으로 '레닌'이라는 가명을 사용함.  
1902년 3월; 『무엇을 할 것인가』 출판.  
1903년 4월; 제네바에서 잠시 거주한 후 런던으로 이사.  
1903년 7월 17일~8월 10일; 제2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대회.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분파로 분열.  
레닌, 이스크라에서 분리됨.  
1905년 1월; 레닌, 새로운 신문 <비페로드>를 발행하기 시작.  
1905년 1월 9일(35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피의 일요일. 1905년 혁명 시작.  
1905년 4월 12~27일; 제3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대회. 멘셰비키는 참석하지 않음.  
1905년 6월~7월;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작성.  
1905년 11월; 정부가 정치 망명자와 수감자들을 사면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옴.  
1906년 4월 10~25일; 제4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대회. 멘셰비키 참가. 레닌, 의장으로 선출됨.  
1907년 1월; 보안을 위해 핀란드로 이주.  
1907년 8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슈투트가르트 대회. 레닌 참석.  
1908년 1월 7일; 제네바에 정착.  
1908년 10월;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완성.  
1908년 11월; 파리로 이사.  
1908년 12월 21~27일; 제5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대회. 레닌, 다시 의장으로 선출됨.

1909년 봄; 이네사 아르망 만남.  
 1910년 8월; 이탈리아에서 작가 막심 고리키를 만남. 제2차 국제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  
 1911년 여름; 파리 근처의 당 학교를 지휘함.  
 1912년 1월 5~17일; 프라하 회의. 볼셰비키가 사실상의 자치 정당으로 자리 잡음.  
 1912년 4월; 러시아에서 『프라우다』 창간호 발행.  
 1914년 7월 18일(44세);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제1차 세계대전 시작.  
 1914년 8월; 러시아를 떠나 스위스 베른으로 이민을 떠남.  
 1915년 8월 23~26일; 반전(反戰) 사회주의자들의 '침머발트 대회' 개최. 레닌 참가.  
 1916년 1월~6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제국주의』 집필.  
 1916년 2월; 취리히로 이사.  
 1916년 4월 11~17일; 키엔탈에서 두 번째 '침머발트 대회' 개최. 레닌 참가.  
 1917년 2월 27일; 차르 니콜라스 2세 퇴위. 러시아 임시정부 구성.  
 1917년 4월 3일(47세); 레닌 일행이 밀폐된 열차를 타고 독일을 거쳐 페트로그라드에 도착.  
 1917년 4월 4일; 임시정부 전복을 촉구하고 볼셰비키 전술을 재정의한 <4월 테제> 발표.  
 1917년 4월; 페트로그라드에서 제7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전국협의회 개최. 레닌, 중요 역할 맡음.  
 1917년 5월 21일~6월 1일; 제1차 전 러시아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대회.  
 1917년 7월; "7월의 날들"로 알려진 봉기.  
 1917년 7월; 강제 은신, 핀란드로 탈출.  
 1917년 7월 26일~8월 3일; 제6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대회. 레닌, 지하에서 대회를 이끌며 가장 중요한 결의안 초안 작성 참여. 대회는 만장일치로 레닌을 명예 의장으로 선출.  
 1917년 9월; 새로운 봉기를 주장.  
 1917년 10월; 비밀리에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와 당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란 추진.  
 1917년 10월 25일; 레닌을 의장으로 하는 소비에트 정부 구성.  
 1918년 1월 16일; 제헌의회 해산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독일과의 적대 관계 종식.  
 1918년 3월 10일; 레닌과 소비에트 정부 모스크바로 이주.  
 1918년 3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당명을 러시아코뮤니스트당(볼셰비키)으로 공식 변경.  
 1918년 8월 30일; 패니 카플란이 레닌 암살 시도. 레닌 부상.  
 1919년 3월 2~6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제3 인터내셔널) 창립.  
 1920년 10월; 이네사 아르망 사망.  
 1921년 2월 23일~3월 17일; 크론슈타트 봉기.  
 1921년 3월 17일; 제10차 러시아코뮤니스트당 대회. 신경제정책(NEP) 시작.  
 1922년 5월 26일(52세); 첫 번째 뇌졸중 발병.  
 1922년 11월 20일; 마지막 대중 연설.  
 1922년 12월 15일; 두 번째 뇌졸중 발병.  
 1922년 12월 24일; 정치국에서 레닌을 격리할 것을 명령함.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공식 출범.  
 1922년 12월-23년 1월; 유언으로 알려진 여러 편의 편지를 작성.  
 1923년 3월 2일; 소비에트 정부 조직 개편과 규모 축소에 관한 마지막 문서 '더 적을수록 좋다' 작성.  
 1923년 3월 9일; 세 번째 뇌졸중 발병. 더는 말을 할 수 없게 됨.  
 1923년 5월 12일; 고리키의 당 요양소로 옮겨짐.  
 1924년 1월 21일(54세); 네 번째 뇌졸중으로 사망.

## 로자 룩셈부르크

- 1871년 3월 5일; 러시아령 폴란드 자모치에서 태어남.  
1873년; 바르샤바로 이주.  
1886년(15세); 유대인 혁명 그룹과 폴란드 프롤레타리아당에 가입.  
1888년; 폴란드 여권 발급받음. 차르 경찰을 피해 독일-폴란드 국경을 넘어 도주.  
1889년; 스위스 취리히로 이주.  
1890년; 취리히대학 철학부에 등록. 레오 요기헤스 만남.  
1892년 7월; 폴란드 사회민주주의 잡지 〈노동자 문제〉 창간.  
1893년(22세); 요기헤스와 함께 폴란드사회민주당(SDKP) 결성.  
1894년 3월;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사회민주당 최초의 비합법 당 대회 개최.  
1896년 7월; 파리에서 사회주의 지도자들과 만남, 런던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대회 참가.  
1897년; 박사학위 취득.  
1898년 4월; 바젤에서 구스타프 뢰베크와 위장 결혼(독일 시민권 취득). 독일사회민주당 입당.  
9월; 드레스덴의 〈작센 노동자 신문〉 주간으로 임명되지만, 11월 사임.  
1900년; 프로이센 폴란드사회주의당 대회 참석. 마인츠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대회 참석.  
「혁명이나, 개량이나」 발간  
1901년 9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와 뢰베크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대회 참석.  
10월; 〈라이프치히 인민일보〉 주필 사망으로 프란츠 메링과 공동주필로 임명됨.  
1902년 9월; 뮌헨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대회 참석.  
10월; 〈라이프치히 인민일보〉와 모든 공동작업 중단.  
1903년; 뢰베크와 이혼. 「맑스주의의 침전과 진전」 발간  
1904년 1월(33세); 츠비카우에서 황제 모독죄로 3개월형 선고받음.  
8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대회 참석, 같은 달 츠비카우 형무소 수감.  
1905년; 「러시아혁명」 발간, 〈진진〉 편집위원으로 활동.  
1906년 3월; 체포됨.  
4월; 바르샤바 요새의 감옥으로 이송.  
8월; 보석금 예치 후 석방. 「대대적 파업, 당, 그리고 노동조합」 발간  
12월; 공공 평화 위협 혐의로 2개월 징역형 선고받음.  
1907년 8월;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대회 참석.  
1908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대회 참석.  
1910년 8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대회 참석.  
1911년 9월; 예나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대회 참석.  
1912년 11월; 바젤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임시대회 참석.  
1913년; 「자본의 축적」 발간, 예나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대회 참석.  
1914년 2월(43세); 법률 110조 위반으로 1년형 선고받음.  
3월; 프라이부르크 연설.  
7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본부 회의에 참석 후 국제 반전대회에 참석.  
1915년 2월; 체포, 베를린 바르님가 여자형무소에 수감. 「자본의 축적: 반비판」 발간

1916년 2월; 석방, '유니우스'라는 가명으로 「유니우스 팸플릿(독일사회민주당의 위기)」 발간.  
 7월; 보호수감 명목으로 체포, 재수감, 베를린 경찰국에서 바르님가 여자형무소 이감.  
 10월; 포젠 지방의 론케 요새로 이송.  
 1917년 8월; 브로추아프 형무소로 이송.  
 1918년 2월; 건강상의 이유로 출옥 신청, 거절당함.  
 11월; 독일혁명으로 출옥. 「러시아혁명」 발간.  
 11월; <붉은 깃발>지로부터 추방당함.  
 12월; 스파르타쿠스동맹 강령 발표, 독립사회민주당(LSPD) 대베를린 지역 총회 연설,  
 독일코뮤니스트당(KPD) 창당대회 참석. 「스파르타쿠스동맹은 무엇을 원하는가」 발간.  
 1919년 1월; 「질서가 베를린을 지배한다」 집필(마지막)  
 1월 15일(48세); 체포된 후 이송 도중 살해당함. 시신은 국경 운하에 수장됨.  
 1월 1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추모행사가 열림.  
 1월 25일; 베를린의 프리드리히스펠트 묘지에 빈 관이 안장됨.  
 2월; 장례식 거행.  
 5월; 떠내려온 시신이 수문에서 인양되어 6월 프리드리히스펠트 묘지에 안장됨.



1871. 8. 13 ~ 1919. 1. 15



1871. 3. 5 ~ 1919. 1. 15



1870. 4. 22 ~ 1924. 1. 21



## 5. 제3 인터내셔널의 타락과 반(反)혁명에

###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 1)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창설

##### 가. 106년 전 혁명적 사건

106년 전인 1919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밖의 여러 나라에서 40개가 넘는 정치단체 소속 52명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였다. 5일 동안의 대회는 코민테른으로 약칭하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로 알려진 제3 인터내셔널의 창립총회가 되었다. 이 사건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발전에 핵심점**이 되었다.

총회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을 한 역사적 순간에 열렸다. 레닌은 총회 이후 3월 말에 녹음한 축음기 음성을 통해 ‘혁명적 낙관주의’로 제3 인터내셔널의 전망을 밝혔다.

"오늘날 자본의 명예를 벗어던지는 대의에 충실한 노동자들은 자신을 '코뮤니스트'라고 부릅니다. (...) 곧 우리는 전 세계에서 코뮤니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기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3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레닌, FTCL, 316쪽)

이어 4월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세계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류는 자본주의 또는 임금 노예라는 마지막 형태의 노예 제도를 폐기할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서 스스로 해방됨으로써 인간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3 인터내셔널과 역사의 장소」, 레닌, 같은책 33쪽)

이처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창설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혁명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하지만 전체 자본가계급과 하수인들에게는 불쾌한 기억이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말 혁명적 물결은 그들에게 공포와 악몽이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 참호에서의 반란, 독일에서 빌헬름 황제의 퇴위와 노동계급의 반란과 폭동에 직면한 휴전 서명, 그리고 독일 노동자 봉기, 러시아 노선에 따른 바이에른과 헝가리에서의 노동자평의회 공화국 건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대중의 파업,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개입을 거부한 몇몇 영국 군대뿐만 아니라 프랑스 함대와 군대의 반란 등이 그것이다.

별써 106년 전의 일이지만, 코민테른 창설은 1917년으로부터 적어도 1923년 말까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그리고 북아메리카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전 세계의 혁명 물결에서 정점이었다. 이러한 혁명 물결은 세계를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분할로 이끈 1차 세계대전, 4년간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응답이었다.

“코민테른은 각기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2천만 명을 희생시킨 1914~18년의 제국주의 전쟁이 끝난 후 만들어졌다. ‘제국주의 전쟁을 기억하라’ 이 말은 코민테른이 모든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게 한 첫 번째 말이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로 말하든지 그들에게 한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줌의 제국주의자들이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기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서로 죽이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부르주아지의 전쟁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공할 기근과 가장 소름 끼치는 참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기억하라.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는 이러한 강도 같은 전쟁의 반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함을 기억하라” (2차 대회에서 채택한 코민테른의 문건, 제인 데그라스,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그런데 이러한 계급투쟁의 역사에는 프롤레타리아 운동 내부의 커다란 분열과 전환점이 있었다. 바로 세계대전 시기 제국주의 전쟁을 대하는 사회주의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와 그에 따른 결과이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과 1917년 러시아혁명은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사회혁명의 세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맑스주의의 전망을 확인했고, 프롤레타리아 운동 내부에서 근본적인 분열을 촉진했다. 당시 제2 인터내셔널의 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전 맑스의 저술까지 환기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했고, 러시아는 여전히 부르주아 발전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0월 혁명을 비난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부르주아의 진영으로 들어갔고,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신병모집과 1918년 반(反)혁명의 경찰견이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한 사회주의 조직들이 처음으로 서로 적대적인 편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계급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위선적인 선언이나 정당의 간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 제국주의 대학살 동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깃발을 홀로 나부끼게 한 것도,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수호로 다시 모인 것도, 전쟁 시 수많은 나라에서 발생했던 파업과 봉기를 주도한 것도 모두 제2 인터내셔널 내부의 좌파 흐름이었다. 그리고 1919년 창설된 새로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핵심을 제공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 나. 코민테른의 창립 : 제2 인터내셔널과의 연속성, 그리고 단절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채택한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이미 죽은 제2 인터내셔널 당의 우파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1919년 3월에 창립되었다. 그러나 제2 인터내셔널의 원칙과 그 공헌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에 생명을 다한 공식적 사회주의당의 냉담, 거짓 그리고 부패를 쓸어버리면서, 우리 코뮤니스트들은 제3 인터내셔널에서 하나가 되어 바뵈프(Babeuf)로부터 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로 기다랗게 이어지는 혁명 세대들의 영웅적 노력과 순교의 직접적 계승자라고 우리를 생각한다.

제1 인터내셔널이 발전의 미래 경로를 미리 비추고 그 도정을 가리켰다면, 그리고 제2 인터내셔널이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모으고 조직했다면, 제3 인터내셔널은 열린 대중행동의 인터내셔널이고 혁명적 실현의 인터내셔널이며, 행위(실천)의 인터내셔널이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선언문,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5년」, 뉴파크 편집부)

코민테른의 기반을 이룬 흐름, 분파, 전통 그리고 입장은 **제2 인터내셔널의 좌파가 발전시키고 방어한 것들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발전시킨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역사적 대열로부터 선발해 재편한 그룹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음을 우리의 경험은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그룹만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한 선진적 강령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빌랑」, 1936년 8월, 34호, 1128쪽)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안톤 판네쿵 같은 개인은 물론이고 볼셰비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좌파 같은 사회민주당의 그룹과 분파를 보더라도, **제2 인터내셔널, 침머발트 좌파와 제3 인터내셔널의 좌파 사이에는 정치적이고 유기적인 연속성이 있다.** 코민테른의 첫 번째 대회는 제2 인터내셔널의 부분이었던 「러시아 코뮤니스트당」(볼셰비키: 이전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 볼셰비키)과 「독일 코뮤니스트당」(이전의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주도로 소집되었다. 볼셰비키는 침머발트 좌파의 주도 세력이었다. 침머발트 좌파는 제2 인터내셔널과 제3 인터내셔널 사이의 진정한 유기적·정치적 연결고리였는데, 그들은 제2 인터내셔널의 좌익으로서 과거에 벌였던 투쟁을 평가하면서 그 시대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립했다.

“침머발트와 키엔탈 대회는 제국주의 살육에 항의하기 위해, 결의가 있는 모든 프롤레타리아 세력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열린 매우 중요한 대회였다. (...) 침머발트 그룹은 자기 전성기를 가졌다. 침머발트에 모인 진실로 혁명적인 세력은 모두 더 전진해 코민테른에 합류한다.” (침머발트 대회 참가자 선언)

이렇게 코민테른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고, 그 강령과 정치적 원칙도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물론 두 인터내셔널 사이에는 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도 있었다. 그 단절은 코민테른의 정치 강령과 정치적 입장에, 그리고 '세계 코뮤니스트당'으로서의 조직적이고 전투적인 실천 속에 구체화했다. 사실 단절은 물리적인 유혈 탄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제2 인터내셔널의 성원인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참여한 케렌스키 정부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와 볼셰비키를 억압하고, 독일에서는 노스케-샤히트만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당을 억압해서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속성 속의 단절'을 인식해야만 1920년대의 코민테른의 퇴행과 그 내부의 투쟁, 그리고 1930년대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코뮤니스트좌파의 외부투쟁과 그들 세력의 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코뮤니스트좌파가 방어하는 입장은 이런 좌파들이 코뮤니스트 원칙을 지키고, 코민테른 및 1917~23년의 혁명적 물결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했던 노력의 산물이었다.

1919년 1월 말 트로츠키는 코민테른 창립대회의 초대장을 썼다. 그 대회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채택할 정치 강령의 원칙을 결정했다. 사실 이 편지는 '코민테른 강령'의 제안이고, 그를 잘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개의 주요 코뮤니스트당의 강령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의견으로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여기서 강령으로 제시했고, 「독일 스파르타쿠스동맹」과 「러시아 코뮤니스트당」(볼셰비키)의 강령에 기초해서 구성된 다음의 제안에 기초해야만 한다.”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데그라스, 앞글)

사실 「스파르타쿠스동맹」은 1918년 12월 29일 「독일 코뮤니스트당」이 창설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919년 1월 베를린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끔찍한 탄압기 동안에,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를 죽여 「독일 코뮤니스트당」은 두 명의 주요 지도자를 잃었다. 이처럼 코민테른은 창립 순간에 바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첫 번째 패배의 고통을 겪었다. 창립 두 달 전 코민테른은 그 명성, 힘 그리고 이론적 능력에서 레닌과 트로츠키에 필적할 두 명의 지도자를 잃었다. 지난 세기말 자신의 저작에서 코민테른의 정치 강령의 기초가 될 핵심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사람은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오늘날 인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혼돈 속에서 멸망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에서 구원을 발견하느냐” (‘독일 코뮤니스트당 창립대회에서 강령에 대한 연설’, 로자 룩셈부르크, 멀린프레스)

이러한 입장은 코민테른에서 강력하게 재확인되었다.

“현시대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지닌 자본주의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유럽 문명의 전체를 끌어내릴, 전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몰락과 해체의 시대이다.” (초청장,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데그라스, 앞글)

“새로운 시대가 태어난다! 자본주의 소멸과 내부 해체의 시대! 프롤레타리아트의 코뮤니스트혁명의 시대!” (「코민테른 강령」)

제국주의 전쟁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삶과 투쟁의 새로운 조건을 의미했다. 1905년 러시아 대대적 파업(대중파업), 그리고 노동대중 단일조직의 새로운 형태인 소비에트가 최초로 등장했다. 룩셈부르크의 저작 「대대적 파업, 당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대중운동의 본질적 교훈을 끌어냈다. 룩셈부르크와 함께 모든 좌파는 제2 인터내셔널 내에서 대대적 파업에 대한 논쟁을 이끌었으며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에 맞서서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 진화라는 그들의 전망에 맞서서 정치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적 실천과 결별하면서 코민테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기본적인 투쟁방법은 자본의 정치 권력에 맞서 공개적인 무장투쟁으로 나아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행동이다” (초청장,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데그라스, 앞글)

코민테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국가에 대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이다. 사회민주주의의 '개량주의'와 결별하고 파리코뮌과 1905년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자평의회로 권력을 행사한 1917년 10월혁명의 역사적 경험의 교훈과 맑스주의 방법을 새롭게 함으로써, 코민테른은 스스로 명쾌하게 그리고 어떠한 모호함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노동자평의회 안에 조직된 노동대중의 독재를 선언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지금 즉각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장악은 부르주아지의 국가기구 파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권력 기구의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 기구는 노동계급의 독재를 구현해야 하고 몇몇 곳에서는 농촌의 반(半)프롤레타리아트, 빈민의 독재를 구현해야 한다. (...) 소비에트 및 그와 비슷한

기구의 권력을 통해 그 구체적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자본의 즉각적 전유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국가 재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렛대여야 한다.” (초청장,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데그라스, 앞글 )

이 문제는 레닌이 제안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테제'를 채택했던 창립대회에서 본질적인 문제였다. 이 테제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그릇된 대립을 비난하면서 시작한다.

“출판의 자유는 ‘순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대표적 슬로건이다. 여기에서도 또 가장 좋은 인쇄소와 막대한 종이 더미를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는 한, 또 자본이 신문·잡지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 권력은 세계에서, 보기를 들어 미국처럼 민주주의와 공화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명확하게, 더 첨예하게, 더 냉소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조건이 계속되는 한 이 자유가 기만이라는 것을 (...) 노동자는 알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참된 평등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문필가를 고용하거나 출판소를 사들이거나 신문을 매수할 가능성을 자본으로부터 박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의 멍에를 뒤집어버리고, 착취자를 타도하고 그들의 반항을 분쇄할 필요가 있다.” (테제,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데그라스, 앞글)

전쟁과 혁명을 경험한 후 카우츠키주의자들이 한 것처럼 순수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방어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는 범죄라고 「테제」는 계속 말한다. 각기 다른 제국주의와 소수 자본가의 이해 때문에 수백만의 인민이 참호에서 학살당했고 '부르주아지의 군사독재'는 민주적이든 아니든 모든 나라에 세워졌다.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체포하고 투옥한 것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그들을 학살했다.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착취자를 압도하고, 그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완전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유일한 방위수단으로서 노동대중 전체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다른 계급의 독재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 이를 포함한다. 즉 (...)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착취자 즉 주민 중에서 극소수인 대지주와 자본가의 반항을 무력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

사실, 이미 실제로 창출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여러 형태, 즉 러시아 소비에트 권력, 독일의 노동자평의회, 직장위원회,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소비에트 제도, 이 모두는 다름 아닌 노동계급, 즉 주민 대다수에게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조차 전혀 보장할 수 없었던, 그와 유사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적 권리와 자유가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권력의 폐지는 맑스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주의자의 목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소비에트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만이 실제로 이 목표로 나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노동인민의 대중조직을 국가행정에 지속적이고 제한 없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국가도 완전히 소멸시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제, 「코민테른 1919-43: 문헌집」, 데그라스, 앞글)

국가의 문제는 혁명적 물결이 유럽을 휩쓸고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지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내전을 벌일 때, 그리고 자본과 노동,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적대감이 극에 달할 때 중요한 문제였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혁명의 확장, 즉 소비에트 권력을 유럽에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혁명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것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와 혁명적 물결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에 맞설 것인가의 문제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편에 선다는 것은 코민테른에 가입해 사회민주주의와는 체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반대는 부르주아 국가를 방어하고 결정적으로 반(反)혁명 진영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중도주의 흐름에는 그것이 단절과 소멸을 뜻했다. **혁명 시기는 ‘중도 기반’의 애매한 정책을 가질 어떤 틈도 남겨두지 않았다.**

## 2)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코뮤니스트좌파

### 가. 코민테른과 암스테르담 사무국

1919년 3월 코민테른 창설에 따라 유럽 코뮤니스트 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네덜란드의 판네쿱과 독일의 브레멘 좌파는 코민테른의 가장 열성적 옹호자들이었지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승리로 코민테른은 러시아의 주도 아래 결성되었다. 새로운 세계혁명운동의 성격에 대한 판네쿱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1917 레닌 저작 중) 네덜란드와 브레멘 좌파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코민테른의 초기 몇 달 동안,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 의사소통의 혼란으로 서유럽의 의미 있는 참가는 배제되었다. 서유럽을 참가시키는 문제는 처음 실제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했는데, 즉 베를린에 서유럽 서기국을 두고, 암스테르담에는 서유럽 사무국을 두도록 결정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은 1920년 1월 국제대회를 암스테르담에서 조직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대회는 많은 사람에 의해 코민테른 대회와 동급으로도 비추어졌다. 1920년 2월 개최된 국제대회는 사무국 활동의 중대 사건이었으며, 사실상 **최초로 서유럽 인터내셔널로 복무하고자 했다**. 국제대회에서는 네덜란드 대표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최소한 12개국에서 참가하여 코민테른 창설 시보다 더 많은 대표가 참여했다. 국제대회는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고, 경찰에 일찍 해산되었지만, 서유럽 코뮤니즘 개념의 특수성을 최초로 확정했던 의미가 있었다.

국제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은 의회주의, 조합주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조직화 원칙으로 노동자평의회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판네쿱이 초안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였으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코민테른 정책에 도전하는 성격이었다. 판네쿱은 (이때, 그는 거의 즉각적으로 사무국의 '정신적 지도자'로 등장) 노조운동에 대한 테제에서도 동일하게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구에서 노조는 단지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반하여 배치된, 자본주의적 권력 체제의 기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 운동은 '가능한 모든 힘'을 가지고 노조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는 기존 노조 내에 '혁명적 반대파'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실제적 과제는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 연맹」(IWW), 독일의 「노동자연합」(workers' unions)과 같이 '새로운 정신에 추동된 새로운 조직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의회주의, 노조운동에 대한 암스테르담 사무국의 반감, 그리고 (코민테른에 소속된) 각

당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코민테른 지도력과 네덜란드 좌파 사이의 전망에서 주된 차이를 보여주었던 첫 공개적인 징후였다. 볼셰비키와 네덜란드 좌파 사이의 심각한 차이점은 침머발트 운동 시기까지 올라가지만, 양 당파의 차이는 혁명적 분위기 속에 얼버무려져 있었다. 이후 몇 달 동안 판네쿵, 호르터, 홀스트 등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글들을 집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처음에 볼셰비키와 코민테른 모두 의회주의 전술을 거부한다고 보고 그것을 당연시했다.** 이 같은 가정은 번역된 레닌의 몇몇 저작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판네쿵에 대한 찬사를 담은 「국가와 혁명」, 코민테른 초기 문건 등). 하지만 **볼셰비키 이론과 실천은, 혁명가들이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해, 부르주아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가 자체를 허물기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랜 기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의 공격적인 전투성, 독립적 전망은 (자체 하위 사무국으로) 전미(全美) 임시 사무국을 조직화하려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미 사무국 지부는 미국 코뮤니스트 운동 내 분파적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여,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더욱 대담한 행보는 사무국이 베를린 서기국을 격하시켰던 것인데 즉, **암스테르담 사무국은 베를린 서기국을 한 부문으로 만들고 그 의무를 재할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무국은 모스크바에서 창설, 조직한 지부를 대담하게도 일격에 복속시키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바는, **암스테르담 사무국이 자신을 중앙권위(코민테른)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 유럽 혁명을 위한 주(主)혁명 센터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무국의 독립적인 혁명적 전망은 많은 부분 서유럽에 특수한 코뮤니즘 개념화의 반영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암스테르담과 모스크바 사이의 소통 부재에 의해 크게 조장된 것이기도 했다. 사무국이 1920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텃거스(레닌이 임명)가 정기적 소통 수단을 갖추게 되는 4월 말까지, 사무국-모스크바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다. 하지만, 소통수단을 갖추게 된 시점에 사무국의 정책과 활동은 모스크바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코민테른 지도부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곤혹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분열 점은 사무국이 새롭게 형성된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코민테른 지도부의 반응은 신속했고 단호했다. 4월 30일 **모스크바 방송은 사무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베를린 서기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한다.** 그 결정은 협의와 호소의 기회 없이 내려진 것이었다. **이 조치로 서구 코뮤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코뮤니스트 센터를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 나. 레닌 대 판네크, 호르터

레닌의 「좌익 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가 출간되기 전까지, 코뮤니스트좌파는 코민테른에 배척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서구에서 레닌주의 성격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판네크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레닌이라는 이름은 세계혁명, 비타협적 계급투쟁, 전투적 반(反)의회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판네크는 (코민테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반대를 예견했다 할지라도) 코뮤니스트좌파가 세계혁명의 옹호자인 레닌과 확고한 제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속 확신했다. 판네크는 코민테른 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희망으로 「세계혁명과 코뮤니스트 전술」로 제목을 단 소책자를 작성했다. 그 문건은 즉각 코뮤니스트좌파의 기본 문서가 되었다.

판네크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에 걸맞은 혁명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론, 경제, 사회, 역사적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판네크는 혁명의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이고 선차적인 것은 혁명적인 자기-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정화(淨化) 행동이라고 보았다. 판네크는 혁명적 실천의 동유럽적 형태와 서유럽적 형태를 구분했다. 동유럽에서 전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집합적 지향의 농촌사회와 문화의 지배이며, 서유럽 노동자들과 달리 러시아, 아시아의 대중은 부르주아 문화, 전통의 (노동계급에 대한) 무력화 효과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 사회의 내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며, 마을 공동체주의의 오랜 전통 때문에 농민은 원시적이고, 열린 태도로 코뮤니스트와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서구에서는 오랜 부르주아 문명화가 대중의 사고와 감성에 철저히 침투했다는 것이다. 독일혁명에서 그것은 특히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본 판네크는 서유럽에서 주된 전술적 문제는 혁명적 투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정신적 미성숙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공리처럼 여겼다. 그는 서유럽의 낮은 수준의 노동계급 의식, 늦은 혁명적 발전에 따라 두 가지 갈등하는 전술적 경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급진적 경향과 기회주의 경향. ‘코뮤니스트적 기회주의’로 이름 붙인 경향의 주된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판네크는 방법론적, 사회학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프롤레타리아 의식에 대한 판네크의 강조는 그가 사회민주주의의 대중정당, 러시아 볼셰비즘의 엘리트주의적 전위 양자 모두를 거부하게 했다.

판네크는 정당 조직화의 (코민테른이 옹호하는) 전위주의적 모델이 어떤 점에서 혁명적 발전의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통일된 노동계급의 적극적 이해와 개입이 없는 권력 장악 시도는 혁명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그 같은 접근은 사회주의의 바로 핵심(대중 자신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직화)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판네크는 서유럽의 전술적 선택을 개관하면서, 코뮤니스트좌파와 생디칼리즘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주력 했는데, 양자의 주된 분기점은 사회의 구조, 상부구조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었다. 생디칼리즘의 근본적인 목표는 노조 관료와 기존 국가기구의 급진적 분파에 기반을 둔 정부, 코뮤니스트좌파와는 달리 생디칼리스트는 사회의 지적, 문화적 영역을 부르주아에게 남겨주는 것에도 만족하고, 생디칼주의적 정부는 자본주의 질서의 물질적, 정신적 요인들을 분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후 자본가 재그룹화의 가능성을 남긴다고 보았다.

판네크와 코민테른의 러시아 지도부 사이의 차이는 깊고 실질적인 이데올로기적 분기를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러시아혁명이 갖는 세계변혁의 중요성을 믿었다. 러시아혁명은 러시아 대중의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발화시켰고, 그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네크는 러시아혁명이 유럽 혁명과 서구 자본에 대한 아시아의 대규모 반란을 가져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같은 평가는 러시아혁명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덜 강조하면서, 민족해방운동으로서 그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판네크가 이 같은 주장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레닌은 코민테른 2차 대회를 준비하면서 코뮤니스트좌파를 비판하는 자신의 전략적 분석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였다. ‘레닌 저작 중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묘사되듯, 그 저작은 거의 즉각적으로 코뮤니스트 전략, 전술의 정초를 이루었다. 레닌은 서유럽에서 늦은 혁명 진척에 따라 세계 코뮤니스트 운동을 향한 단축 시기가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장기적 싸움이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코뮤니스트는 가장 반동적 제도라 할지라도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들어가서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조와 의회 속으로’는 좌익주의의 ‘유아적 무질서’에 대한 레닌의 처방이었다. 노조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오직 후진 노동자를 그들의 반동적 지도자의 영향 아래 남겨두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레닌은 대중조직에 침투하는 예외적인 수단을 요구한다. 레닌은 논쟁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볼셰비키의 경험을 혁명의 보편적 모델로 일반화하고, 특히 절대적 집중화와 강력한 규율이 부르주아지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레닌은 신랄한 언어를 동원하여 네덜란드와 독일 좌파의 전술적 책략의 부재를 비난했다. 특히 판네크의 이론적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견실한, 그리고 특별히 우둔한’ 것으로 지적했다. 레닌은 당 조직화의 전위모델을 좌파가 부정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이해 앞에 프롤레타리아트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독일 입장은 불법이 불필요했던 국가에서 태어난 ‘불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말한 뒤, 그들은 대중

들의 정당이 아닌 씨클, 즉, 지식인주의의 가장 나쁜 측면을 닮은 지식인, 소수 노동자의 그룹'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판네크는 「세계혁명과 코뮤니스트 전술」에 실은 짧은 후기를 통해 레닌의 주장과 비난에 대응했다. 그는 레닌 정식은 독창성과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것이 레닌이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과제는 레닌의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주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레닌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통적인 의회주의, 노조운동 전술에 대한 레닌의 방어는 민족국가로서 소련의 역할, 그리고 제3 인터내셔널의 혁명적 사명 사이의 모순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이다. 판네크는 그 모순을 분석하면서 경제 재개발에 대한 소련의 급박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판네크는 소련의 정치적 요구가 서유럽에서 코뮤니스트 전술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로 되고, 코민테른은 서유럽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소련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소련이 잠재적으로 '혁명에 대한 반동적 방해물'이 되고, 반(反)혁명의 승리를 가져올 힘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판네크는 이처럼 러시아혁명의 정체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첫 번째 코뮤니스트 이론가로 등장했다.

레닌에 답변하는 주된 과업은 호르터(Gorter)에게 남겨졌다. (그의 글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호르터는 네덜란드 맑스주의자 중 레닌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논쟁에 끼어들 것 같지 않았던 인물이다. (호르터는 「국가와 혁명」 등 레닌 저작을 번역했으며, 그의 책 「세계혁명」을 레닌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판네크와 마찬가지로 호르터도 서유럽, 동유럽 코뮤니스트의 차이점을 축으로 주장 전개했다. (“당신의 전술은 러시아에서 뛰어난 것이었고, 그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것이 서유럽엔 무엇을 입증했는가?”). 그는 두 지역의 농업 부분의 차별성을 추적한다. 동유럽 농민은 공동체적인 지향을 하지만, 서유럽 농민은 노동자를 계급의 적(敵)으로 인식하는 개별화된 소부르주아 기업인이라는 것이다. 서구 노동자들은 참호에 둘러싸인 부르주아를 홀로 맞서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호르터는 서유럽 전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 인터내셔널은 제2 인터내셔널을 특징 지웠던 같은 종류의 기회주의를 범하고 있다고 격하게 주장했다. 의회와 노조 참여를 통해 계급의식을 주입해야 한다는 레닌의 강조에 반대하여, 호르터는 노동자평의회, 공장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의식을 형성하는 코뮤니스트좌파 전술을 거듭 주장했다. 호르터의 분석은 판네크와 유사하지만, 다른 몇 가지 점도 존재한다. 판네크는 서유럽 혁명의 늦은 진척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배 때문이라고 보았지만, 호르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 걸림돌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리적 힘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호르터는 (레닌, 코민테른 주장과는 다른 것이지만) 확고한 맑스주의 원칙, 당 집권화, “철의 규율”의 중요성 강조했다.

## 다. 코민테른과 코뮤니스트좌파의 대립

판네크와 호르터가 발전시킨 전략적 목표는 네덜란드와 독일 좌파에만 한정된 것 아니었다. 1920년 봄, 급속히 강화되던 레닌주의적 코뮤니스트에 대한 코뮤니스트좌파의 강력한 도전은 유럽 전역에서 부상했다. 코뮤니스트좌파는 1920년 코민테른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을 했지만, 그렇다고 (코뮤니스트좌파가) 응집된 구성체는 아니었으며, 단지 분기된 다양한 입장들을 포괄하는 분파적 그룹/당/저널의 느슨한 연합이었다. 그들을 연계시켰던 것은 러시아 모델의 서유럽 적용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반(反)관료주의 추구, 비타협적 혁명적 행동주의에 있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이 해체된 후, 코뮤니스트좌파의 국제 센터는 비엔나 코민테른 서기국과 그 기관지(저널) 「코뮤니즘」(Kommunismus)으로 이동했다. 편집인이 루카치였던 「코뮤니즘」은 코뮤니스트좌파 네트워크의 주된 포럼 역할을 했다. 루카치도 판네크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이론가로서, 판네크의 영향을 받았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다른 주요 센터는 이탈리아에서 형성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마데오 보르디가(Amadeo Bordiga)가 주도하는 반(反)의회주의 코뮤니스트가 상당한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보르디가의 반의회주의도 판네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지만, 코뮤니스트좌파의 조직화 이론은 거부했다. 그는 강고하고 규율이 선 레닌주의 형태의 정당을 강조하였고, 노동자평의회 및 공장조직을 생디칼리스트적 이탈로 비난했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또 다른 이론적 센터는 영국에서 대두했는데 실비아 땁크허스트(Sylvia Pankhurst)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그 기관지였던 「노동자 전함」(Workers' Dreadnought)이었다. 코뮤니스트좌파 경향은 또한 의회주의에 결연히 반대하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코뮤니스트당에서도 나타났다. 러시아 내에서 「노동자 반대파」는 관료적 프롤레타리아 조직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1920년 4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의 창립은 코뮤니스트좌파와 코민테른 사이의 대립 단계를 가져왔다.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레닌주의 전술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 인터내셔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존중했으며, 창립 후 얀 아펠(Jan Appel)이 이끄는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파견, 코민테른에 당 가입을 협상하고자 했다. 5월 초 도착한 대표단을 레닌이 마중했고, 이후 대표단-코민테른 집행부의 회합 후, 지노비에프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구성원에게 코민테른 가입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담은 공개서한을 건넸다. (울프하임, 라우펜버그, 뮐레의 즉각 제명, 2차 대회 결정의 무조건적 복종, 「독일코뮤니스트당」과의 재통합을 위한 화해위원회 설치,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이 2차 대회에 참가할 것). 아펠 대표단이 독일로 돌아갔지만, 오토 뮐레(Otto Rühle)의 2차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대표단은 1차 대표단의 토론 내용과 지노비에프의 서한을 읽을 기회도 없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며, 뮐레는 레닌 및 코민테른의 다른 지도자들과 오랜 토론 끝에, 2차 대회 개최 전날 밤 7월 18일 극적인 성명발표를 한다.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회의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코민테른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2차 대회에 불참했지만, 대회에서 코뮤니스트좌파가 제기한 주요 쟁점들이 대두되었다. 대표자들에게 논쟁의 배경 설명을 위해 판네크와 레닌의 글이 배포되었다. 이는 코민테른에 의해 외국 반대파의 저작이 배포되었던 마지막 경우였다. 가장 극적인 대립은 아마데오 보르디가가 좌파의 반(反)의회주의 관점을 재확인하는 테제를 제시했을 때였다. 네덜란드와 독일 좌파와 마찬가지로 보르디가도 코민테른에 대한 점증하는 러시아의 지배에 대해 비판하고, 동구에서 볼셰비키의 경험은 서구에 기계적으로 이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2차 대회 마지막에 의회주의, 노조운동, 그리고 중앙집권적 정당 조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2차 대회 직후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내에는 제3 인터내셔널과의 장래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킬레가 취했던 소수 입장은 코민테른과 어떠한 협력도 거부하는 것이었지만, 킬레는 2차 대회에서 돌연한 이탈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받았다.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다수의 감정은 코민테른 내에서 혁명적 반대파를 조직하려고 했다고 자신의 의도를 발표했던 호르터가 대변했다. 호르터는 코민테른 전략의 오류에 대해 레닌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지도자들과 함께 코민테른 집행부와 토론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레닌은 개인적으로 호르터를 만났지만, 그의 설득, 충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렇지만 트로츠키는 더욱 직선적으로, 서유럽 혁명개념에 대한 호르터의 방어에 대해 아이러니한 경멸을 가지고 반응했다. 이 같은 대화의 결과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을 「독일코뮤니스트당」과 재통합을 추진한다는 조건 아래, 협의적인 지위를 갖는 '동조 정당'으로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 같은 조정이 많은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코민테른 내에 혁명적 반대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1921년 5월 혁명적 반대파를 조직하기 위한 과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것은 아펠(Appel), 슈왈(Schwab), 메이어(Meyer)로 구성된 또 다른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내고, 다가오는 3차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단 가운데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다수 국가의 좌파 경향 대표단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대회에서 응집된 반대파 분파를 조직할 수 없었다. 이때 코민테른 집행부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에 「독일코뮤니스트당」과 통합, 아니면 제명이라는 양자택일의 최후통첩을 보냈고,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9월 공식적으로 코민테른에서 방출된다.

코민테른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판네크와 코뮤니스트좌파들은 러시아혁명 그 자체의 의미와 관련된 기저(基底)적인 쟁점들에 관심을 두게 된다. 1920년에서 1921년 초까지 판네크와 호르터는 레닌에 대한 개인적 공격을 조심스럽게 피했고, 러시아는 새로운 코뮤니즘 사회를 낳았다는 신념을 확고히 유지했다.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내에서 킬레가 러시아혁명에 대한 첫 번째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다. 러시아에서 1920년 6월 돌아오면서 그는, 러시아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허울일 뿐이며, 반(反)혁명적 당 독재가 권력을 쥐었다고 비판했다.

2차 대회(1920)와 3차 대회(1921) 사이에 소련과 서유럽 상황은 급변했다. 1920년 소련은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러시아 지도자들은 서유럽에서 혁명이 임박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21년 러시아는 다수 국가와의 무역과 외교적인 유대를 마련하였고, 유럽에서 혁명이 가능하단 할지라도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러시아의 이 같은 변화된 관점은 **신경제정책(NEP)**으로 알려진 경제정책으로 표현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판네크는 1921년 5월부터 러시아혁명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판네크는 처음 러시아 코뮤니즘이 구체적인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실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소련은 소규모 자본주의 생산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경제 조건은 (크론슈타트 반란처럼) 노동자-농민 사이 새로운 계급투쟁의 객관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약하고 위축된 노동계급, 원자화된 농민 모두 그 스스로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투쟁의 결과는 그들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관료주의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다. **서유럽에서의 혁명적 공세만이 러시아혁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21년 7월 판네크는 두 달 전에 진단한 바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관료주의적 엘리트 지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혁명 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 장악이 아니라, 생산체제에 대한 자본가 지배에서 당 독재로 그 정부가 변화하였을 뿐 자본가는 노동자 통제에 의해 단지 제약되고 있을 뿐인 상태라는 것이다.** 판네크는 이 같은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에 침투한 서유럽 자본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전 과정은 서유럽과의 화해를 향한 소비에트 대외 정책의 변모와 그 정책의 코민테른 전술로의 확장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지도부의 관점에서 볼 때, 서유럽에서의 혁명적 공세는 소비에트 경제의 재구축을 위협할 수 있는 파괴, 경제적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코민테른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이 아니라, 단지 과거 운동의 통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를 방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서유럽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주요 임무가 그들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해방모니를 형성하는 대신 자본주의 경제를 재형성하는 것을 도와 소련을 방어하는 것에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볼셰비키에 대한 판네크의 적대감은 코민테른으로부터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이 축출된 이후 더욱 많이 나타났다. 1921년 11월 판네크는 소비에트 체제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새로운 예측 조건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이고 반(反)혁명적인 관료주의로 변질되었다는 극적인 결론에 다다른다. 판네크는 러시아 코뮤니스트 독트린이 단지 관료주의의 점증하는 부르주아 기능을 감추기 위해 채택한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면적인 자본주의 재복원의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제3 인터내셔널은 제2 인터내셔널의 기본 정책과 전술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뮤니스트 슬로건은 객관적인 수렴을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와 코뮤니스트 양자 모두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사회에 통합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3) 코민테른의 타락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 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타락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력은 1918년부터 계속, 그 정상에 볼셰비키당이 있는 국가기구에 의해 제한되고 억압되어 왔다. 권력 장악 후, 볼셰비키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기관들과 갈등하게 되고, 자신을 통치 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당의 권력이 평의회 권력을 대체하는 것은, 20년대 초의 트로츠키의 저작 『테러리즘과 코뮤니즘』 - 크론슈타트 학살과 같은 행동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던 비극적 저작 - 에서 (노동의 군사화와 함께)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우리는 소비에트 독재를 당 독재로 대체했다고 여러 번 비난받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독재는 오직 당 독재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고 완전히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당의 이론적 전망의 명확함과 그 강력한 혁명조직 바로 그 덕분에, 당은 소비에트가 볼품없는 노동자들의 의회로부터 노동자들이 우위를 갖는 기관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제공했다. 노동계급의 권력을 당의 권력이 이렇게 ‘대체’하는 것에,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실상, 대체란 전혀 없다. 코뮤니스트들은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표현한다. 역사가 그러한 이해관계들을 전적으로 당대의 질서가 되도록 만든 시기에, 코뮤니스트들이 노동계급 전체의 대표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트로츠키, 『테러리즘과 코뮤니즘』)

일단 당과 국가가 노동계급 전체의 공언된 ‘대표자’가 되고 나자, 그들은 절대 틀릴 수가 없었으며, 비록 전체 노동계급에 대항하게 될지라도, 학살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상 옳았다. 그 순간부터, 사회주의 자체는 당과 국가의 과업이 되어버린다. 그 순간부터 러시아 국가는 평의회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는 혁명의 힘을 파괴하고 반(反)혁명으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심각한 혼란과 나란히, 코민테른은 공동전선의 개념, 대중정당을 통해 최소 강령을 보호한다는 생각, 노동조합 과업의 필요성, 혁명적 의회주의 입장 등을 발전시켜갔다. 코민테른은, 혁명적 물결의 퇴조에 저항하며 코뮤니스트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이러한 후퇴에 전념하고 이러한 실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전술’과 원칙 사이의 차이는 제2 인터내셔널의 안에서 그랬던 만큼이나 발전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이해를 항상 염두에 두기보다, 코민테른은 더더욱 러시아 국가의 대변자가 되었고, 일국 사회주의 이론을 선택했을 때, 그 조종을 올렸다. 코민테른이 옹호

한 이러한 테제들은 단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강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지점부터 **볼셰비키당은 반(反)혁명의 가장 유순한 도구가 되었다.**

그들의 계급은 1927년 이후 국제적인 수준에서 파괴되었고, 세계혁명의 요새는 점차 더욱더 고립되어 반(反)혁명의 요새로 변형되어갔다. 그들의 국제조직은 '일국 사회주의' 이론을 도입한 순간에 결정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점점 더 고립되어가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코뮤니스트좌파 동지들은 추방의 고통 아래서 코민테른에 의해 가장 비열한 종류인 중도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과 합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파괴적인 타격 아래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굴종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투쟁을 계속할 충분한 전투적 용기와 혁명적 의지를 갖고 있었다.

코민테른의 점진적인 타락은 가장 건강한 혁명적 인자들 사이에 분출을 촉진했다. **코민테른의 타락에 대해 반응한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조직적이고 일관적인 국제적 반대파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다.** 세계의 일부(멕시코에서 아시아까지, 물론 러시아를 포함하여)에서 그들의 출현은, 정치적이거나 조직적인 수준에서 진정으로 조정되지는 않았다. 비록, 특히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이탈리아의 보르디가 분파, 팽크허스트 주위의 영국 동지들과 벨기에 좌파 등등 사이에서 눈에 띄게 많은 접촉과 교류가 있었지만, 『일 소비에트』(Il Soviet, 이탈리아 좌파의 기관지)가 좌파 흐름의 많은 문서를 출간했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적인 접촉이 존재했었지만, 반(反)혁명 충격의 무게와 힘은 좌익 분파를 심각한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 나. 코민테른의 타락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1920년대에 이미 코민테른 내부에서는 이러한 퇴행에 맞서 투쟁하려는 새로운 좌파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특히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좌파였다. 1920년대 동안 배제된 이러한 좌익 분파들은 코민테른과 혁명적 물결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죽어가는 코민테른과 ‘미래의 당’ 사이에서 연속성을 보증할 정치투쟁을 지속했다.

코민테른 안에서 이러한 ‘코뮤니스트좌파’의 전투는 특히 노동자 운동의 가장 암흑의 시기, 즉 1920년대 말에 시작한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끔찍했던 반(反)혁명의 시기 동안 싸웠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반혁명의 상황 속에서, 노동자 운동의 강력한 쇠퇴기 속에서 코민테른의 좌파 혁명가는 잊지 못할 투쟁을 수행했다.

### ▶ 러시아 좌익분파의 투쟁

1918년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안에서부터 좌익 분파가 등장했는데, 이는 볼셰비키의 정치에 대한 의견 차이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볼셰비키주의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계급의 생생한 표현이었으며, 노동계급은 자신의 실천에 관해 급진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볼셰비키는 혁명적 분파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이에 저항하는 당 내부의 타락한 목소리가 제시될 때마다, 볼셰비키주의의 원래의 강령에 대한 배신을 비판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 분파들이 생기거나 해체되었다. 스탈린주의가 당을 무덤에 묻고 나서야 이러한 분파의 발흥은 멈추었다. 당시 러시아의 코뮤니스트좌파는 모두 볼셰비키였다.

볼셰비키당 내부 분파 중 가장 선명했던 「노동자그룹」은 1922~23년에 결성되었다. 그룹을 주도한 것은 우랄지방의 노동자 미아스니코프(Miasnikov)였는데, 그는 노동계급 출신의 다른 투쟁가들과 함께 「러시아코뮤니스트당의 노동자그룹」을 창설했고 당의 12차 대회에서 그룹의 선언문을 배포했다. 이 그룹은 당과 노동자 사이에서 불법 활동을 시작했고, 1923년 여름의 파업 물결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이 그룹은 대대적인 시위를 요구했고, 일차적으로 방어적인 계급 운동의 정치화를 시도했다. 이 시위로 게페우(GPU, 국가정치보안부)는 당에 위협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고, 미아스니코프를 포함한 그룹의 주도자들은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룹의 활동은 1920년대 말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되었다. 이때 미아스니코프는 러시아를 탈출해서 파리로 망명했고,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의 입장에 가까운 입장을 옹호하는 「코뮤니스트노동자」의 간행에 참여한다.

볼셰비키당의 퇴행에 맞서 투쟁을 벌인 모든 경향 중에서 「노동자그룹」이 가장 정치적인



로 명확했다. 특히, 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혁명의 국제적인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당과 노동계급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와 경제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다른 그룹과는 상반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코민테른의 첫 4번의 대회를 참조점으로 삼는 트로츠키주의 경향과는 달리 코민테른의 제3차 및 4차 대회의 통일전선 정책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트로츠키주의 경향의 좌익과 「노동자그룹」의 인자 사이에 (특히 망명 중에) 토론이 있었다.

「노동자그룹」은 볼셰비키당 내부에서 일관되게 하나의 분파처럼 활동했던 유일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탈린의 혹독한 탄압은 혁명가들이 이들의 경로를 따라 발전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아스니코프는 러시아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 예상대로 그는 즉시 실종되었고, 코뮤니스트좌파의 미약한 역량은 가장 용감한 투사를 잃고 말았다.

코민테른 5차 대회 이후 시기는 코뮤니스트당의 지속적 ‘볼셰비키화’와 코민테른 ‘우선회’로 특징지어졌다. 당 대회에서의 논쟁 밖에서 노동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레닌이 정치 활동을 포기하게 만든 이래 코민테른과 소련 코뮤니스트당을 이끈 3두 체제(스탈린, 지노비예프, 카메네프)가 1925년 말 와해된 것이었다. 1929년 봄 소련코뮤니스트당 15차 당 대회 준비를 위해, 트로츠키의 최초의 반대파와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크롭스카야가 합세한 「통일반대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반대파 결성에 스탈린은 억압을 강화했다. 게페우는 지도자를 당에서 축출함으로써 「반대파」의 지역조직을 폐쇄했다. 1927년 10월 트로츠키와 지노비예프는 소련코뮤니스트당 중앙위에서 축출되었다. 지노비예프와 그 지지자들의 항복은 러시아 좌파가 투쟁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모욕, 위협, 당으로부터의 추방도 노동계급의 진정한 투사를 막을 수 없었다. 연속되는 새로운 타격에도 불구하고, 반대파 성원과 그 대표인 라코프스키는 계속되는 투항과 소련에서의 트로츠키의 추방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는 투쟁을 계속했다. 함정, 협박, 암살에도 불구하고 **라코프스키와 반대파 중핵은 1934년까지 조직화된 투쟁을 지속했다. 그들 대부분은 진영 내에서 저항을 계속했다.** 라코프스키가 투쟁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지노비예프와 그 추종자들이 했던 부끄러운 방식이 아니었다.

## ▶ 독일과 네덜란드 코뮤니스트좌파

다른 나라에서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러시아와는 다른 형태를 취했지만, 이들도 아주 일찍부터 코민테른 내부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동자 운동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두 나라에서 혁명적 맑스주의

경향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독일·네덜란드 코뮤니스트 좌파의 입장은 판네크, 호르터 및 얀 아펠과 같은 혁명가들로 대표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 투쟁의 열기 속에서 단련되어 반동적인 차리즘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독일혁명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형집행인과 그들의 노동조합 심복에 대항했다. 이들은 제국주의 전쟁과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혁명으로 나타난 시대변화의 여러 의미를 가장 먼저 파악하게 된다. 노동계급 이해의 옹호를 위한 의회의 이용 불가능성, 사회민주주의의 배반과 반동적 본질,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국가의 옹호자이자 제국주의 전쟁의 신병모집 하사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 새로운 시대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은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와 같은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독일·네덜란드 좌파의 투쟁은 혁명 물결의 퇴조와 코민테른의 실패와 함께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이들은 정치조직 자체의 문제와 역사적 진로(계급 사이의 힘의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했다. 이들의 최종적인 실패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에 힘의 균형의 진화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혁명가들이 가질 필요가 있음을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1921년 7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지도부는 호르터의 지원을 받으며, 코민테른과의 모든 연결을 단절하고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 Kommunistische Arbeiterinternationale : KAI)’의 창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호르터와 그의 지지자들의 오류는, 하나의 국제적인 코뮤니스트좌파 경향으로 재편성될 수 있는 코뮤니스트좌파 분파들이 코민테른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인위적으로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 실수는 독일혁명 운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 1921년 즈음 세계혁명의 퇴조는 유럽에서 명백했고 이러한 퇴조로 인해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 경로가 여전히 혁명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위기’라는 이론을 가진 호르터와 에센 경향의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 선언에는 특정 논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제가 틀렸다.” (「독일과 네덜란드좌파」, Philippe Bourrinet)

이후 독일·네덜란드 코뮤니스트좌파 일부는 1930년대 동안,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패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결정적인 문제와 직면하여, **불세비키당이 국가자본주의의 기관으로 변형된 것을 혁명 패배의 결과이기보다는 원인이라고 잘못 파악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의 반(反)혁명적 본질을 이론화하고 노동자평의회를 현시기에 유일하게 가능한 프롤레타리아조직 형태로 간주했다. 결국, ‘평의회주의’ 경향으로 된 그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자신의 무용성을 이론화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 ▶ 이탈리아 좌파의 투쟁과 교훈

독일·네덜란드 좌파와는 반대로 이탈리아 좌파는 전쟁 동안 그리고 코민테른의 창설까지는 볼셰비키의 특징과 같은 ‘비타협성’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들에게는 원칙에 대해 타협하고 원칙을 흐리게 만들어 혁명을 향한 지름길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가치도 없었고, 그러한 지름길은 패배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사실상 이탈리아코뮤니스트당의 선봉에 서 있던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의 비타협성은 1920년 계급투쟁의 패배에 뒤이어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파시즘의 등장을 대항해 모범적으로 표현했다. 실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비타협성은 파시스트의 위협에 직면해서 (진보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부르주아의 어떤 당과도 동맹을 맺는 것을 완전히 거부한 점에서 나타났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자신의 영역에서, 경제파업과 자기방어를 위한 노동자민병대의 조직을 통해서만 파시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보르디가는 파시스트 현상에 대한 (오늘날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는) 최초의 진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이 분석을 코민테른 제4차 대회 대표단에 제시하며 코민테른의 분석을 거부했다.

“파시즘은 중간계급의 산물도 아니고 부르주아 지주의 산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겪은 패배의 산물로서, 그 패배는 우유부단한 소부르주아 계급이 파시스트 반동 세력을 지원하게 만들었다. (...)”

파시즘은 ‘봉건적’ 반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밀라노와 같이 모든 산업 대도시에서 최초로 생겨났다. (...)”

파시즘은 민주주의와 상반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가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더는 방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필수 불가결하게 보완했다.”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 ICC)

이러한 비타협성은 통일전선전술, 사회당과 그 부수체에 대한 ‘관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표현했는데, 보르디가는 ‘노동자 정부’라는 구호는 “코뮤니즘의 정치강령을, 즉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를 위해 투쟁하도록 대중을 준비할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한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타협성은 1924년 7월 코민테른 5차 대회에서 추진된 코뮤니스트당(CP)의 ‘볼셰비키화’ 정책에 반대한 것에서도 표현되었다.

보르디가는 1926년 2월부터 3월까지 코민테른의 제6대 확대 집행위원회 동안 마지막 전투를 벌인다. 그는 코민테른의 기회주의적 표류를 비난했고, ‘분파의 역사는 레닌의 역사’이고 분파는 병도 아니고 병의 증상도 아니라 ‘기회주의적 영향에 맞선 방어’ 반응임을 시인하면서 이 문제가 당장의 사안이 될 것으로는 내다보지 않으면서 분파의 문제를 언급했다.

1926년 9월 칼 코르쉬(Karl Korsch)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르디가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당과 인터내셔널의 분열을 원할 필요가 없다. 분열이 가능하기 전에, 우리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규율의 경험을, 그것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조리한 실천과 함께 허용해야만 한다, 어떻게든 우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결코 비판하지 않고 만연한 노선과의 연대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 일반적으로 나는 오늘날의 우선순위는 조직화와 작전의 영역이 아니라 훨씬 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좌익이고 국제적이며 코민테른에 의한 수난을 당한 그런 이데올로기의 정교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약함은 어떤 국제적인 발의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을 의미할 것이다.” (보르디가,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에서 인용)

이것은 또한 1928년 4월 파리근교 팡탱(Pantin)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회 후 창설되는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좌파분파를 받치는 기초였다. 그 당시 브뤼셀, 뉴욕, 파리 그리고 리옹, 이렇게 총 네 개의 ‘연합’이 존재했고 룩셈부르크와 베를린 그리고 모스크바에 투쟁가들이 있었다. 그 대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첫째, 코민테른의 좌파분파를 결성하는 것

둘째, (...)

셋째, 두 달에 한 번씩 「프로메테오」(Prometeo)라는 이름의 잡지를 출판하는 것

넷째, 기회주의와 기회주의자에 맞서 가차 없는 투쟁을 수행할 임무를 가진 좌파 그룹을 건설하는 것

다섯째, 채택된 즉각적인 목표는,

- 「코뮤니스트 선언」에 충실하고 제3차 세계대회의 테제를 수용하는 인터내셔널로부터 축출된 모든 인자를 재통합하는 것

- 레온 트로츠키를 의장으로 하여 제6차 세계대회를 소집하는 것

- 제15차 러시아 대회의 결의에 연대를 선언하는 모든 인자의 제명을 제6차 세계대회의 현안으로 상정하는 것

이 결의안은 ①‘분파’ 자체를 ‘이탈리아’가 아니라 코민테른의 한 분파로 생각했고, ②프롤레타리아의 삶이 코민테른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여전히 구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으며, ③ 러시아당이 코민테른 대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공공연히 배반한 모든 이들을 (인터내셔널의 다른 당과 관련해서 이전에 이미 그렇게 했듯이) 축출함으로써 “제 집안을 정리 정돈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④ 노동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코민테른의 투쟁가 사이에서 개입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겼다.

## ● 연 표 ●

- 1914년 : 제1차 세계대전 발발 -> 제2 인터내셔널, 제국주의 전쟁 참전
- 1915년 : 침머발트 좌파 결성 (레닌, 지노비예프, 라텍, 판네크)
- 1917년 : 10월 러시아혁명
- 1918년 : 11월 독일혁명, 대대적 파업과 평의회(레페) 운동 나타남.
- 1918년 : 12월 말 「독일코뮤니스트당」 결성 (로자 룩셈부르크-스파르타쿠스 동맹+브레멘 좌파-판네크, 호르터, 쉴레)
- 1919년 : 1월 총선 독일 사민당 집권
- 1919년 : 1월 독일코뮤니스트당 무장봉기(스파르타쿠스 봉기) -> 독일사민당 진압 (로자 룩셈부르크, 칼 리프크네히트 암살당함)
- 1919년 : 3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립총회 (40여 단체 소속 52명 참석)
- 1919년 : 10월 「독일 사민당」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하는 제헌의회 제안, 노동자평의회를 합법적 공장평의회로 전환(독일판 노사정 위원회 -> 이것이 발전해서 국제연맹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 바이마르 헌법. 제헌의회 참여 「독일코뮤니스트당」 내부 논쟁. 파울 레비가 -> 브레멘 좌파 축출
- 1919년 : 10월 보르디가 「이탈리아 사회당 기권주의 분파」 구성
- 1920년~1923년 : 독일혁명(독일경제 붕괴, 독일 사민당과 그 기반인 노조 대중 신뢰 상실 -> 노동자평의회 재개)
- 1920년 : 2월 「독일 노동자총연맹」(AAUD) 창립 (공장조직의 연대, 오토쉴레 주도)
- 1920년 : 2월 코민테른 암스테르담 사무국 국제대회 개최 (12개국 참가)
- 1920년 : 4월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 창립(헤르만 호르터 주도) 공장조직과 노동자연합(Workers Union)
- 1920년 : 4월 말 코민테른 지도부, 암스테르담 사무국 폐쇄 발표
- 1920년 : 6월 레닌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 팸플릿 작성
- 1920년 : 판네크 「세계혁명과 코뮤니스트 전술」 작성 (후기에서 레닌의 팸플릿 비판)
- 1920년 : 코민테른 2차 대회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 불참)
- 1920년 : 12월 독일 코뮤니스트당, 레닌과 코민테른 지원으로 독립사민당과 통합 -> 통일독일 코뮤니스트당(VKAPD)
- \*독일 사민당 내 분파가 독립 사민당 : 1917년 로자 룩셈부르크 주도 독일 사민당 좌파+카우츠키가 주도한 독일 사민당 중앙파

1921년 : 1월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창설(코민테른 지부), 보르디가 분파 합류

1921년 : 3월 호르터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간

1921년 : 5월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 코민테른에 혁명적 반대파 조직하기 위해 대표단 파견

1921년 : 7월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 지도부, 호르터의 지원 아래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 창설 요구 결의안 채택

1921년 : 9월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 코민테른에서 공식 방출

1922~1923년 : 미아스니코프 「러시아 코뮤니스트당의 노동자그룹」 창설

1925년 : 3월 코민테른 확대집행위,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3차 대회의 보르디가 경향 제거

1925년 : 4월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조정위원회 설립(데이먼 등)

1926년 :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리옹대회에서 그람시 당 총서기 승인, 당 장악, 볼셰비키화

1926년 : 2월 당에서 축출된 보르디가 6차 코민테른 확대집행위 마지막으로 참여

1926년 : 파시스트 정권의 정당 금지령으로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해산

1926년 : 독일 노동자평의회 운동 쇠락, 「독일 코뮤니스트노동자당」과 「독일 노동자총연맹」 유명무실화됨

1926년 : 12월 보르디가 파시스트에 체포되어 3년 추방

1927년 : 헤르만 호르터 사망

1928년 : 파리의 팡탱(Pantin)에서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 좌익 분파 결성, 「프로메테오」 발간

1929년 : 세계 대공황

1933년 : 나치 집권

1933년 : 브뤼셀에서 이탈리아 좌익 분파 이론지 「빌랑」 발간

1945년 : 데이먼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창설

1945년 : 프랑스 망명 분파 「프랑스 코뮤니스트좌파」(GCF) 설립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1차 대회,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2차 대회, 1920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3차 대회, 1921년  
레닌 연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4차 대회, 1922년  
코민테른 4차 총회와 러시아혁명 5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5차 대회, 1924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6차 대회, 1928년

## 6. 맑스주의 연속성과 오늘날 코뮤니스트좌파의 원칙

### 1) 코뮤니스트좌파와 맑스주의 연속성

코뮤니스트좌파는 19세기 말 기회주의에 대항해 투쟁해온 제2 인터내셔널 좌파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제1차 세계대전)에서 국제주의를 방어했고,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수호했으며,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설에 공헌했고, 1920년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내부의 기회주의 흐름에 대항해 저항하면서 하나의 국제적 흐름을 형성했다.

하지만, 1920~30년대 스탈린주의 반(反)혁명과 유럽혁명의 실패로 **독일의 좌파는 파편화**되었다. 비록 몇몇 은밀한 혁명 활동이 히틀러 치하에서 여전히 수행되었을지라도, 나치 테러로 제압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혁명적 소수는 추방을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증가하는 고립을 직면해야만 했다. 계급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부르주아의 전쟁이데올로기가 노동자에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계급의 즉각적 투쟁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반(反)혁명의 전면화와 '평의회주의' 흐름으로 인해 좌파세력은 더욱 분산되었다. 1930년대 동안, 혁명적 입장에 대한 독일 좌파의 옹호는, 폴 매트릭(Paul Mattick)이 주도한 그룹에 의해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특히 「국제코뮤니스트그룹」(ICG)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좌파**는 국제적으로 학살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지역의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여,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유혹에 저항하여 **국제주의를 견지**했다. 네덜란드 좌파는 노동조합 문제, 자본주의의 쇠퇴기 노동자 조직의 새로운 형식, 자본주의 위기의 물질적 근원, 국가자본주의로의 경향에 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시켰다. 그들은 계급투쟁, 특히 실업자 운동에 계속 중요하게 개입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좌파는 러시아혁명의 패배로 충격을 받은 채, 정치조직에 대한 평의회주의적 거부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한편, 1927년부터 **이탈리아 좌파의 투쟁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의 망명지에서 계속되었다**. 이탈리아를 떠날 수 없었던 활동가는 감옥에 있거나 보르디가처럼 섬에 갇혀 있었다. 좌파는 활동가 다수가 축출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코뮤니스트당과 코민테른 내에서 싸웠다. 그들의 기본목적은 퇴행을 향한 피할 수 없는 경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 조직 내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탈리아 좌파의 이론적 발전은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와 벨기에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이탈리아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탈린주의화된 「이탈리아코뮤니스트당」에서 축출된 채 그들은 미래의 당을 위한 이론적 틀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혁명의 패배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1933년 「빌랑」(Bilan)그룹을 형성했다. 「빌랑」은 러시아혁명의 변질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이행기 문제에 관한 탐구,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쇠퇴의 토대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다. 「빌랑」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당과 분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었다. 「빌랑」은 ‘당을 계급의식의 능동적 인자이자 동시에 계급 전체 내에서의 의식 발전의 표현’으로서 파악했다. 그들이 “혁명은 당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을 때, 이것은 혁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당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의 건설 자체가 혁명 문제를 제기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전체 능력의 표현”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빌랑」은 반(反)혁명과 계급투쟁의 퇴조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정의했다. 그 임무는 첫째, 전쟁에 직면하여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할 것, 둘째, 러시아혁명의 실패의 '대차대조표'를 만들 것, 셋째, 미래에 계급투쟁 부활 시 나타나게 될 새로운 '당'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편, 망명하지 않고 이탈리아에 남아 있던 오노라토 데이먼(Onorato Damen)과 주변의 핵심혁명가들은 전쟁 시기 수감 및 가택연금 속에서도, 파시스트 아래 2년 동안 비밀리에 생존하면서 1945년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을 창설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은 2차 제국주의 학살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이탈리아 좌파의 많은 구성원이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고, 전후 계급투쟁의 파고 속에서 금세 수천 명의 당원을 얻게 된다.

같은 해 프랑스 망명 분파는 「프랑스 코뮤니스트좌파」(Gauch Communiste de France, GCF)를 만들었다. 이때 「프랑스 코뮤니스트좌파」는 「빌랑」의 정신에 따라 활동을 계속했고, 한편으로 직접 계급투쟁에 개입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정치, 이론적 규명작업에 총력을 집중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 특히 '국가자본주의의 문제', '이행기', '노동조합과 당'에 관한 연구에서 수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이들은 이탈리아 좌파의 확고한 맑스주의 방법론에 독일-네덜란드 좌파의 훌륭한 공헌을 통합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 프롤레타리아는 1968년 5월 프랑스 총파업과 그에 이은 전 세계에 걸친 노동자 투쟁의 분출과 함께 역사의 무대 위에 재등장했다. 이러한 부활은 코뮤니스트 입장에서 명료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코뮤니스트를 탄생시켰고, 기존 혁명그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결국, 혁명의 시기인 1917~1920년대에서, 반(反)혁명의 시기인 1930~1940년대를 거쳐, 계급투쟁이 부활하는 시기인 1968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코뮤니스트좌파는 과거의 유산을 쇄신하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뮤니스트좌파 경향은 조직, 사상, 실천의 모든 측면에서 확대되고 깊어졌다. 그것은 코뮤니스트좌파가 100여 년의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계급투쟁의 전진과 후퇴 속에서 수많은 걸림돌과 곤경을 만나면서도 혁명적 원칙을 지키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계급과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시기, 세계 곳곳에서 전쟁 참화와 경제위기, 생태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세계의 코뮤니스트좌파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국제주의’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행동과 개입을 통해 계급의식의 발전과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혁명적 진전을 위한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계속 발전하는 새로운 노동자 투사와 혁명가들이 코뮤니스트좌파와 만나 소통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국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 착취체제에 반대하는 다양한 국제주의자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 건설에 공헌할 것이다.



## 2) 오늘날 코뮤니스트좌파의 원칙

#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 선거를 넘어 코뮤니스트 정치를 말한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노동자 정당 집권인가?

노동계급이 직접 통제하는  
노동자평의회-자기권력인가?

노동자 투쟁을 약화하고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하는  
진보좌파 정치인가?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과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인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개혁하는 체제 전환인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코뮤니스트 혁명인가?

## 가. 사회대개혁-사회대전환-체제전환 등에서 누락시킨 ‘이행기’에 관하여

###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계급은 혁명계급이면서 낡은 체제에서 피착취계급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부르주아 국가기구나 제도에 의존해서는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 노동계급은 다수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는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지 않고서는 노동해방을 이루어낼 수 없다. 부르주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코뮌니즘을 위한 투쟁 앞에는, 낡은 생산관계의 지배가 새로운 것의 이해관계를 위해 파괴되는 과도기, 즉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코뮌니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불가피하게 선행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계급적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부문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평의회 체제에 의해 중앙(집중)화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포함한 코뮌니스트혁명 과정에서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노동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코뮌니즘의 필요성을 깨달은 가장 의식적인 노동계급을 재조직하고 전체 계급의식을 코뮌니스트 강령에 가깝도록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혁명당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안에서 코뮌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로 거짓 선전되었던 국가의 당 독재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

자본주의로부터 코뮌니즘으로의 이행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에도 비(非)착취계급과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아직, 생산수단은 전체로서 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국가체제인 노동자평의회에 속할 수밖에 없다. 계급이 폐지되기 전까지 생산수단은 사회의 절대다수인 노동계급이 독점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전면적인 코뮌니스트 생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사회는 계급으로 나누어

진 사회이며, 부르주아지를 대신해 지배하는 노동계급이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계급의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그것을 부르주아 반(反)혁명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코뮤니즘을 향한 경제적 변혁을 위한 수단이다. 소수 부르주아가 독점한 생산수단의 박탈은 고립된 개인들의 집단이 아닌 노동계급의 조직된 힘인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조직된 힘이 노동자 반(半)국가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듯 이행기 동안 노동계급은 사회의 유일한 혁명계급이기 때문에, 사회계급이 노동계급의 사회화된 부문으로 통합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면서 모든 사회계급이 폐지되고 국가 자체도 소멸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한 사회다. 평의회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 회합, 집단 의사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실현된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참여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 누구도 전체 노동계급의 자주적 활동 없이 코뮤니즘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코뮤니즘을 미리 준비해서 노동계급에 넘겨줄 수 없다. 서로에 맞서 분열되지 않는 노동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식만이 수많은 오류를 정정하면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ICP, 「정치원칙」)

###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

전 세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변혁의 전제조건인 하나이자 첫걸음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국가기구들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부르주아지가 바로 이러한 국가를 통해 사회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특권들, 다른 계급들에 대한 착취, 특히 노동계급의 착취를 국가의 도움을 통해 유지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불가피하게 이 기능에 적응되었다. 국가는 그래서 노동계급에 의해 이용될 수가 없는데, 노동계급은 어떤 특권이나 착취도 옹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로 향한 어떤 평화적인 길’도 없으며,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에 의해 적나라하고 위선적으로 하지만 항상 더 체계적으로 행사되는 폭력에 대항해서 오직 자신의 혁명적 계급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경제적 변혁의 지레로서 기능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즉, 배타적으로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점진적으로 사회화된 부문들을 전체 생산부문으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과제들을 장악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토대로 프롤레타리아는, 임금노동과 상품생산의 폐지를 결과시키고 그와 더불어 인류의 필요 충족을 목표로 노력하는 경제정책을 펼침으로써 부르주아지의 정치경제를 공격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으로의 이

러한 이행기 동안, 그 존재 기반을 경제의 비(非)사회화된 부문에 두는 다른 (프롤레타리아를 제외한) 비(非)착취계급과 계층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치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현으로서의 계급투쟁은 사회 내부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 사회는, 사회 내부의 충돌들로 인한 그 사회의 완전한 분열을 방지하는데 그 역할을 둔 국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계급 구성원의 사회화된 부문으로의 통합을 통한 이러한 계급의 점진적 소멸과 더불어, 즉 모든 사회계급의 폐지와 더불어, 국가 자체도 소멸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으로 발견된 형식은, 노동자평의회와 연합총회이다. 이것은 계급 전체의 수준에서 조직될 것이고, 계급 전체에 의한 진정하고 집단적이며 불가피한 권력 행사를 실현할,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전권위원회에 의해 중앙화될 것이다. 이러한 평의회들은 무기의 통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유일한 계급으로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

하나의 전체로서 노동계급만이 사회의 코뮤니즘 전환의 의미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다른 혁명계급과는 반대로, 그것은 어떠한 제도 또는, 소수의 혁명가를 포함하여, 어떤 소수에게 그것의 권력을 이양할 수 없다. 혁명가들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의 조직이 계급의 역사적 과제들의 수행에 있어서 계급의 단일조직을 대체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러시아혁명의 경험은 이행기에 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프롤레타리아와 혁명가들은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이것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계급이 어떤 다른 외부의 세력에 굴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의 절대적인 거부를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 내부에서의 어떤 종류의 폭력도 배제한다. 이행기 동안 노동계급은 사회의 유일한 혁명계급이다. 노동자계급의 자의식 및 단결, 그리고 그것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행동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코뮤니즘으로 이끄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 (ICC, 「강령」)

###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 독재인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가?〉

파리코뮌의 경험은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제도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보여주었다. 부르주아 국가는 계급을 초월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압과 지배 기구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며,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화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평의회는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추상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과 봉기의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평의회는 수백만 명이 자기 삶의 수준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계급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평의회는 대의제와 수동성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평의회는 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되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며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은 가장 완벽한 평의회 민주주의라도 그것만으로 코뮤니스트혁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에 앞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는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코뮤니스트 사회로의 이행기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코뮤니스트혁명 과정에서 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당이 노동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당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로 거짓 선전되었던 스탈린주의 국가의 당 독재와 같이 혁명당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평의회로 구성된 전체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정치권력을 갖는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혁명을 실현하고, 모든 권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강령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ICP, 「정치원칙에 관한 질문」)

## 나. 소련, 중국,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였나? 국가자본주의인가?

### 〈러시아혁명과 코민테른의 타락〉

러시아에서 10월 승리로 시작한 혁명 과정은 러시아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 기초를 방 어하면서 스스로 전환될 때 끝났다. 이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고 주요 유럽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 물결이 패배한 결과였다. 이러한 경험은 일국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맑스주의자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국제 혁명 과정 없이는 어떠한 사회주의 국가나 혁명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봉기가 특정 국가에서 성공했을 때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표현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혁명운동이 성공해서 새로운 사회관계의 건설을 시작할 구체적인 가능성을 열지 않는 한, 갓 태어난 권력이 지탱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코민테른은 이제 러시아 당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더는 국제 노동계급의 전략·전술적 요구를 추구하는 집중화된 수단이 아니었다. 유럽과 중국

에서 혁명의 잠재력이 남아 있던 것은 이제 소련코뮤니스트(CPSU)당 국가의 자기보존 필요에 종속된 코민테른 정책에 의해 훼손되었다. 소련 자체에서 혁명 과정의 단절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기초한 스탈린 치하 반(反)노동계급 독재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소련처럼 거대한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체제 발전은 제국주의 권력으로서의 재등장을 의미했다. 스탈린주의 국가와 여러 민족-코뮤니스트당들은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처음에는 스페인 전쟁에,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제국주의가 넘겨받아 스탈린주의적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와 이 블록의 몰락은 ‘노동자 국가’가 마침내 그 퇴행을 완성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강대국’에서 자본주의 위기가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중국에서는 다른 과정이 같은 결과, 즉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 국제동맹 체제 내에서 ‘진정한’ 역할을 찾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낳았다. 중국 역사에서 본질적 차이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과 비교할 만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정권의 역사는 1927년 광둥과 상하이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비극적으로 패배하면서 시작된다. 그 후 농민이 돌격대 역할을 하는 계급 블록이 주도하는 전국 전쟁이 이어졌다. 이 전쟁은 스탈린주의의 후원 아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자본주의 관계에 기반을 둔 정권 수립으로 마무리되었다.

1960년대에 신스탈린주의라는 기치 아래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 정권은 1970년대에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겉보기에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움직임은 경제 통제를 유지하고 자본 축적을 장려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어느 때에도 프롤레타리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으며, 마오주의는 국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ICT, 「강령(2020)」)

##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코뮤니즘〉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 탄생한 노동자국가는 1920년대 후반까지는 노동자 권력 아래 사회주의로 이행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스탈린주의 반(反)혁명 이후 1930년대부터는 노동계급에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러시아혁명 이후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의 제도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1917년 신분제 폐지, 철도노동자 노동시간 1일 8시간 실시, 군대 계급 폐지, 1,886개 전락회사 몰수,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결혼제도 실시, 낙태법 제정, 모자보호 연구소 개소, 1918년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공화국 선포, 사회주의 적군 창설을 위한 법령 선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혁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노동계급은 생산과 권력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인 러시아 10월혁명은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노동계급 투쟁의 물결이 패배하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사회주의로

이행에 실패했다. 1918년 봄 테일러주의 재도입과 1인 경영 강제 그리고 혁명 성과를 방어하려는 임시조치들, 즉 정치반대 분쇄, 차르 관료 재고용,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인센티브 재부과는 러시아 노동계급의 실질적 권력을 깨뜨리고 '노동자 정부'와 노동자 사이 틈새를 벌려놓고 말았다. 이 과정은 3년간의 내전 동안 혁명적 노동계급의 죽음으로 더욱 굳어졌고, 세계혁명의 연이은 실패는 볼셰비키를 고립시켰다.

당시 러시아는 1차 대전 패배와 내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세계분업 내 후진적이고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자본주의 형식을 들여와 이행을 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어받은 스탈린은 5개년 계획 도입과 농업 집산화로 소련이 사회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일국사회주의와 반(反)노동자적 당 독재 강화를 가져왔다. 당이 곧 계급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당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는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레닌 죽음과 세계혁명의 명백한 침체에 힘입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선언은 국제주의와의 공개적 단절이었으며, 러시아가 세계 제국주의 권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한 세계혁명 열매임을 주장한 1917년의 볼셰비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볼셰비키가 러시아 국가와 경제·경영에서 옹키면 옹킬수록 고립되고 낙후한 상황에서라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주의를 향한 단계를 더욱더 이론화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인 원시적 사회주의 축적이론은 산업 성장을 노동계급 이해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산업 성장은 노동계급 착취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원시적 사회주의 축적은 본질에서 자본축적을 의미했다.

유럽 혁명운동 패배와 러시아에서 반혁명 과정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구성하는 정당들에 러시아 국가를 방어할 필요성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당들이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전술로 후퇴하도록 하면서 코민테른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일국사회주의는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소유형식만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진정한 성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 소유의 법률상 측면만을 폐지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진정한 통제력도 소유하지 못했고, 생산수단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었다. 결국, 생산수단은 그것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담당하는 관료 조직을 위해 집산화되었을 뿐이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일반화된 상품생산 체제이며, 자본주의 생산 목적은 잉여가치 획득과 축적이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단순히 상품생산과 시장의 무정부성에 기반을 둔 이윤 추구 체제라는 기본인식을 넘어,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의 사회적 관계 지배이며, 자본은 본질에서 소외된 노동의 자기 확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소련 노동자들은 임금을 위한 교환을 위해 일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소외시켰고 자본을 생산했다. 소련에서 잉여가치는 사적 자본주의와 같이 새로운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재투자되

었다. 소련은 이러한 자본과 임노동의 사회관계가 생산수단과 생존수단의 국가 소유 제도로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며, 스탈린주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국유화)가 전체인구에 의한 소유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단지 소유형태의 법적인 형식이었을 뿐 전혀 노동계급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국가와 그 관료 조직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집중화와 계획화는 소유 폐지를 향한 한 걸음 진전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성형하기 위한, 착취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없지만, 사적 소유의 부재(사회주의 경제 창조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에도)는 그것 자체로 사회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러시아에서 반(反)혁명은 국가가 주도하고 명령하는 특수한 형식을 취했고, 이것은 10월 혁명 이행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핑계로 민족경제 재조직화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그 후 중국, 동유럽, 쿠바, 북한 등등에서 추진되었고, 이들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적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평의회 권력의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주의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를 참칭하면서 자본과 관료 독재가 가장 쇠퇴한 형식으로 지배할 뿐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 동맹체제 안에서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다르게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단 한 번도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적이 없는 중국은 과거의 마오주의와 현재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모두 자국 자본 이익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를 희생시키고 탄압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소련 경험은 첫째, 일국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소련에서의 국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부르주아지가 축출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일국사회주의 가능성에 대한 스탈린주의 이론 및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나 노동자국가에 대한 환상은 이러한 은폐에 모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명령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국유화가 아니라 생산수단과 권력이 노동계급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노동자평의회 체제이어야 한다. 셋째, 러시아혁명의 교훈은 국가기구가 반혁명 도구가 되었고, 이행기에 계급과 국가 사이 관계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프롤레타리아트와 혁명가들은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해결해야만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동자국가나 코뮤니스트 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부르주아 착취체제는 계급투쟁과 세계혁명을 통해 전복하고 진정한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코뮤니즘은 노동계급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 노동자평의회 권력 창출과 국제적 확장을 통해 가능하다. 코뮤니스트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력을 당이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건설할 코뮤니즘은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 모든 권력을 노동계급이 집

단으로 행사하는 노동자평의회 국제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가 모든 정치, 경제, 산업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력만이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코뮌리즘 생산 관계는 생산수단 국유화와 사적 소유 철폐를 넘어서는 '생산수단 사회화'이며, 생산수단 사회화는 '노동자평의회 전 사회적 권력'이라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ICP, 「정치원칙」)

###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손에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폐지되고 부르주아지가 소멸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스탈린주의의 '일국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 또는 '코뮤니스트' 국가들,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온갖 거짓말은 모두 이러한 은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경향에 의해 초래된 변화들은 생산관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오직 법률상의 소유형식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진정한 성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소유의 법률상의 측면만을 폐지한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진정한 통제력도 소유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생산수단은, 그것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관료 조직을 위해서만 '집산화'될 뿐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잉여노동의 점유 및 국가자본의 축적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행사하는 국가 관료 조직은 일종의 계급을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아니다. 그 기능에 있어서 그것은 국가의 형태를 띤 낡은 부르주아지에 불과하다. 국가 관료 조직을 특권의 측면에서 구별하는 것은, 특권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이러한 특권을 행사하는 종류와 방식이다. 그들은 주로 자본의 개인적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지급되는 '운영 비용', 배당금, 그리고 고정된 형태의 지불을 통해 특권을 획득한다. 이러한 보수는 단순히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종종 노동계급에 지급되는 임금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더 높다.

국가와 관료 조직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집중화와 계획화는 착취의 폐지를 향한 한 걸음 진전이 아니라, 단지 착취를 심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결코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었고, 프롤레타리아가 정치권력을 소유했던 짧은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국가자본주의가 그렇게 재빨리 매우 발전된 형식으로 출현한 것은, 경제적 혼란(처음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다음은 내전으로 초래된)이 쇠퇴하는 세계체제 내부에서 민족자본으로서의 러시

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반(反)혁명의 승리는 국가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를 활용한 민족경제의 재편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냉소적으로 '10월의 연장'이자 '사회주의 건설'로 묘사했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 중국, 동유럽, 쿠바, 북한, 인도차이나 등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나라들 어디에도 프롤레타리아적이거나 코뮤니스트적인 것은 없다. 이 나라들은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라는 무게 아래 자본의 독재가 가장 타락한 형태로 지배하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을 옹호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비판적'이거나 '조건부'라 하더라도, 완전히 반혁명적인 행위이다.

동구권과 스탈린주의 정권의 붕괴는 반세기 이상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반혁명의 선봉이었던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신화를 휩쓸어 버렸다. 그런데도 '민주적' 부르주아지는 이른바 '코뮤니즘의 실패'에 대한 끝없는 캠페인을 펼치며 스탈린주의와 코뮤니즘의 동일시라는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여전히 영속화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좌파 정당과 자본의 극좌파 정당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 정세의 조건에 적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계속 통제하고 신비화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위조해서라도 사람들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지지를 잊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ICC, 「강령」)

## 다. '진보/좌파/노동자 정당'은 노동자의 벗인가? 자본의 좌파인가?

### 〈자본의 좌파와 공동전선〉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민족(조국)의 수호"를 외치면서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이탈했다. 사회민주주의는 1918년과 1923년 사이에 혁명적인 노동자 봉기를 분쇄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코뮤니스트를 살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계급투쟁의 시기에는 '노동자당'을 표방하면서 자본주의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급평화의 시기에는 노동자에게 의회주의, 선거주의 환상을 확산시킨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버팀목으로 현실에서는 개량 없는 개량주의의 옹호자로 행동한다.

이러한 제2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와 단절하면서 출발한 '코뮤니스트' 정당들은 코민테른의 타락과 스탈린주의 반혁명으로 국제주의를 포기함으로써 다시 자본주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코뮤니스트당(공산당)의 '일국사회주의' 이론 수용은 부르주아의 재무장화

에 참여, 인민전선에 참여, 그리고 전후 국가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 민족자본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당은 현재에도 자본의 정치기구에서 좌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노동자/민중’ 또는 ‘진보/좌파’의 이름으로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에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 참여해 선거 환상을 퍼트리고, 결국 부르주아의 한 분파, 즉 ‘자본의 좌파’로 자리 잡은 세력이다. 이외에도 ‘사회주의자’ 또는 ‘코뮤니스트’를 자임하며,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본의 좌파도 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를 재창조하려 하거나 ‘스탈린주의’를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계급 운동 전반에 악영향과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이들은 ‘국유화’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면서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둔갑시켜 스탈린주의 체제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맑스주의와 무관하다.

인민전선과 공동전선은 노동자 정부 수립을 위해 다른 계급에 기반을 둔 정파와 동맹을 맺는 전술이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부르주아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와 혼합하는 시도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제하고 잠재워 결국 계급의 자립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술의 현실은 ‘노동/진보’의 가치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부르주아 정파인 자본의 좌파와 기회주의 세력에 이른바 ‘노동자의 벗’이라는 환상을 유지해줄 뿐이며, 더욱이 노동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다.

한편, 노동자 운동 내의 공동전선은 부르주아지에 맞선 특정 사안에 대한 투쟁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를 위해, 개량주의나 중도주의 조직과 공동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과 계급 연대의 표현인 ‘공동행동’을 벗어난 정파 간의 상충부 공동전선은 인민전선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자립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계급투쟁에 임하는 혁명가들의 원칙은 아래로부터의 공동행동을 통해 계급투쟁을 확산시키고, 계급의식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야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전선을 통해서 계급적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훼손하는 세력을 허용하게 된다.

노동자주의, 조합주의, 민족주의, 사민주의 등의 관점에서 노동계급 자립성은 단지 노동계급으로 자칭하기를 원하는 정파로써 자신의 종파성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에 계급 자립성이란 사회 내부의 모든 다른 계급에 대한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성은 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전제조건을 나타내는데, 코뮤니스트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유일한 혁명계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연대와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공동전선과 노동자정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공동행동’과 ‘노동자 자기조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코뮤니스트와 전투

적 노동자는 노동계급 독립을 위해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부르주아 정치로부터의 단절을 실현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이라는 계급적 무기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ICP, 「정치원칙」)

### 〈반(反)혁명의 계승자: 자본의 좌파〉

오늘날 ‘사회주의자’ 또는 ‘코뮤니스트’라고 자칭하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수의 그룹과 조직이 있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재창조하려거나 스탈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희극적인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룹이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가져온 혼란과 악영향은 상당하다. 이러한 그룹 대부분은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강령을 만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혁명적 맑스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는, 그리고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미 맹렬히 비난했던 반동적인 입장이다.

“근대 국가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구이다. 그것은 자본가, 모든 자본가의 이상적인 공동 기구이다. 그것이 생산력을 장악할수록, 자본가의 진정한 공동 기구가 될수록, 점점 더 시민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은 임노동자, 프롤레타리아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 관계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극단으로 더욱 밀어붙인다.”

중국, 베트남, 쿠바 또는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계급의 임무인 사회적 변혁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평의회에서 조직한 프롤레타리아트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착취체제를 ‘진보적’, ‘반(反)자본주의적’ 아니면 심지어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사람들과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다. 마오주의는 게바라주의와 더불어 노동계급을 공격한 스탈린주의(인민전선 개념, 단계론, 국가에 대한 미화, 민족주의 등)와 같은 이념적 전제가 필요한 반(反)코뮤니즘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트로츠키주의 경향은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레온 트로츠키가 지도한 스탈린 반대파라는 명망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트로츠키의 투쟁은 상당히 늦게 발전했다는 사실 외에도, 그가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혼동하고 코뮤니스트당을 정치적 대립을 위한 배타적인 무대로 간주했다는 사실로 인해 항상 큰 타격을 입었다. 트로츠키는 혁명정치의 기반으로 코민테른의 첫 네 번의 대회에서 결정된 지침을 해석했다. 이것과 일치하여, 그는 협약 및 동맹(이른바 공동전선)을 확정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경향이였다는 치명적인 관념을 받아들였다. 상황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의 반동적인 결과는, 1935년 그가 추종자들에게 사회민주당에 입당하도록 지시했을 때에 나타났다. 이것이 이른바 입당주의(entryism)의 기반이었으며, 그것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봉기를 참혹하게 진압했던 세력인 사회민주주의들과 협력한 것이다. 트로츠키가 1938년에 작성한 ‘제4 인터내셔널’의



‘이행강령’에서는 그의 대단히 관념론적인 방법이 두드러진다. 근본적으로, 이른바 이행강령은 최소강령이라는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으로의 복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행강령은 특히 트로츠키주의자는 일련의 개량주의적 요구를 통해 혁명의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트로츠키주의의 뿌리 깊은 믿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트로츠키와 그의 추종자는 제국주의 및 이른바 ‘민족자결권 문제에 관한 초기 코민테른의 모든 혼란을 지속시켰다. 이것은 다양한 지역의 제국주의적 충돌(스페인 내전, 아비시니아, 중일전쟁)을 두둔하고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조국의 방어자로서 제국주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초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트로츠키주의는 국제주의 혁명가가 단호히 비난하고 싸워야 하는 국가자본주의 경향과 같다.

비록 다양한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경향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자본의 좌파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이다. 그들 모두는 민족주의를 지지하고 스탈린주의에 대해 다소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부르주아지 세력과의 동맹을 상징한다. 그들의 개념, 강령, 전술은 수차례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그것은 ‘좌파 통합’의 이름으로 낡은 것들을 계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국경을 넘어 계급투쟁의 전망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세우기 위한 냉철한 정치적 단절의 문제이다. (ICT, 「코뮤니즘을 위하여」)

### 〈‘노동자 정당’들의 반혁명적 실체〉

그것이 비판적이든 조건부이든 (사회주의, 민주주의, 반파시즘, 민족독립, 차악(次惡)의 이름으로든, 또는 인민전선의 이름으로든), 오늘날 특정한 국가들 또는, 다른 부르주아 정파들에 대항해 특정 부르주아 정파들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이나 조직들은, 부르주아의 선거 놀음이나 노동조합의 노동자 적대적인 행동들에 또는 자치경영의 신비화에 어떤 식으로든 동조하는 모든 이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의 대리자들이다. 이것은 특히 ‘사회주의’ 또는 ‘코뮤니스트’ 정당들에 적중한다.

‘사회주의’ 정당들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민족의 수호’를 외쳤기 때문에, 모든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잃어버렸다. 전쟁 이후 그들은 스스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사형집행인임을 증명했다. ‘코뮤니스트’ 정당들은, 그로 인해 제2 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 정당들과 그들 자신 사이의 단절이 결과되었던 바로 그 원칙인, 국제주의를 포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일국사회주의’ 이론(부르주아 진영으로의 결정적인 전향을 특징짓는)을 수용함으로써, 그들 부르주아의 재무장 노력에 참여를, 그리고 인민전선에,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레지스탕스(저항운동)에 및 전후의 국가재건에 참여를 수용함으로써, 이 정당들은 민족자본의 진정한 하수인이자 반(反)혁명의 자명한 실체화로서 자신을 드러냈다.

모든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또는 아나키스트 흐름들, 즉, 이러한 부르주아 정당들로부터

터 직접 유래했거나 또는 이러한 정당들의 몇몇 입장들을 옹호하는(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의 옹호, 반파시즘 연합 등등) 흐름들은, 이들 정당들과 똑같은 진영에, 즉 자본의 진영에 속한다. 그들의 영향력이 더 작거나 더 급진적인 언어를 말한다는 사실이, 이들 정당의 부르주아적 본질에 있어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이러한 정당들의 유용한 물이꾼이자 또는 대리자로 기능하도록 한다. (ICC, 「강령」)

## 라.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거부하고 투쟁할 것인가?

###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주의〉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 제도는 부르주아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그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었다. 선거는 노동계급이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부르주아지는 국가의 폭력을 통해 전 사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나 착취도 필요가 없는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지의 국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국가기구나 그 제도, 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체제 내부에서 개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선거 참여와 의회 진출을 통해 생활개선과 개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써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 19세기 동안,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독재정권 아래에서의 보통 선거권을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신을 조직했던 가장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였다.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도 노동계급 강령을 위한 선전 및 선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의 폭로를 위한 연단을 의회에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뮤니스트혁명이라는 의제와 혁명의 가능성을 직접 내걸어야 하는 자본주의 쇠퇴기에는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이 혁명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의회와 선거 개입에 대한 전술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대한 개입, 각종의 선거 연합은 그들이 내건 급진적이거나 혁명적 수사와 관계없이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기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계급이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려 줄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의 환상일 뿐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의 군대, 사법기관, 국가 관료, 보안 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일상에 대한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노동자가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이른바 ‘민주적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가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선거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전쟁이나 혁명이나’의 시대를 맞아 세계의 노동계급은 의회주의 보통 선거권의 잔해 위에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세우고,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다른 잔재 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길에 서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혁명적 의도와 관계없이 단지 죽어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코뮤니스트혁명의 직접적 목표를 내걸어야 하는 지금 노동계급의 유일한 과제는 바로 낡은 사회질서인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선거 참여 방침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갈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 자기조직화에 달려있다.

현재와 같이 노동계급이 사회혁명을 주도할 유일한 계급으로 성장한 이상, 이제는 객체가 아닌 다른 계급에 대해 독립성을 획득해야 하며, 이것은 노동계급의 자립과 자기조직화로 나타나야 한다. 의회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부르주아 정치 형식인 대리주의는 계급의 자립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의 영역인 의회가 아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부르주아 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ICP, 「정치원칙」)

##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경제, 정치, 군사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재의 정치 체제를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는 '부르주아지의 독재'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단지 부르주아지의 손에 있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의 꼭두각시 인형극에 불과하다. 그들은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주권자(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그것을 '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선거는 부르주아지의 (의회/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을 선출할 자유를 양보하는 순간이다. 그들이 우파든 좌파든 기껏해야 부르주아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줄 세력/사람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신비화를 지지하고,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독재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지 의회/대통령 선거의 사기극에 맞서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관심과 정치적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혁명당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 선출이나 의회 다수파 장악을 통한 정권장악의 길은 결코 임금노동의 착취를 폐지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권리'마저 유지하지 못 할 것이다. 오직 계급투쟁의 확산만이 자본이 잠시나마 노동자에 일부를 양보할 수 있게 한다. 프롤레타리아혁명만이 착취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ICP, 「정치 원칙에 대한 질문」)

## 〈의회와 선거의 신비화〉

자본주의 상승기에 의회는 부르주아지 조직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특히 부르주아 기관으로서 의회는 노동계급의 활동을 위한 주요 무대가 결코 아니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의회 활동과 선거운동 참여는, 지난 세기의 혁명가들이 항상 계급에 경고했던 수많은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이 아직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량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노동계급이 의회 참여를 통해 개량을 추구하고, 선거운동을 프롤레타리아 강령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을 비난하는 호민관으로 의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의회는 더는 개량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제2차 총회에서 “정치적 삶의 무게 중심은 이제 의회의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벗어났다.” 고 표현했다. 그 이후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

할, 즉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것은 신비화의 도구 역할이다. 이로써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회를 활용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노동계급은 실질적인 정치 기능을 상실한 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한 개량을 얻을 수 없다.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제도와 의회를 파괴하는 것이 기본 과업인 시대에, 그리고 보통선거의 폐허와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해 위에 노동계급이 자신의 독재를 건설해야 할 때, 의회와 선거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 전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죽어가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거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더는 지난 세기에 가졌던 장점을 갖지 못한다. 반대로, 그것은 특히 이른바 ‘노동자 정당’ 이 의회 다수를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로 ‘평화적’ 또는 ‘점진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혁명적 의원단’을 통해 ‘내부에서 의회를 파괴’하는 전략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의 타락과 자본주의에 흡수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이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사인 한, 의회는 대중의 자기 활동 공간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 간의 게임을 위한 경기장이다. 선거와 의회를 선전과 선동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전제를 유지하고, 노동계급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혁명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그러한 약점이 용인되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의제의 유일한 과업이 바로 낡은 사회질서의 전복과 코뮤니스트 사회의 건설인 시대에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이 과업은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처음에 ‘혁명적 의회주의’ 전술이 주로 노동계급과 조직 내에서 과거의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전술의 비참한 결과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CC, 「강령」)

## 〈의회〉

코뮤니스트는 노동자의 자유가 의회에서 과반수 당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 순진함’의 환상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무화과 이파리일 뿐이다.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서 국가 관료, 그 보안 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의회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환상을 준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에 쓸모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싸우라고 요구하면서 의회 선거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의 파괴를 통해서만 노동계급이 완전한 표현과 조직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혁명당에 달려있다. 이것은 대표자를 단순히 노동자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일단 그들이 자본주의 관계의 진압을 수행하면, 평의회는 계급을 폐지하고 국가에 대한 모든 필요성을 없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반(半)국가적 기능을 가진 기구에서 단순한 경제 관리자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소멸"에 관해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다. (ICT, 「강령」)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문명에 속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와 내각은  
그 자본주의 문명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노동자평의회 건설과  
코뮤니즘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실비아 팽크허스트, 「노동자 전함」, 1922년


나는 현 사회 체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전복과  
사회주의 연방의 즉각적인 수립을 지지합니다.

나는 모든 선거 운동과 개혁 공약을 거부합니다.

노동자들은 선거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와 의회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현장과 거리에서 투쟁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체제인  
코뮤니즘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가이 알드레드, 「노동자계급 유권자들에게」, 1922년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문명에 속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와 내각은 그 자본주의 문명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노동자평의회 건설과 코뮌니즘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실비아 팅크허스트, 「노동자 전함」, 1922년)

나는 현 사회체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전복과 사회주의 연방의 즉각적인 수립을 지지합니다.

나는 모든 부르주아 선거운동과 개혁 공약을 거부합니다.

**노동자들은 선거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와 의회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현장과 거리에서 투쟁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체제인 코뮌니즘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가이 알드레드,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1922년)

맑스주의 원칙으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오랫동안 발전해 온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선동은 선거와 부르주아 기관에서 보이콧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선거 활동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실천은 이중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모든 힘을  
빨아들여 당의 다른 모든 부분을 마비시킵니다.

선거 활동을 수행하는 당 조직은 혁명에 필요한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에 맞는 조  
직의 성격과 뚜렷이 다른 매우 특수한 기술적 성격을 발전시킵니다. 당은 유권자들을 준  
비하고 동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여러 선거위원회로 쪼개집니다.

언론,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결사의 자  
유 등을 활용하는 것은 행동 방식 문제입니다. 선거 캠페인과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것  
은 부르주아 기관 문제입니다. 부르주아 기관은 노동자 소비에트 같은 프롤레타리아 기  
관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 이후에 언론, 선전 등의 활용을 포기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구를 분쇄하고 그  
자리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의회 연단에서도 선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의

유치한 주장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선거와 의회 연단에서 발언은 언론에 실리게 됩니다. 그 언론이 부르주아 신문이라면 모든 것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 언론이 우리 편 신문이라면 나중에 어차피 인쇄되어 나올 내용을 연단에서 발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착취자에서 피착취자로 권력 이전은 그 뒤로 대의제 기구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르주아 의회주의는 소비에트 체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직접 행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은폐하는 민주주의라는 낡은 가면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코뮤니스트당이 의회주의(선거주의)적 실천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부여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시지프스의 노고처럼 힘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뮤니스트 혁명 대의는 바로 착취자들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직접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마데오 보르디가,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1920년)

의회주의는 본질적으로 혁명에 필수적인 대중의 자발적 활동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에 혁명적 행동을 촉구하는 훌륭한 연설이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어려운 필요성에서이다.

혁명은 또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대규모 공격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도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거대한 충동으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다. 혁명은 사회 재건을 요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전체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조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먼저 전위가, 그다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책임을 알고, 조사하고, 선동하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높은 단상에서 선동을 이끌거나,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자신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더 쉬운 길을 생각하는 한, 사고의 낡은 습관과 오래된 나약함은 그들을 주저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남게 할 것이다.

의회주의는 **한편으로 대중에 대한 지도자의 지배를 강화하는 반(反)혁명적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정치가가 대중의 능동적인 힘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때, 사소한 외교술이 발전한다. 당이 어떤 의도로 출발했든 간에, 법적 기반, 즉 의회 권력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결국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역전되고, 더는 코뮤니즘을 향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의회가 아니라 의회정치를 위한 선전 구호로서 있는 코뮤니즘이 되는 것이다.

(안톤, 판네쿱 「세계혁명과 코뮤니스트 전술」, 1920년)



다시 코뮤니스트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의회로 들어갈 겁니다. (노동자들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내몰았던)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다시 지지받게 될 겁니다.

코뮤니즘을 위해 건설하는 당 대신, 관성적으로 정당들을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애국주의자들 및 부르주아 분자들과의 의회주의적 타협이 다시금 등장할 것이며, 그로 인해 결국 서유럽에서 모든 혁명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연설의 자유는 억압당할 것이고, 훌륭한 코뮤니스트들은 모두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제2 인터내셔널에서 발생했던 모든 관행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열 외부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신과 힘을 황폐화하는 기회주의가 다시 섞여 들어오는 것은 좌익이 너무 급진적으로 되는 것보다 수천 배 더 나쁠 것입니다.

(헤르만 호르터, 「레닌동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920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시즌2에서 만나요...